

3농혁신의 중간 모니터링 및 지속성 제고방안 연구

농촌농업연구부&6차산업화센터

차 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범위	2
제3절 연구방법.....	5
제2장 총괄부문	7
제1절 3농혁신 정책분석.....	7
제2절 3농혁신 내용분석.....	24
제3절 3농혁신 인식분석.....	32
제4절 주요성과와 개선방안.....	56
제3장 친환경 고품질 사업 분야	63
제1절 친환경 고품질 농업 부문.....	63
제2절 선진 축산 부문.....	74
제3절 청정수산 부문.....	83
제4장 지역식품 유통 사업 분야	89
제1절 지역순환식품&학교급식지원 부문.....	89
제5장 행복마을 사업 분야	95
제1절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부문.....	95
제2절 두레기업 육성 부문.....	110
제3절 농어촌 복지 부문.....	119

제6장 도농교류 사업 분야	129
제1절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 부문.....	129
제7장 농어촌역량강화 사업 분야	135
제1절 지역리더 양성 부문.....	135
제2절 농어업인역량강화(3농혁신대학 운영) 부문.....	140
제8장 결론	145
제1절 연구 요약.....	145
제2절 정책적 제언.....	145
참고 문헌	147

제1장 서론

【유학열】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민선5기 충남도정의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지속가능한 충남 농어업·농어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3농혁신을 도정의 제1과제로 내세웠다는 점이다. 행복한 농어업인, 더불어 잘 사는 농어촌,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그동안 다양한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어 계획하고 열정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아직 추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시적인 성과는 찾기 어렵지만 나름 충남형 3농혁신이 우리지역 농어업, 농어촌에 침투, 확산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당초의 3농혁신 방향과 목표에 부합하면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과 거버넌스는 제대로 구축되어 작동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의문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과 관련된 수많은 정책과제를 풀어나가는 3농혁신이 가시적 성과를 얻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에 혁신 성과를 논하기는 시기상조이지만, 민선 5기 반환점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당초의 목표, 계획에 부합하면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엄밀히 되짚어 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3농혁신의 비전, 목표, 전략, 조직, 예산 등에 관한 총괄적인 부문과 주요 핵심 사업부문¹⁾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즉 3농혁신 계획의 타당성, 집행의 일관성, 제도의 합리성, 정책의 신뢰성에 대해 심도 있는 중간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 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3농혁신정책의 지속가능한 정책기반 구축에 기여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다.

1) 2013년 1월 26일 3농혁신워크숍에서 새롭게 개편된 3농혁신 추진체계를 보면 친환경고품질사업단, 지역식품유통사업단, 행복마을사업단, 도농교류사업단, 농어촌역량강화사업단의 5개 사업단으로 재편성되었음. 본 연구에서는 원내 참여연구진의 전공과 역량을 고려 연구범위를 설정함에 따라 일부 분야(사업)는 연구에서 제외함

【참고 3농혁신 추진 경위】

- ▶ 11년 1월 충남 농정혁신 실천과제 시행계획 수립 지사(도지사)
- ▶ 11년 1월 충남농정혁신위원회 구성(충남도 정책자문위원회)
- ▶ 11년 2~4월 민선5기 충남 농정의 과제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연속 워크숍(총6회)
- ▶ 11년 4월 농어업·농어촌 혁신 대토론회 개최
- ▶ 11년 5월 농어업·농어촌 혁신 TF 구성, 운영
- ▶ 11년 8월 3농혁신 기본계획 보고회(도지사)
- ▶ 11년 12월 3농혁신 전담조직 구성: 3농혁신위원회, 3사업단/8TF
- ▶ 12년 1월 3농혁신위원 합동워크숍
- ▶ 12년 2월 3농혁신 추진상황보고회(제1회)
- ▶ 12년 2월 3농혁신대학 운영 개시
- ▶ 12년 7월 3농혁신 추진상황보고회(제2회)
- ▶ 12년 10월 3농혁신 추진상황보고회(제3회)
- ▶ 13년 1월 3농혁신 워크숍
- ▶ 13년 4월 3농혁신 추진상황보고회(제4회)
- ▶ 13년 5월 3농혁신 5개 사업단 및 18개 탐별 협의회 개최
- ▶ 13년 6월 3농혁신위원 간담회 개최
- ▶ 13년 7월 3농혁신 추진상황 점검(기획관리실)
- ▶ 13년 8월 3농혁신 추진상황보고회(제5회)
- ▶ 13년 8월 3농혁신 5개 사업단 및 18개 탐별 협의회 개최
- ▶ 13년 9월 3농혁신위원 워크숍

제2절 연구범위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3농혁신의 전반적 내용을 다루는 총괄편과 5개 사업단별 세부 사업을 다루는 각론편으로 나뉜다.

총괄편에서는 3농혁신 기본계획에서 수립된 비전, 목표, 추진전략을 재조명해 보고 3농혁신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예산분배, 성과관리, 홍보 등에 대한 중간 모니터링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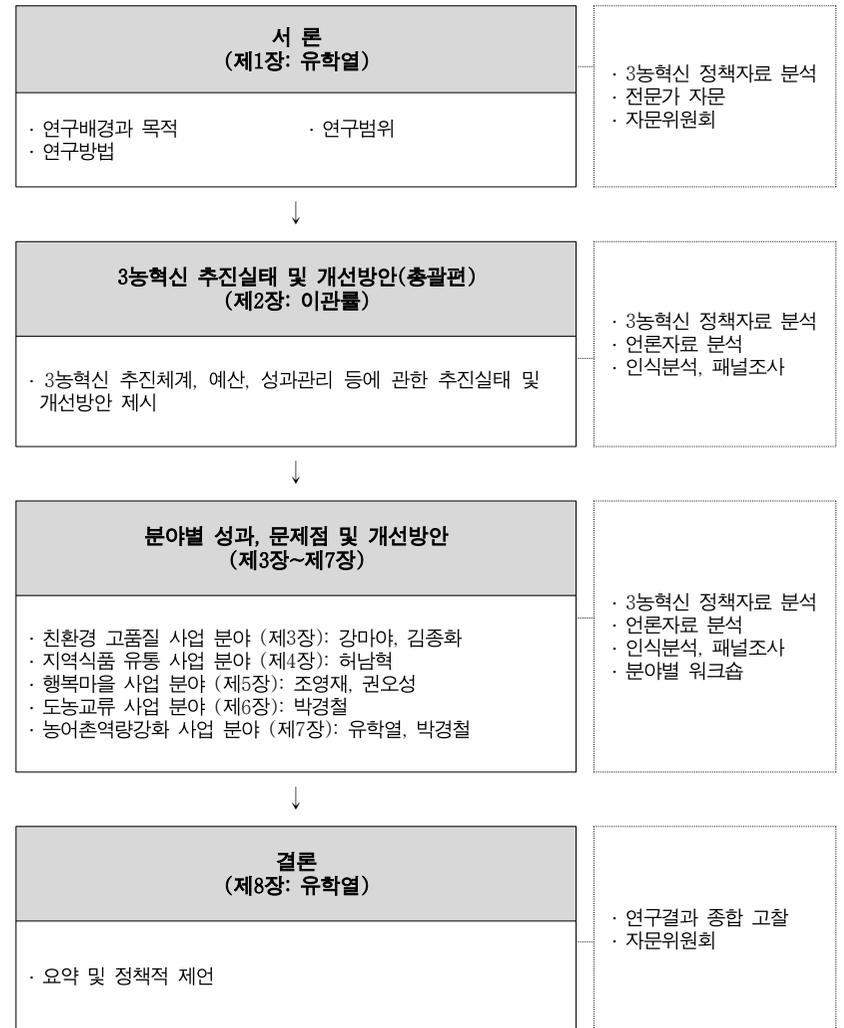
각론편에서는 친환경 고품질농업 등 11개 TF팀²⁾의 추진 실태, 특히 분야별 킬러콘텐츠³⁾를 면밀히 분석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과와 문제점 도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추진실태의 경우 2012년 12월 기준, 성과는 2013년 3월 기준으로 정하였으나 분야별로 상이할 수 있다.

<표 1-1> 연구의 내용적 범위

구분	분석 내용	
총괄	실태 분석	- 3농혁신의 제도, 예산편성, 조직(추진체계), 거버넌스, 모니터링, 성과관리, 홍보 등 전반적 내용에 대한 현 실태 진단
	개선 방안	- 현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제시
세부 분야	성과 도출	- 주요 분야별 지금까지의 성과 도출(정량적 성과, 정성적 성과)
	실태 분석	- 지금까지 추진과정 진단(평가) - 주요 문제점 도출(분야별 핵심사업 중심으로)
	개선 방안	-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 제시

2) 본 연구에서는 3농혁신 18개 TF팀 가운데 친환경고품질농업팀, 선진축산팀, 청정수산팀, 지역순환식품팀, 학교급식지원팀, 희망마을만들기팀, 두레기업육성팀, 농어촌복지팀, 농어촌체험관광팀, 지역리더양성팀, 농어업인역량강화팀만 다루기로 함
3) 3농혁신 각 분야 TF팀 내 논의와 3농혁신위원회에서 결정된 분야별 핵심사업을 의미함



<그림 1-1> 연구의 흐름

제3절 연구방법

1. 문헌조사

- 3농혁신 관련 정책자료, 사업계획서, 예·결산 자료 수집, 검토
- 3농혁신과 관련된 최근 2년간 언론보도자료 취합, 검토
- 3농혁신 중간 진행상황 보고서, 3농혁신대학 자료 취합, 검토

2.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연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의 설계부터 방법론, 구성체계, 내용, 범위 등 연구 전반에 걸쳐 자문을 얻고자 함
- 연구자문위원은 3농혁신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전문가와 3농혁신위원(또는 TF위원) 및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 함
- 자문위원 명단은 아래와 같음

<표 1-2> 자문위원회 구성

구분	성명	소속	역할
전문가	허승욱	단국대학교	연구방향, 연구내용에 대한 자문
	김태연	단국대학교	모니터링 대상, 방법에 대한 자문
	김 호	단국대학교	연구방향, 현장의견 제공
3농혁신위원	박진도	충남대학교	연구방향, 연구내용에 대한 자문
	김종민	前정부부지사	연구방향, 연구범위에 대한 자문
공무원	손권배	농업정책과	연구내용, 연구성과 활용에 대한 자문
	추 욱	농업정책과	연구성과 활용에 대한 자문
	길병성	농업정책과	각종 자료 및 조사 협조

- 자문위원회 운영은 연구 개시부터 연구종료까지 수시로 운영할 계획
- 현재(6월 21일)까지 자문회의 추진 실적은 아래와 같음
 - 자문회의(3회): 1월 29일, 2월 1일, 9월 27일
 - 연구 중간진행 상황 검토를 위한 총괄 워크숍: 6월 4일
 - 연구 결과 검토를 위한 총괄 워크숍: 10월 말(예정)

3. 분야별 연구회 운영(부록 참조)

- 분야별 워크숍 개최
 - 관련 주체들이 모여 분야별로 현 상태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공유하며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
 - 분야별 연구회: 4월부터 현재까지 총 30여회의 연구회(간담회, 세미나) 개최

4. 내용분석 및 인식조사 수행

- 3농혁신 관련 언론기사 내용분석
 - 3농을 검색하여 내용분석 수행
 - 대상검색신문: 중도일보, 충청일보, 충청투데이
- 3농혁신 인식 및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 기간: 2013년 4월 20일~31일
 - 대상: 3농혁신위원회, 3농혁신TF팀원, 전문가 등 총 338명 중 유효회답 306명

5. 대토론회 개최

- 연구 성과를 토대로 3농혁신의 성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다양한 주체들이 공유할 수 있는 대토론회 실시: 11월(예정)

제2장 총괄부문

【이관률】

제1절 3농혁신 정책분석

1. 정책배경 및 추진경과

1) 정책배경

2011년 민선5기가 시작된 이후 농정을 충남도의 핵심 아젠다로 설정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고, 그 일환으로 도입된 정책이 충남도의 3농혁신정책이다. 3농혁신이란 농어업인이 농정의 주체가 되어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쾌적하고 잘사는 농어촌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즉 농어업인은 국민의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고, 농어촌은 국토와 환경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농어민은 식량안보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충청남도, 2013). 즉 농어업은 생산-유통-소비혁신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농어촌은 고품격 삶의 공간 조성 및 지역공동체 구축, 농어민은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리더 양성을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3농혁신이 등장한 등장배경은 크게 농어업-농어촌의 현실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 그리고 농어업-농어촌의 가치와 인식변화라는 2가지 측면에서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의 재편되는 과정에서 소규모 영세농이 많은 우리 농어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3농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 증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증대, 환경생태와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귀농귀촌인구의 증가라는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3농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충청남도, 2013).

2) 추진경과

2011년 초기부터 중앙정부, 충남도, 시군 등 정책수립 및 집행자, 그리고 농어업인 단체, 소비자 단체 등 정책수혜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여 투명한 절차를 통해 그 해법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2011년에 총 6차례에 걸친 농정 연속 워크숍(2011. 2. 10 ~ 4. 14)과 농어업-농어촌 혁신 대토론회(2011. 4. 26)를 통해 3농혁신의 기본안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안을 바탕으로 농어업단체, 전문가, 공무원, 총발원 등이 참여하는 TF팀(4개 분과)을 구성해 신규 실천사업 및 기존사업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2011년 5월 12일부터 8월 5일까지 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2011년 8월 30일에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혁신기본계획(2011)”이 수립되었는데, 이것이 현재 3농혁신정책의 출발점이다(충청남도, 2011).

한편 3농혁신정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농혁신위원회 및 3단 8TF로 된 전담추진조직을 2011년 12월에 구성하였다. 이렇게 2011년에는 3농혁신정책을 위한 내용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2012년부터 3농혁신정책을 중심으로 충남도의 농정정책이 추진되었다. 그 이후에는 3농혁신을 위한 연차별 세부실천계획이 수립되었고, 매분기별로 3농혁신 추진상황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연 11회 3농혁신대학의 운영, 그리고 3농혁신위원회 및 개별 TF별로 추진상황 점검 및 시책발굴이 이루어졌다. 3농 혁신의 주요 추진경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한편 3농혁신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12년 1월부터 매월 1회 3농혁신대학을 개최해 오고 있다. 3농혁신대학은 농어업인들의 마인드 향상과 개인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3농혁신대학은 농업기술원이 주관을 하고, 주 대상은 농어업인이다. 이외에도 공무원 90명을 대상으로 ‘3농혁신 정책의 이해’라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 2-1> 3농혁신의 추진경과

시기	주요 추진경과
2011년	1월 - 농정혁신 시행계획 수립 지시
	2월~7월 - 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 · 전문가 합동 워크숍(2월~4월, 총 6회) · 농어업농어촌 혁신 대토론회(4. 26) · TF팀 구성 및 과제도출 회의(5월~8월, 4개 분과)
	8월 - 3농혁신 기본계획 도의회 농경위 보고(8. 29) - 3농혁신 기본계획 도민보고(8. 30) - 선포식
	9월~12월 -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 시군 순회 설명회(5개 권역) · 기자브리핑, 특별대담(4회), 기획수시보도 - 전담추진 조직 구축(12. 12) · 3농혁신위원회 및 3단 8TF팀
2012년	1월 - 3농 혁신위원회 출범 및 합동워크숍 개최 - 총괄지원조직 설치: 농정혁신담당 - 3농혁신 세부실천계획 수립(1. 17)
	2월~12월 - 3농혁신 추진상황 점검(2.15, 4.19, 7.18, 10.17, 12.28) - 3농혁신대학 운영(11회) - 3단/8TF별 회의 개최 및 추진상황 수시점검 및 보완 - 2013년 시책구상보고회, 각종 간담회, 소위원회 개최
	1월 - 2013년도 3농혁신 합동워크숍(1. 25~26)
	2월~12월 - 제1회 3농혁신 전진대회(2. 15) - 3농혁신 추진상황 점검(분기별 1회) - 3농혁신대학 운영 중(11회)

자료: 충청남도(2013)

2. 정책목표 및 주요내용

1) 정책목표

2011년 수립된 3농혁신의 비전은 “농어업인·소비자도시민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충남 농어업농어촌 사회”로 설정되었고, 이를 위한 3대 목표를 농어업인을 비롯한 농어촌 주민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 충남 도민과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기본권 실현, 도시와 순환공생하는 농어촌 공동체 만들기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3대 추진전략을 친환경·지역순환 식품체계 수립,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내발적 발전, 농어촌 주민의 역량 강화로 설정하였고, 11대 추진분야로 친환경·고품질 농업, 선진축산업, 산림자원 육성활용, 청정수산,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농어업 6차산업화, 농어촌 사회서비스 확충, 도농교류와 농어촌 응원운동, 지역리더 양성, 그리고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11개 분야에 총 347개의 시책을 발굴하였는데, 이 중에서 신규사업은 76개이고, 기존사업은 271개였다.

한편 3농혁신정책의 의의를 하드파워에서 소프트파워로, 행정주도에서 민관협력 강화로, 대외경쟁력 강화에서 지역연대 강화로, 외생적 발전에서 내발적 발전으로 제시하였다. 3농혁신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단순반복적으로 수행되던 농정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확대 51건, 유지 203건, 축소 13건, 개선 4건, 일몰 37건 등을 통해 최종 사업을 선정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3농혁신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가 되어 농정의 방향을 설정했다는 측면, 그리고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정책과정에 참여했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농정정책과 큰 차이점을 갖는다고 하겠다.

<표 2-2> 3농혁신의 비전과 목표

구분	내용
비전	어업인·소비자도시민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충남 농어업농어촌 사회 구현
목표	농어업인을 비롯한 농어촌 주민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 충남 도민과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기본권 실현 도시와 순환공생하는 농어촌 공동체 만들기
추진전략	친환경·지역순환 식품체계 수립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내발적 발전 농어촌 주민의 역량 강화
특징	하드파워에서 소프트파워로 행정주도에서 민관협력 강화로 대외경쟁력 강화에서 지역연대 강화로 외생적 발전에서 내발적 발전

2) 주요내용

2011년 3농혁신정책의 수립 당시 사업내용은 11개 사업부문, 즉 친환경·고품질 농업, 선진 축산업, 산림자원 육성·활용, 청정수산,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농어업 6차산업화, 농어촌 사회서비스 확충, 도농교류와 농어촌 응원운동, 지역리더 양성, 민관협력 체계 구축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2011년 당시 3농혁신정책은 부문별로 접근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2012년 이후부터는 기존의 부문별 접근전략에서 탈피하여 전략별 접근 전략으로 변화되었다. 즉 기존의 11개 부문을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도농교류 활성화, 지역리더 육성의 5개 전략으로 통합하였다. 특히 2013년에는 5개 전략별로 총 30개 핵심사업을 별도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 2-3> 3농혁신의 주요내용

구분	2011년	2012년	2012년
사업 부문	친환경·고품질 농업 선진축산업 산림자원 육성·활용 청정수산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농어업 6차산업화 농어촌 사회서비스 확충 도농교류와 농어촌 응원운동 지역리더 양성 민관협력 체계 구축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도농교류 활성화 지역리더 육성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도농교류 활성화 지역리더 육성
중점 사업	-	-	30대 사업

3. 추진조직

3농혁신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3농혁신위원회 및 3단 8TF의 전담추진조직을 2011년 12월 12일 구성하였다. 3농혁신위원회는 지역대학교수를 단장으로 하여 총 17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중에는 농협,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어촌공사, 충남교육청 등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되었다. 3농혁신위원회는 다양한 관련 분야의 의견을 수렴을 위해서 매년 확대되어 왔다. 그 결과 2011년에는 17명, 2012년에는

22명, 그리고 2013년에는 25명으로 확대되었고, 참여 구성원도 매우 다양화되었다.

한편 3농혁신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업단과 TF팀을 별도로 구성하였다. 당초 2011년에는 3농혁신의 11개 분야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친환경·고품질, 지역순환식품, 살기좋은 희망마을만들기는 3개의 사업단으로, 그 외 8개 사업분야는 TF팀 총 90명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사업단과 TF팀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3농혁신 추진상황점검은 2012년부터 매분기별로 개최되어 오고 있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3단 8TF를 5단 18팀으로 재편하여 운영하고 있어, 5개 사업단에는 총 179명이 참여하고 있다. 3단 8TF는 기존의 부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면, 5단 18팀은 3농혁신이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목표를 중심으로 사업단을 구성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표 2-4> 3농혁신의 추진조직

	2011년~2012년	2013년
	3단 8TF(2011년 90명, 2012년 109명)	5단 18팀(179명)
친환경 고품질 정책기획단		친환경 고품질사업단 - 친환경 고품질농업팀 - 선진축산팀 - 청정수산팀 - 산림자원팀 - 친환경농업기술팀
지역순환식품사업단		지역식품유통사업단 - 산지유통혁신팀 - 학교급식지원팀 - 지역순환식품팀
살기좋은 희망마을 추진단		행복마을사업단 - 희망마을만들기팀 - 도농상생복합단지팀 - 마을리모델링팀 - 두레기업육성팀 - 농어촌복지팀
선진축산팀 청정수산팀 산림자원육성활용팀 도농상생마을만들기팀 농어업 6차 산업화팀 지역리더양성팀 도농교류활성화팀 농어촌사회서비스 확충팀		도농교류사업단 - 농어촌체험관광팀 - 농어촌사랑운동팀 농어촌역량강화사업단 - 농어업인역량강화팀 - 지역리더양성팀 - 귀농귀촌팀

4. 예산규모

1) 2011년의 예산규모

당초 3농혁신정책은 11개 분야 384개 사업이 계획되었으나, 최종 확정단계에서 일부사업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11년의 경우 3농혁신은 농업업 사회서비스 확충을 제외한 10개 부문에 총 292개로 구성되었다. 2011년 3농혁신정책의 총예산액은 972,397백만원이고, 이중에서 국비는 489,916백만원(50.4%), 도비는 105,904백만원(10.9%), 시군비는 241,908백만원(24.9%), 기타는 134,669백만원(13.8%)이다. 따라서 3농혁신정책에서 가장 큰 재원은 국비이고, 그 다음이 시군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비는 재원의 비중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예산액 중에서 보조사업이 764,105백만원(78.6%)인 반면, 자체사업은 208,292백만원(21.4%)에 불과하다.

한편 부문별로 구분해 보면, 친환경고품질농업의 예산이 291,298백만원(30.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가 215,415백만원(22.2%)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고품질농업과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예산이 3농혁신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산림자원 육성활용이 152,593백만원(15.7%), 선진축산업이 95,684백만원(9.8%), 청정수산이 94,169백만원(9.7%)이다. 따라서 친환경고품질농업,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산림자원 육성활용, 선진축산업, 청정수산의 5개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87.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정책적 차별성이 큰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은 54,511백만원(5.6%), 도농교류와 농어촌 응원운동은 40,832백만원(4.2%), 농어업 6차산업화는 26,414백만원(2.7%), 지역리더양성은 1,454백만원(0.1%) 등으로 전체 예산의 12.7%에 불과하다. 그리고 예산이 작은 5개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서 국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재원별로 구분해 볼 때, 도비의 비중이 높은 사업은 민관협력 체계구축이 100.0%이고, 그 다음이 지역리더 양성으로 40.8%, 농어업 6차 산업화가 17.6%, 지역순환식품체계가 17.2%, 도농교류와 농어촌 응원운동이 1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분야는 3농혁신의 10대 분야 중에서 예산규모가 작은 분야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리고 시군비의 비중이 높은 사업은 지역순환식품체계가 40.7%, 선진축산업 35.8%, 농어업 6차 산업화 29.4%, 도농교류와 농어촌 응원운동 24.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2011년도 3농혁신 예산규모

(단위: 백만원, %)

구분	사업수	평균 사업비	총액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전체	소계	292	3,330.1	972,397	489,916 (50.4)	105,904 (10.9)	241,908 (24.9)	134,669 (13.8)
	보조	155	4,929.7	764,105	489,516 (64.1)	61,172 (8.0)	151,920 (19.9)	61,497 (8.0)
	자체	137	1,520.4	208,292	400 (0.2)	44,732 (21.5)	89,988 (43.2)	73,172 (35.1)
친환경 고품질농업	소계	52	5,601.9	291,298	176,267 (60.5)	23,225 (8.0)	47,807 (16.4)	45,999 (15.1)
	보조	27	8,483.4	229,052	176,267 (77.0)	11,095 (4.8)	20,528 (9.0)	21,162 (9.2)
	자체	25	2,489.8	62,246	0 (0.0)	12,130 (19.5)	27,279 (43.8)	22,837 (36.7)
선진축산업	소계	70	1,366.9	95,684	22,924 (24.0)	12,228 (12.8)	34,234 (35.8)	26,298 (27.5)
	보조	25	2,307.3	57,682	22,924 (39.7)	5,857 (10.2)	18,617 (32.3)	10,284 (17.8)
	자체	45	844.5	38,002	0 (0.0)	6,371 (16.8)	15,617 (41.1)	16,014 (42.1)
산림자원 육성활용	소계	26	5,869.0	152,593	70,806 (51.3)	20,813 (13.6)	44,140 (28.9)	16,834 (11.0)
	보조	21	6,570.7	137,984	70,806 (51.3)	17,343 (12.6)	33,001 (23.9)	16,834 (12.2)
	자체	5	2,921.8	14,609	0 (0.0)	3,470 (23.8)	11,139 (76.2)	0 (0.0)
청정수산	소계	60	1,569.5	94,169	51,359 (54.5)	10,931 (11.6)	15,271 (16.2)	16,608 (17.6)
	보조	38	2,012.8	76,486	51,259 (67.1)	6,887 (9.1)	8,426 (11.0)	9,888 (12.9)
	자체	22	803.8	17,683	0 (0.0)	3,949 (22.3)	5,815 (32.9)	7,919 (44.8)
지역순환식품 체계 구축	소계	20	2,725.6	54,511	5,696 (10.4)	9,371 (17.2)	22,189 (40.7)	17,255 (31.7)
	보조	4	3,024.8	12,099	5,696 (47.1)	1,564 (12.9)	3,596 (29.7)	1,243 (10.3)
	자체	16	2,650.8	42,412	0 (0.0)	7,807 (18.4)	18,593 (43.8)	16,012 (37.8)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소계	16	13,463.4	215,415	136,258 (63.3)	18,573 (8.6)	60,584 (28.1)	0 (0.0)
	보조	14	14,167.3	198,342	136,258 (68.7)	9,964 (5.0)	52,120 (26.3)	0 (0.0)
	자체	2	8,536.5	17,073	0 (0.0)	8,609 (50.4)	8,464 (49.6)	0 (0.0)
농어업 6차산업화	소계	22	1,200.6	26,414	9,898 (37.5)	4,656 (17.6)	7,774 (29.4)	4,086 (15.5)
	보조	8	2,609.9	20,879	9,898 (47.4)	2,795 (13.4)	5,190 (24.9)	2,986 (14.3)
	자체	14	395.4	5,535	0 (0.0)	1,861 (33.6)	2,584 (46.7)	1,090 (19.7)
농어업 사회서비스 확충	소계	0	0	0	0 (-)	0 (-)	0 (-)	0 (-)
	보조	0	0	0	0 (-)	0 (-)	0 (-)	0 (-)
	자체	0	0	0	0 (-)	0 (-)	0 (-)	0 (-)
도농교류와 농어촌 응원운동	소계	20	2,041.6	40,832	16,163 (39.0)	5,487 (13.4)	9,909 (24.3)	9,273 (22.7)
	보조	15	2,025.1	30,377	15,763 (51.9)	5,129 (16.9)	9,412 (31.0)	73 (0.2)
	자체	5	2,091.0	10,455	400 (3.8)	358 (3.4)	497 (4.8)	9,200 (88.0)
지역리더 양성	소계	4	363.5	1,454	545 (37.5)	593 (40.8)	0 (0.0)	316 (21.7)
	보조	3	401.3	1,204	545 (45.3)	443 (36.8)	0 (0.0)	216 (17.9)
	자체	1	250.0	250	0 (0.0)	150 (60.0)	0 (0.0)	100 (40.0)
민관협력체계 구축	소계	2	13.5	27	0 (0.0)	27 (100.0)	0 (0.0)	0 (0.0)
	보조	0	0	0	0 (-)	0 (-)	0 (-)	0 (-)
	자체	2	13.5	27	0 (0.0)	27 (100.0)	0 (0.0)	0 (0.0)

한편 부문별 사업의 평균 규모를 살펴보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의 경우 1개 사업당 평균사업비가 13,463백만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산림자원 육성활용이 5,869백만원,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이 2,726백만원, 도농교류와 농어촌 응원운동이 2,042백만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업당 규모가 가장 작은 사업은 민관협력 체계 구축으로 13.5백만원, 그 다음으로 지역리더 양성이 364백만원, 농어업 6차산업화가 1,201백만원 것으로 나타났다.

2) 2012년의 예산규모

2012년의 경우 3농혁신은 총 11개 부문에 총 347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예산액은 995,261백만원이다. 이중에서 국비는 489,414백만원(49.2%), 도비는 111,504백만원(11.2%), 시군비는 238,909백만원(24.0%), 기타는 155,434백만원(15.6%)이다. 이러한 재원별 비중은 2011년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보조사업이 775,782백만원(77.9%)이고, 자체사업이 219,479백만원(22.1%)이다.

한편 부문별로 구분해 보면, 11개 부문의 사업비 구성이 2011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환경고품질농업,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산림자원 육성활용, 선진축산업, 그리고 청정수산이 전체 예산의 80.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1년의 예산에서 동 분야가 차지한 비중인 87.3%보다는 낮은 비중이지만, 여전히 이들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그 외 분야인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 도농교류와 농어촌 응원운동, 농어업 6차산업화, 지역리더 양성, 농어업 사회서비스 확충, 민관협력 체계구축 등 6개 사업비는 19.3%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3농혁신의 부문별 예산은 2011년과 크게 상이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도비의 비중이 높은 분야 역시 농어업 사회서비스 확충, 민관협력체계 구축, 지역리더 양성, 도농교류와 농어촌 응원운동, 농어업 6차산업화, 지역순환식품체계 육성 등으로 2011년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시군비의 비중이 높은 분야 역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선진축산업,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 농어업 6차산업화, 도농교류와 농어촌 응원운동으로 큰 차이점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표 2-6> 2012년도 3농혁신 예산규모

(단위: 백만원, %)

구분	사업수	평균 사업비	총액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전체	소계	347	2,868.2	995,261	489,414 (49.2)	111,504 (11.2)	238,909 (24.0)	155,434 (15.6)
	보조	157	4,941.3	775,782	489,255 (63.1)	63,485 (8.2)	145,978 (18.8)	77,064 (9.9)
	자체	190	1,155.2	219,479	159 (0.1)	48,019 (21.9)	92,931 (42.3)	78,370 (35.7)
친환경 고품질농업	소계	62	4,898.2	303,686	179,785 (56.2)	25,114 (8.3)	53,411 (17.6)	54,376 (17.9)
	보조	27	8,806.8	237,782	179,785 (71.8)	12,030 (5.1)	25,797 (10.8)	29,170 (12.3)
	자체	35	1,883.0	65,904	0 (0.0)	13,084 (19.9)	27,614 (41.9)	25,206 (38.2)
선진축산업	소계	77	1,412.2	108,740	25,021 (23.0)	13,422 (12.3)	35,783 (32.9)	34,514 (31.7)
	보조	25	2,762.6	69,066	25,015 (36.2)	6,825 (10.0)	19,032 (27.6)	18,094 (26.2)
	자체	52	763.0	39,674	6 (0.0)	6,497 (16.4)	16,751 (42.2)	16,420 (41.4)
산림자원 육성활용	소계	27	5,468.9	147,660	67,347 (45.6)	19,962 (13.5)	41,885 (28.4)	18,466 (12.5)
	보조	21	6,272.1	131,715	67,347 (51.1)	16,241 (12.3)	29,994 (23.3)	18,133 (13.8)
	자체	6	2,657.5	15,945	0 (0.0)	3,721 (23.3)	11,891 (74.6)	333 (2.1)
청정수산	소계	61	1,448.4	88,350	47,239 (53.5)	11,703 (13.2)	15,176 (17.2)	14,232 (16.1)
	보조	38	1,833.5	69,673	47,239 (67.8)	7,461 (10.7)	8,775 (12.6)	6,198 (8.9)
	자체	23	812.0	18,677	0 (0.0)	4,242 (22.7)	6,401 (34.3)	8,034 (43.0)
지역순환식품 체계 구축	소계	31	1,831.1	56,765	5,077 (8.9)	9,309 (16.4)	19,123 (33.7)	23,256 (41.0)
	보조	4	2,867.8	11,471	5,059 (44.1)	1,433 (12.5)	3,280 (28.6)	1,699 (14.8)
	자체	27	1,677.6	45,294	18 (0.0)	7,876 (17.4)	15,843 (34.5)	21,557 (47.6)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소계	20	11,049.6	220,991	147,214 (66.6)	19,833 (9.0)	53,944 (24.4)	0 (0.0)
	보조	14	14,428.6	202,001	147,214 (72.9)	10,803 (5.3)	43,984 (21.8)	0 (0.0)
	자체	6	3,165.0	18,990	0 (0.0)	9,030 (47.6)	9,960 (52.4)	0 (0.0)
농어업 6차산업화	소계	31	1,055.1	32,707	12,099 (37.0)	5,378 (16.4)	10,218 (31.2)	5,012 (15.3)
	보조	10	2,527.7	25,277	12,099 (47.9)	2,965 (11.7)	6,791 (26.9)	3,422 (13.5)
	자체	21	353.8	7,430	0 (0.0)	2,413 (32.5)	3,427 (46.1)	1,590 (21.4)
농어업 사회서비스 확충	소계	2	40.0	80	0 (0.0)	80 (100.0)	0 (0.0)	0 (0.0)
	보조	0	-	0	0 (-)	0 (-)	0 (-)	0 (-)
	자체	2	40.0	80	0 (0.0)	80 (100.0)	0 (0.0)	0 (0.0)
도농교류와 농어촌 응원운동	소계	26	1,316.8	34,237	14,082 (41.1)	5,840 (17.1)	9,033 (26.4)	5,282 (15.4)
	보조	15	1,839.1	27,587	13,947 (50.6)	5,183 (18.8)	8,325 (30.2)	132 (0.5)
	자체	11	604.5	6,650	135 (2.0)	657 (9.9)	708 (10.6)	5,150 (77.4)
지역리더 양성	소계	8	252.5	2,020	550 (27.2)	838 (41.5)	336 (16.6)	296 (14.7)
	보조	3	403.3	1,210	550 (45.5)	444 (36.7)	0	216 (17.9)
	자체	5	162.0	810	0 (0.0)	394 (48.6)	336 (41.5)	80 (9.9)
민관협력체계 구축	소계	2	12.5	25	0 (0.0)	25 (100.0)	0 (0.0)	0 (0.0)
	보조	0	-	0	0 (-)	0 (-)	0 (-)	0 (-)
	자체	2	12.5	25	0 (0.0)	25 (100.0)	0 (0.0)	0 (0.0)

3) 예산규모의 변화

2011년과 2012년의 3농혁신 예산규모를 비교해 보면, 2%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재원별로 구분해 봐도, 국비, 도비, 시군비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다만 기타만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야별로 살펴보면, 친환경고품질농업과 청정수산, 농어업 6차산업화, 그리고 민관협력체계 구축은 2011년에 비해 2012년의 예산이 감소한 반면, 지역리더양성, 도농교류와 농어촌응원운동,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의 예산은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선진축산업과 산림자원육성활용은 유사한 예산규모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비가 비중이 증가한 분야는 지역리더양성과 농어업 6차 산업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분야이고, 시군비가 증가한 분야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와 도농교류와 농어촌 응원운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지역순환식품체계는 기타사업비가 1.8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순환식품체계는 다른 사업과 달리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양상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충남도가 추진하는 3농혁신정책의 주요 재원은 국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충남도가 자율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3농혁신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비의 안정적인 확보와 시군의 자발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 3농혁신의 정책방향과 무관하게 개별 분야의 사업비가 증가 혹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3농혁신 정책 중에서 어떤 분야를 보다 집중해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부문별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재원의 비중도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표 2-7> 3농혁신 예산규모 변화(2011-2012)

구분		총액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전체	소계	0.98	0.95	0.97	0.98	1.09
	보조	0.96	0.95	0.96	0.96	0.97
	자체	1.06	2.98	0.99	1.01	1.21
친환경 고품질농업	소계	0.94	0.92	0.92	0.96	0.98
	보조	0.94	0.92	0.93	0.96	1.02
	자체	0.94	-	0.92	0.96	0.92
선진축산업	소계	1.00	1.00	1.00	1.00	1.00
	보조	1.00	1.00	1.00	1.00	1.00
	자체	1.00	-	1.00	1.00	1.00
산림자원 육성활용	소계	1.00	1.00	1.00	1.00	1.00
	보조	1.00	1.00	1.00	1.00	1.00
	자체	1.00	-	1.00	1.00	-
청정수산	소계	0.84	0.80	0.90	0.92	0.85
	보조	0.79	0.80	0.83	0.83	0.64
	자체	1.02	-	1.03	1.03	1.02
지역순환식품 체계 구축	소계	1.10	0.20	0.96	0.99	1.87
	보조	0.13	0.09	0.08	0.06	0.35
	자체	1.37	-	1.10	1.16	2.12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소계	1.02	1.02	1.01	1.02	-
	보조	1.02	1.02	1.01	1.02	-
	자체	0.99	-	1.00	0.98	-
농어업 6차산업화	소계	0.94	0.98	1.08	0.82	0.93
	보조	0.97	0.98	1.22	0.79	1.08
	자체	0.84	-	0.91	0.87	0.65
농어업 사회서비스 확충	소계	-	-	-	-	-
	보조	-	-	-	-	-
	자체	-	-	-	-	-
도농교류와 농어촌 응원운동	소계	1.10	1.00	0.97	1.02	-
	보조	1.02	1.01	1.01	1.02	-
	자체	1.38	0.00	0.64	0.96	-
지역리더 양성	소계	1.46	1.05	1.22	-	-
	보조	1.27	1.05	1.03	-	-
	자체	-	-	-	-	-
민관협력체계 구축	소계	0.77	-	0.77	-	-
	보조	-	-	-	-	-
	자체	0.77	-	0.77	-	-

5. 집행실적

1) 2011년의 집행실적

3농혁신의 예산을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친환경고품질농업,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산림자원 활용, 선진축산업, 그리고 청정수산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들 분야는 주로 국비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아울러 단위당 사업규모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11년의 기준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살펴보면, 전체 집행률은 97.4%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친환경고품질농업과 산림자원 육성활용의 집행률은 100.0%로 완벽하게 수행되었을 뿐 아니라, 선진축산업,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청정수산의 집행률 96.8%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 분야는 국비의 비중이 높다는 특징, 그리고 사업 규모당 사업비가 크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국비의 비중이 낮은 지역순환식품체계, 농어업 6차산업화, 도농교류와 농어촌응원운동, 지역리더양성,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은 사업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 중에서 특히 지역리더양성과 민관협력체계 구축의 경우 사업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분야는 공통적으로 기타비의 집행률이 낮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실제 사업이 얼마나 잘 집행되는가는 민간의 참여율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충남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성격이 강한 사업인 지역순환식품체계와 농어업 6차산업화, 도농교류와 농어촌응원운동, 지역리더양성, 민관협력체계 구축은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2) 2012년의 집행실적

2012년의 집행률도 2011년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2012년의 경우 집행률이 95.1%로 2011년에 비해서 다소 낮아졌다. 2012년의 경우 2011년에 사업집행률이 높았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산림자원 육성활용, 선진축산업, 친환경고품질농업의 경우 여전히 집행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청정수산의 경우는 집행률이 2011년에 비해서 많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어업 6차산업화, 도농교류와 농어촌응원운동, 민관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농어업 사회서비스 확충은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다만 2011년의 사업집행률이

낮았던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과 지역리더양성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많이 높아졌는데, 이는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8> 2011년도 3농혁신 집행실적

(단위: %)

구분	총액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전체	소계	97.4	99.0	98.5	99.6	86.6
	보조	98.9	99.0	97.8	99.3	98.6
	자체	91.7	100.0	99.5	100.1	76.5
친환경 고품질농업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보조	100.0	100.0	100.0	100.0	100.0
	자체	100.0	-	100.0	100.0	100.0
선진축산업	소계	99.9	99.9	99.8	100.0	100.0
	보조	99.9	99.9	99.6	100.0	100.0
	자체	100.0	-	100.0	100.0	100.0
산림자원 육성활용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보조	100.0	100.0	100.0	100.0	100.0
	자체	100.0	-	100.0	100.0	-
청정수산	소계	96.8	95.2	96.4	99.4	99.5
	보조	96.1	95.2	94.3	99.1	100.0
	자체	99.6	-	100.0	100.0	99.1
지역순환식품 체계 구축	소계	83.5	84.7	99.6	98.7	54.7
	보조	88.5	84.7	88.2	88.4	107.0
	자체	82.0	-	101.9	100.7	50.7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소계	99.9	100.0	98.9	99.9	-
	보조	100.0	100.0	100.0	100.0	-
	자체	98.5	-	97.7	99.4	-
농어업 6차산업화	소계	87.5	85.2	85.2	93.3	84.4
	보조	83.9	85.2	75.0	90.0	77.3
	자체	100.9	-	100.4	100.0	104.1
농어업 사회서비스 확충	소계	-	-	-	-	-
	보조	-	-	-	-	-
	자체	-	-	-	-	-
도농교류와 농어촌 응원운동	소계	77.1	99.7	99.9	99.7	0.0
	보조	99.5	99.7	99.9	99.7	0.0
	자체	12.0	100.0	100.0	100.0	0.0
지역리더 양성	소계	64.2	94.1	70.8	-	0.0
	보조	77.5	94.1	94.8	-	0.0
	자체	0.0	-	0.0	-	0.0
민관협력체계 구축	소계	25.9	-	25.9	-	-
	보조	-	-	-	-	-
	자체	25.9	-	25.9	-	-

<표 2-9> 2012년도 3농혁신 집행실적

(단위: %)

구분		총액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전체	소계	95.1	94.1	95.7	97.7	94.0
	보조	94.5	94.1	93.7	95.6	95.8
	자체	97.4	298.1	98.2	101.1	92.3
친환경 고품질농업	소계	93.6	91.8	92.1	96.0	97.6
	보조	93.6	91.8	92.6	96.0	102.4
	자체	93.6	-	91.7	96.0	92.0
선진축산업	소계	99.9	99.5	99.7	100.0	100.0
	보조	99.8	99.5	99.4	100.0	100.0
	자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산림자원 육성활용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보조	100.0	100.0	100.0	100.0	100.0
	자체	100.0	-	100.0	100.0	100.0
청정수산	소계	81.7	76.5	87.1	91.0	84.7
	보조	76.3	76.5	78.4	82.4	63.8
	자체	101.9	-	102.5	102.7	100.9
지역순환식품 체계 구축	소계	91.9	17.2	96.1	97.4	102.1
	보조	11.4	8.0	6.8	5.3	37.2
	자체	112.3	2600.0	112.3	116.5	107.2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소계	101.5	101.8	99.6	101.5	-
	보조	101.9	101.8	101.1	102.4	-
	자체	97.8	-	97.8	97.8	-
농어업 6차산업화	소계	82.0	83.8	91.8	76.7	78.3
	보조	81.3	83.8	91.7	71.3	83.3
	자체	84.6	-	91.8	87.4	67.5
농어업 사회서비스 확충	소계	0.0	-	0.0	-	-
	보조	-	-	-	-	-
	자체	0.0	-	0.0	-	-
도농교류와 농어촌 응원운동	소계	84.6	99.7	96.4	101.5	2.3
	보조	101.0	100.7	100.6	101.9	91.7
	자체	16.5	0.0	63.8	96.0	0.0
지역리더 양성	소계	93.9	99.1	86.2	100.0	99.3
	보조	98.6	99.1	97.3	-	100.0
	자체	86.9	-	73.6	100.0	97.5
민관협력체계 구축	소계	20.0	-	20.0	-	-
	보조	-	-	-	-	-
	자체	20.0	-	20.0	-	-

3) 집행실적의 변화

2012년 대비 2011년의 3농혁신 집행률을 보면, 약 2%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국비, 도비, 시군비의 집행률은 감소한 반면, 민간의 집행률은 다소 높아진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부문별로 집행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역리더양성,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과 도농교류와 농어촌 응원운동의 집행률은 2011년에 비해서 2012년도에 다소 높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친환경고품질농업, 청정수산, 농어업 6차산업화, 민관협력체계 구축은 집행률이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행률은 재원규모와 사업유형 등에 의한 특징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3농혁신의 주요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과 지역리더양성, 도농교류와 농어촌 응원운동의 집행률이 높아졌다. 반면 농어업 사회서비스 확충의 경우 2012년 사업집행률이 0이라는 문제점, 그리고 친환경고품질농업과 청정수산의 집행률이 다소 낮아졌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지난 2년간 3농혁신의 집행률은 다소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비의 비중이 높고, 예산규모가 큰 친환경고품질농업, 선진축산업, 산림자원 육성활용, 청정수산,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는 집행률이 우수한 반면, 그 외 사업은 집행률이 낮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3농혁신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민관협력체계 구축, 도농교류와 농어촌응원운동, 농어업 6차산업화의 경우 절대적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3농혁신이 충남도의 자체적인 농정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3농혁신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비의 비중이 낮은 사업,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사업의 집행률이 높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 분야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표 2-10> 3농혁신 집행실적 변화(2011-2012)

구분		총액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전체	소계	0.98	0.95	0.97	0.98	1.09
	보조	0.96	0.95	0.96	0.96	0.97
	자체	1.06	2.98	0.99	1.01	1.21
친환경 고품질농업	소계	0.94	0.92	0.92	0.96	0.98
	보조	0.94	0.92	0.93	0.96	1.02
	자체	0.94	-	0.92	0.96	0.92
선진축산업	소계	1.00	1.00	1.00	1.00	1.00
	보조	1.00	1.00	1.00	1.00	1.00
	자체	1.00	-	1.00	1.00	1.00
산림자원 육성활용	소계	1.00	1.00	1.00	1.00	1.00
	보조	1.00	1.00	1.00	1.00	1.00
	자체	1.00	-	1.00	1.00	-
청정수산	소계	0.84	0.80	0.90	0.92	0.85
	보조	0.79	0.80	0.83	0.83	0.64
	자체	1.02	-	1.03	1.03	1.02
지역순환식품 체계 구축	소계	1.10	0.20	0.96	0.99	1.87
	보조	0.13	0.09	0.08	0.06	0.35
	자체	1.37	-	1.10	1.16	2.12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소계	1.02	1.02	1.01	1.02	-
	보조	1.02	1.02	1.01	1.02	-
	자체	0.99	-	1.00	0.98	-
농어업 6차산업화	소계	0.94	0.98	1.08	0.82	0.93
	보조	0.97	0.98	1.22	0.79	1.08
	자체	0.84	-	0.91	0.87	0.65
농어업 사회서비스 확충	소계	-	-	-	-	-
	보조	-	-	-	-	-
	자체	-	-	-	-	-
도농교류와 농어촌 응원운동	소계	1.10	1.00	0.97	1.02	-
	보조	1.02	1.01	1.01	1.02	-
	자체	1.38	0.00	0.64	0.96	-
지역리더 양성	소계	1.46	1.05	1.22	-	-
	보조	1.27	1.05	1.03	-	-
	자체	-	-	-	-	-
민관협력체계 구축	소계	0.77	-	0.77	-	-
	보조	-	-	-	-	-
	자체	0.77	-	0.77	-	-

제2절 3농혁신 내용분석

1. 조사개요

3농혁신의 내용분석을 위해서 충남지역의 주요 일간지인 중도일보, 충청일보, 충청투데이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3농혁신”을 검색어로 신문기사를 검색하였다. 신문기사검색결과 총 499개의 기사가 검색되었다. 3농혁신으로 검색된 신문기사는 3농혁신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다른 단어가 3농혁신의 앞 혹은 뒤에 배치하게 된다. 왜냐하면 신문기사의 제목은 해당 신문내용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 단어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499개의 신문기사를 검색한 결과 3농혁신과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단어는 충남(60회), 도지사(47회), 충남도청(25회), 육성(16회), 추진(16회)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투입, 희망마을, 농어촌 등을 비롯한 참여, 추진, 대선공약, 리더, 3농혁신대학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성공, 시작 등을 비롯한 약 27여개의 단어가 3농혁신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자료수집에서는 다른 신문에 게재된 동일한 신문기사에 대해서 제외를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러 신문사에서 동일한 신문내용을 게재했다는 것은 중복의 성격도 갖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내용의 중요성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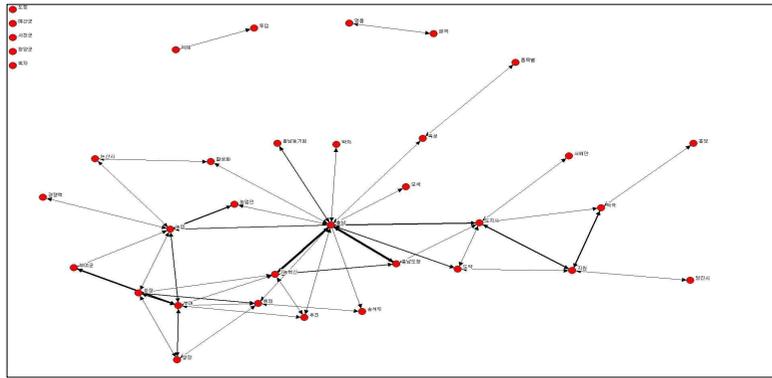
<표 2-11> 3농혁신 신문기사 검색내용

(단위: 개)

구분	전체	2011년	2012년	2013년
소 계	499	14	344	141
중도일보	205	0	148	57
충청일보	118	14	77	27
충청투데이	176	0	119	57

2. 분석방법

3농혁신과 관련된 499개의 신문기사 DB를 구축하여 Krvic를 이용하여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파악한 다음 krtitle로 이용하여 주요 단어를 중심으로 한 n×n의 행렬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작성된 n×n의 행렬을 이용하여 Ucinet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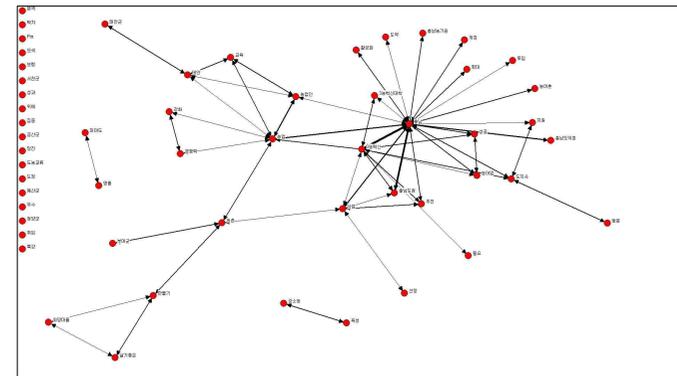
<그림 2-4> 2013년 3농혁신의 단어 연계구조

4) 3농혁신의 정책구조(종합)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의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3농혁신의 정책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주요 연관 단어는 충남(60회), 도지사(47회), 충남도청(25회), 육성(16회), 추진(16회), 투입(12회), 희망마을(12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 농어촌(11회), 방문(11회), 지원(11회), 충남도의회(11회) 등을 비롯하여 약 85개의 단어가 3농혁신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농혁신의 정책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3농혁신은 3농혁신대학, 충남, 충남도청, 농업, 사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농혁신의 주체는 충남도청과 충남농기원, 그리고 충남도의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3농혁신정책은 필요성이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서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3농혁신정책 전반에 있어서 농업과 농촌의 정책연결고리가 나타났다. 이는 2011년에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이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했는 것, 그리고 2012년도에는 농촌정책이 3농혁신정책에 포함되지 못한 것과는 차별성이 있는 것이다. 아울러 농업은 농업인, 경쟁력, 강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반면, 농촌은 만들기, 희망마을, 살기좋은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형성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지금까지 충남도가 추진해 온 3농혁신정책은 충남도, 충남농업기술원, 충남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농업농촌정책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고, 그러기에 최근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농업인은 교육적 측면에서, 농업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그리고 농촌은 마을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아쉬운 점은 3농혁신대학을 제외하고는 3농혁신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목표 혹은 사업이 정책구조에 존재하지 않고 있는 측면, 그리고 특정의 기관이 중심이 되어 3농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측면, 더욱이 이들 기관간의 네트워크도 형성되어 있지 못하는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는 충남도 농정정책의 구체적인 정책구조가 없이 추진되었다면, 2012년 이후에는 3농혁신이라는 정책기조 하에 충남도의 농정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측면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 볼 때, 3농혁신은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단편적 정책이라기 보다는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을 위한 정책패러다임을 변화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자발적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관을 중심으로 한 정책추진, 특히 시군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평가된다.



<그림 2-5> 3농혁신의 단어 연계구조(전체)

4. 분석결과의 종합

3농혁신을 주제로 검색한 신문기사의 정책구조를 분석한 결과가 시사해 주는 정책적 함의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도 농정은 3농혁신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2011년도에 충남도의 농정이 5개의 하위 네트워크로 구성된 것과는 분명한 차이를 갖는다. 이런 맥락에서 3농혁신은 충남도 농정의 핵심기둥으로써, 그리고 충남도의 핵심도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2012년에는 3농혁신의 주요 관계어가 필요, 추진 등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중심을 이루었다면, 2013년에는 육성, 박차, 모색 등의 보다 적극적인 단어와 연계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둘째, 3농혁신정책의 중심구조는 3농혁신대학, 충남도청, 농어업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3농혁신정책은 충남도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3농혁신대학을 추진한 것이 주요 핵심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3농혁신정책의 구조분석에서 마을만들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사업이 중심단어로 등장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셋째, 3농혁신은 농업과 농촌의 2가지 영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핵심적 정책영역은 농업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기존에는 농업정책과 농촌정책이 연계성이 부족하였는데, 3농혁신정책을 통해 농업과 농촌정책이 연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농업은 농업정책인 교육,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면, 농촌정책은 마을만들기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3농혁신의 주체는 충남도와 충남농업기술원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와 충남농업기술원의 정책적 연계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2년에는 주체로써 충남도의회가 네트워크상에 존재하였지만 2013년에는 사라진 측면, 그리고 2012년에는 15개 시군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2013년에는 몇몇 시군이 3농혁신의 주체로 등장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농혁신 주체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3농혁신정책은 충남도 농정의 핵심정책으로써 충남도가 3농혁신대학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그리고 이와 연계하여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제3절 3농혁신 인식분석

1. 조사개요

1) 조사기간 및 조사부수

3농혁신 정책의 중간점검을 위해서 3농혁신 정책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2013년 4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3농혁신위원회, 3농혁신사업단, 3농혁신대학, 3농혁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충남지역 농어민 단체 등 3농혁신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총372명의 표본집단을 선정하였다. 한편 3농혁신의 중간점검 기간은 2010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당초 선정한 372명 중 338명(90.9%)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에서 3농혁신의 참여형태가 불명한 32명을 제외한 306명의 조사결과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실제 분석에 사용된 조사대상자의 직업을 기준으로 3개의 집단으로 재분류하였다. 우선 농어민은 정책수혜집단으로, 도청과 시청공무원, 지방의원은 정책기획집단으로, 그리고 대학 및 연구기관, 농업농어촌 유관기관은 정책지원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2-12>와 같다.

<표 2-12> 조사대상자의 집단 설정

(단위: 명, %)

구분	직업	빈도	백분율
총		338	100.00
정책수혜집단 (118)	농어민	118	34.91
정책기획집단 (112)	도청 공무원	47	13.91
	시청 공무원	62	18.34
	지방의원	3	0.89
정책지원집단 (76)	대학 및 연구기관	19	5.62
	농어업농어촌 유관기관	57	16.86
제외(32)	기타	32	9.47

2) 분석틀의 설정

3농혁신의 중간점검을 위해서 분석틀의 설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어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수립된 계획이 원활히 집행되고, 아울러 계획 및 집행 과정을 지원하는 합리적인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져야 한다. 아울러 해당 정책에 대한 정책수혜자의 신뢰 및 지지도가 높으면 더 원활히 정책이 추진된다고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3농혁신의 중간점검의 분석틀을 크게 계획의 타당성, 집행의 일관성, 제도의 합리성, 그리고 정책의 순응성의 4가지로 대분류하고자 한다.

첫째, 계획의 타당성이다. 우선 계획의 타당성 측면에서는 3농혁신의 계획이 목표와 수단이 명확하고, 적절한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계획의 타당성에서는 3농혁신 계획이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목표에 부합한 세부사업이 선정되었는가, 그리고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었는가를 중심으로 점검하고자 한다.

둘째, 집행의 일관성이다. 집행의 일관성 측면에서는 3농혁신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집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집행의 일관성에서는 당초 계획 대비 어느 정도 사업이 집행되었는가, 당초 사업내용대로 집행되었는가, 그리고 당초 정책수혜에게 사업이 집행되었는가를 중심으로 점검하고자 한다.

셋째, 제도의 합리성이다. 제도의 합리성 측면에서는 3농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제도적 여건을 적절히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제도의 합리성에서는 사업내용상 법률적·제도적 제약조건은 없는지, 집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사업집행을 한 투명하고 명확한 집행절차를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한다.

넷째, 정책의 순응성이다. 정책의 순응성 측면에서는 3농혁신에 대한 정책지지도가 어떠한가와 이를 제고하기 위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책의 순응성에서는 3농혁신의 모니터링이 적절히 이루어지 있는지, 3농혁신에 대한 정책지지도가 어떠한지, 그리고 3농혁신의 성공가능성 및 참여의사 등을 점검하고자 한다.

<표 2-13> 3농혁신 중간점검의 분석틀

항목	세부기준
계획의 타당성	3농혁신 계획이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목표에 부합한 세부사업이 선정되었는가?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집행의 일관성	당초 계획 대비 어느 정도 사업이 집행되었는가?
	당초 사업내용대로 집행되었는가?
	당초 정책수혜에게 사업이 집행되었는가?
제도의 합리성	사업내용상 법률적·제도적 제약조건은 없는가?
	집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는가?
	사업집행을 한 투명하고 명확한 집행절차를 갖추고 있는가?
정책의 순응성	3농혁신의 모니터링이 적절히 이루어지 있는가?
	3농혁신에 대한 정책지지도는 어떠한가?
	3농혁신의 성공가능성은 어떠한가?
	3농혁신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사는 있는가?

3) 주요 조사내용

3농혁신 정책의 중간점검을 위한 본 연구는 크게 3농혁신 정책의 인식, 3농혁신 정책의 중간점검, 3농혁신 정책의 기대효과, 3농혁신 정책의 개선방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우선 3농혁신 정책의 인식에서는 조사대상자가 3농혁신 정책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알고 있는가에 대한 문항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둘째, 3농혁신 정책의 중간점검은 계획의 타당성, 집행의 일관성, 제도의 합리성, 정책의 신뢰성으로 구분하여 총 13개의 세부 점검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3농혁신 정책의 기대효과는 3농혁신이 언제쯤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와 3농혁신 정책의 의의 및 성과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끝으로 3농혁신 정책의 개선방향에서는 향후 3농혁신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갖추어져야 할 성공조건과 중점분야 등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5단계 리커트 척도와 명목척도로 구성하여 설문문항을 구성을 하였다. 그리고 실제 주체별로 3농혁신에 대한 인식도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정책수혜집단, 정책기획집단, 그리고 정책지원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체별 평균 비교를 위해서 분산분석(사후검정은 duncan-test)을, 그리고 주체별 빈도 비교를 위해서 χ^2 -test를 수행하였다.

4) 조사대상의 일반특성

(1) 연령과 성별

3농혁신의 중간점검을 위해 조사된 306명의 평균 연령은 51.99세이다. 이를 주체별로 구분해 보면, 정책수혜집단이 53.4세, 정책기획집단이 50.03세, 그리고 정책지원집단이 52.7세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대상은 50대 초반이라고 할 수 있고, 정책기획집단이 정책수혜 및 지원집단에 비해서 평균연령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4> 조사대상자의 연령

구분	전체	정책수혜	정책기획	정책지원	F값 (prob)
연령(세)	51.99	53.4a	50.03b	52.7a	5.97 (0.0029)

한편 조사대상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가 88.56%이고, 여자가 11.44%로 주로 남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는 3개 주체별로 동일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조사대상은 주로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5> 조사대상자의 성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정책수혜	정책기획	정책지원
전체	306 (100.0)	118 (100.0)	112 (100.0)	76 (100.0)
남자	271 (88.56)	105 (88.98)	94 (83.93)	72 (94.74)
여자	35 (11.44)	13 (11.02)	18 (16.07)	4 (5.26)

주: $\chi^2=5.2551$, $df=2$, $prob=0.0723$

(2) 참여형태

조사대상자들은 3농혁신에 주로 교육워크숍(62.42%)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정책수립집행(25.16%)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업수혜와 평가자문은 각각 4.90%와 6.54%에 불과하였다.

<표 2-16> 3농혁신 정책의 참여형태

(단위: 명, %)

구분	전체	정책수혜	정책기획	정책지원
전체	306 (100.0)	118 (100.0)	112 (100.0)	76 (100.0)
사업수혜	15 (4.90)	11 (9.32)	2 (1.79)	2 (2.63)
교육워크숍	191 (62.42)	98 (83.05)	47 (41.96)	46 (60.53)
정책수립집행	77 (25.16)	5 (4.24)	61 (54.46)	119 (14.47)
평가자문	20 (6.54)	4 (3.39)	1 (0.89)	15 (19.74)
기타	3 (0.98)	0 (0.00)	1 (0.89)	2 (2.63)

주: $\chi^2=116.3045$, $df=8$, $prob=0.0001$

3농혁신 정책의 참여 형태는 각 주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즉 정책수혜집단과 정책지원집단은 주로 교육워크숍에 참여한 반면에, 정책기획집단은 정책수립집행과 교육워크숍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 3농혁신 정책의 인식

1) 종합적 인지도

3농혁신 정책의 정책적 인지도는 4.34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사업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1.85로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다. 한편 정책수혜, 정책기획, 정책지원의 3 집단별로 정책적 인지도와 세부사업의 인지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정책적 인지도 측면에서 보면, 실제 3농혁신 정책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집단이 정책수혜집단에 비해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부사업의 인지도에서는 오히려 정책수혜집단이 정책기획과 지원집단에 비해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실제 많은 사람들이 3농혁신을 알고 있지만, 실제 3농혁신을 통해 어

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은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실제 3농혁신 정책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집단에서도 세부사업의 인지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3농혁신 정책이 보다 구체화·핵심화 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된다.

<표 2-17> 3농혁신 정책의 종합적 인지도

구분	전체	정책수혜	정책기획	정책지원	F값 (prob)
정책적 인지도	4.34	4.15 ^b	4.48 ^a	4.41 ^a	9.70 (0.0001)
세부사업의 인지도	1.85	2.01 ^a	1.76 ^b	1.74 ^b	6.45 (0.0018)

주: 인지도는 5단계 리커트로 측정됨.

2) 정책적 필요성

3농혁신 정책의 필요성은 4.22, 목표의 적절성은 3.71, 그리고 타 정책과 차별성은 3.92로 나타났다. 따라서 3농혁신 정책은 정책적 필요성, 목표의 적절성, 그리고 타 정책과 차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3농혁신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정책수혜, 정책기획, 그리고 정책지원의 3집단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8> 3농혁신 정책의 필요성

구분	전체	정책수혜	정책기획	정책지원	F값 (prob)
정책의 필요성	4.22	4.13	4.22	4.37	2.91 (0.0561)
목표의 적절성	3.71	3.64	3.75	3.74	0.87 (0.4189)
타 정책과 차별성	3.92	3.95	3.88	3.93	0.47 (0.6268)

주: 필요성과 적절성은 5단계 리커트로 측정됨.

3) 추진주체

지금까지 3농혁신 정책의 핵심적인 추진주체는 충남도청(0.82)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15개 시군(0.58)과 농어민 및 관련단체(0.54), 농어업 및 농어촌 유관조직(0.37)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볼 때, 3농혁신 정책은 충남도가 주도하여 충남의 시군과 농어민 및 관련단체가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충남의 15개 시군의 주도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3농혁신 정책의 주도적 추진주체에 대해서는 정책수혜, 정책기획, 정책지원의 3개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충남도의 주도성에 대해서는 정책기획집단(0.88)이 정책수혜집단(0.75)에 비해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9> 현재 3농혁신의 추진주체

구분	전체	정책수혜	정책기획	정책지원	F값 (prob)
중앙정부	0.01	0.01	0.00	0.01	0.66 (0.5199)
충남도청	0.82	0.75 ^b	0.88 ^a	0.84 ^{ab}	3.04 (0.0495)
충남시군	0.58	0.59	0.60	0.55	0.22 (0.8036)
농어민 및 관련단체	0.54	0.53	0.55	0.53	0.11 (0.8964)
농어업/농어촌 유관조직	0.37	0.35	0.33	0.45	1.48 (0.2297)
지방의원	0.01	0.00	0.01	0.01	0.69 (0.5021)
기타	0.01	0.00	0.01	0.01	0.69 (0.5021)

주: 추진주체의 주도성은 1과 0으로 더미 처리된 것임.

4) 핵심단어

3농혁신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 중 가장 많은 것은 핵심도정(17.0%)과 농어촌(17.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농어업(9.6%)과 친환경(7.0%), 경쟁력 강화(6.6%), 그리고 로컬푸드(6.6%) 등으로 나타났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3농혁신은 농어촌,

농어업을 대상으로 한 충남도의 핵심도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농혁신 정책은 친환경, 경쟁력 강화, 그리고 로컬푸드의 방식으로 추진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3농혁신 세부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과 연계된다고 하겠다. 즉 3농혁신의 이미지가 핵심도정, 농어촌, 농어업, 친환경, 경쟁력 강화 등의 추상적인 단어로 구성된다는 것은 3농혁신 정책이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3농혁신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높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사업으로 무엇을 추진하는지 잘 모르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표 2-20> 3농혁신 정책의 핵심단어

구분	빈도	구성비
합계	229	100.0
핵심도정	39	17.0
농어촌	39	17.0
농어업	22	9.6
친환경	16	7.0
경쟁력 강화	15	6.6
로컬푸드	15	6.6
도농교류	12	5.2
3농대학	9	3.9
내발적 발전	8	3.5
리더양성	8	3.5
도지사	7	3.1
성공	5	2.2
6차산업화	5	2.2
학교급식	4	1.7
귀농귀촌	3	1.3
새마을운동	3	1.3
유통구조개선	3	1.3
충남	3	1.3
삶의 질 향상	1	0.4
기타	12	5.2

3. 3농혁신 정책의 중간점검

1) 총괄

본 연구에서는 3농혁신 정책의 중간점검을 계획의 타당성, 집행의 일관성, 제도의 합리성, 그리고 정책의 순응성의 4가지 측면에서 수행하였다. 우선 계획의 타당성은 정책목표의 구체성과 세부사업의 적절성, 충분한 예산의 확보로, 그리고 집행의 일관성은 사업의 집행도, 사업의 일관성, 사업목적의 유지로 측정하였다. 한편 제도의 합리성은 법률적·제도적 제약, 다양한 의견수렴, 투명한 집행절차로, 그리고 정책의 순응성은 모니터링의 적절성, 3농혁신의 지지도, 3농혁신의 성공가능성, 3농혁신의 참여의사로 측정하였다. 3농혁신 정책의 중간점검의 종합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계획의 타당성은 3.61, 집행의 일관성은 3.56, 제도의 합리성은 3.37 그리고 정책의 순응성은 3.85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3농혁신 정책은 정책의 순응성이 높은 반면, 계획의 타당성과 집행의 일관성, 그리고 제도의 합리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지표 중에서 계획의 타당성과 집행의 일관성은 3개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제도의 합리성은 정책기획집단(3.50)이 정책수혜(3.25)과 지원(3.37)에 비해서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책의 순응성은 정책지원집단(3.98)이 정책수혜집단(3.78)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3농혁신 정책이 향후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제도의 합리성 제고와 더불어 집행의 일관성 제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계획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계획의 타당성

3농혁신 정책의 계획타당성은 보통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책목표의 구체성(3.98)과 세부사업의 적절성(3.78)은 비교적 양호한 반면, 충분한 예산의 확보(3.07)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주체별로 비교해 보면, 정책목표의 구체성과 충분한 예산의 확보에서는 3개 주체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그러나 세부사업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정책수혜집단(3.63)이 정책지원(3.91)과 기획집단(3.85)에 비해서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3농혁신 정책의 계획타당성을 제고하

기 위해서는 우선 충분한 예산의 확보와 더불어 세부사업의 적절성 제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집행의 일관성

3농혁신 정책의 집행일관성은 보통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목적의 유지(3.62), 사업의 일관성(3.58), 그리고 사업의 집행도(3.46) 등이 모두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3개 집단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따라서 3농혁신 정책의 집행일관성을 보통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3농혁신 정책의 집행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집행도 제고, 사업의 일관성 제고, 그리고 사업목적의 유지 등이 모두 향상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표 2-21> 3농혁신의 중간점검

구분		전체	정책수혜	정책기획	정책지원	F값 (prob)
계획의 타당성	소계	3.61	3.56	3.64	3.64	0.88 (0.4154)
	정책목표의 구체성	3.98	3.90	4.01	4.08	2.02 (0.1338)
	세부사업의 적절성	3.78	3.63 ^b	3.85 ^a	3.91 ^a	5.89 (0.0031)
	충분한 예산의 확보	3.07	3.15	3.06	2.93	1.75 (0.1749)
집행의 일관성	소계	3.56	3.48	3.60	3.62	1.87 (0.1561)
	사업의 집행도	3.46	3.4.0	3.51	3.5.0	0.86 (0.4251)
	사업의 일관성	3.58	3.51	3.63	3.63	1.16 (0.3158)
	사업목적의 유지	3.62	3.53	3.66	3.72	1.79 (0.1687)
제도의 합리성	소계	3.37	3.25 ^b	3.50 ^a	3.37 ^b	8.86 (0.0002)
	법률적/제도적 제약	2.77	2.65 ^b	3.00 ^a	2.63 ^b	7.64 (0.0006)
	다양한 의견수렴	3.59	3.47 ^b	3.69 ^a	3.66 ^a	3.20 (0.0422)
	투명한 집행절차	3.75	3.64	3.81	3.82	2.74 (0.0661)
정책의 순응성	소계	3.85	3.78 ^b	3.85 ^{ab}	3.98 ^a	3.27 (0.0393)
	모니터링의 적절성	3.53	3.47	3.54	3.62	12.9 (0.2778)
	3농혁신의 지지도	4.02	3.93	4.02	4.14	2.04 (0.1313)
	3농혁신의 성공가능성	3.87	3.82	3.82	4.00	1.79 (0.1688)
	3농혁신의 참여의사	4.00	3.88 ^b	4.03 ^a	4.14 ^a	3.22 (0.0412)

주: 중간점검 평가는 5단계 리커트로 측정됨.

4) 제도의 합리성

3농혁신 정책의 제도합리성은 중간점검의 4가지 기준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투명한 집행절차(3.75)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법률적·제도적 제약(2.77), 다양한 의견수렴(3.59)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법률적·제도적 제약과 다양한 의견수렴에 있어서는 3개 주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률적·제도적 제약의 경우, 정책기획집단(3.00)은 보통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정책수혜(2.65)과 지원(2.63)집단은 정책기획집단에 비해서 더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수렴에 있어서도 정책수혜집단(3.47)이 정책기획(3.69)과 지원(3.66)집단에 비해서 더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투명한 집행절차에 대해서는 3개 집단의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3농혁신의 성공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도의 합리성 제고가 중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3농혁신 추진상 발생하는 법률적·제도적 제약의 개선, 다양한 의견수렴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정책의 순응성

3농혁신 정책의 정책순응성은 중간점검의 4가지 기준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농혁신의 지지도(4.02)와 3농혁신의 참여의사(4.00)는 매우 높은 반면, 3농혁신의 성공가능성(3.87)과 모니터링의 적절성(3.53)은 상대적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를 주체별로 구분해 보면, 3농혁신의 참여의사는 정책수혜집단(3.88)이 정책기획(4.03)과 정책지원(4.14)집단에 비해서 다소 낮게 나타났다. 반면 모니터링의 적절성과 3농혁신의 지지도, 그리고 성공가능성은 3개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3농혁신 정책의 순응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4. 3농혁신 정책의 기대효과

1) 정책적 의의

3농혁신 정책이 갖는 의의는 크게 농어업·농어촌 가치 중시(24.84%), 농어민·농어촌의 수요를 고려한 정책추진(18.30%), 그리고 농어민 및 정책관련자 의식개혁(17.65%)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반면 내발적 지역발전의 토대 마련, 충남도의 독자적인 농어업·농어촌 정책추진, 농어민·농어촌의 정책수혜도 제고 등은 3농혁신 정책의 의의로 당위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한편 각 주체별로 3농혁신 정책의 의의를 다소 다르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정책수혜집단은 농어민·농어촌의 수요를 고려한 정책추진을 3농혁신 정책의 주요 의의를 평가하는 반면, 정책기획집단은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중시로, 그리고 정책지원집단은 농어민 및 정책관련자의 의식개혁으로 3농혁신 정책의 의의를 꼽고 있다. 이는 개별 주체의 입장과 3농혁신 정책의 의의가 결합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향후 3농혁신 정책은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중심, 농어민·농어촌의 수요를 고려한 정책추진, 그리고 농어민 및 정책관련자 의식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표 2-22> 3농혁신 정책의 의의

(단위: 명, %)

구분	전체	정책수혜	정책기획	정책지원
전체	306 (100.0)	118 (100.0)	112 (100.0)	76 (100.0)
농어민 및 정책관련자 의식 개혁	54 (17.65)	19 (16.1)	19 (16.96)	16 (21.05)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중시	76 (24.84)	24 (20.34)	37 (33.04)	15 (19.74)
농어민·농어촌의 수요를 고려한 정책추진	56 (18.3)	30 (25.42)	19 (16.96)	7 (9.21)
내발적 지역발전의 토대 마련	43 (14.05)	21 (17.8)	13 (11.61)	9 (11.84)
충남도의 독자적인 농어업·농어촌 정책 추진	24 (7.84)	8 (6.78)	6 (5.36)	10 (13.16)
농어민·농어촌의 정책수혜도 제고	5 (1.63)	0 (0.00)	1 (0.89)	4 (5.26)
기타	48 (15.69)	16 (5.23)	17 (15.18)	15 (19.74)

주: $\chi^2=27.5816$, $df=12$, $prob=0.0064$

2) 성과 시기

3농혁신 정책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으로는 대부분이 향후 2~3년 이내 (49.02%)와 5~7년 이내(42.46%)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는 3개 주체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해 볼 때, 3농혁신 정책의 성과는 단기적으로 2~3년 후, 장기적으로 5~7년 이후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현재 3농혁신 정책의 성과를 강조하기 보다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3농혁신 정책의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3농혁신의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 정책적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3> 3농혁신 정책의 가시적 성과 시기

(단위: 명, %)

구분	전체	정책수혜	정책기획	정책지원
전체	306 (100.0)	118 (100.0)	112 (100.0)	76 (100.0)
향후 1년 이내	5 (1.63)	4 (3.39)	1 (0.89)	0 (0.00)
향후 2~3년 이내	150 (49.02)	60 (50.85)	48 (42.86)	42 (55.26)
5~7년 이내	133 (43.46)	50 (42.37)	54 (48.21)	29 (38.16)
10년 이후	18 (5.88)	4 (3.39)	9 (8.04)	5 (6.58)

주: $\chi^2=8.6951$, $df=6$, $prob=0.1915$

한편 3농혁신의 우수사례로는 3농대학(18.0%)이 가장 제시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당진급식센터(10.1%), 희망마을(8.6%), 도농교류와 로컬푸드, 그리고 의식개혁이 각각 6.5%로 나타났다. 그러나 3농혁신대학과 당진급식센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례가 정책목표에 가까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부 우수사례의 경우 3농혁신의 성공사례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3농혁신의 우수사례를 개별적인 사례 중심으로 발굴하고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4> 3농혁신 정책의 우수사례

구분	빈도	구성비
합계	139	100.0
3농대학	25	18.0
당진학교급식센터	14	10.1
희망마을	12	8.6
도농교류	9	6.5
로컬푸드	9	6.5
의식개혁	9	6.5
친환경농업	8	5.8
알프스마을	7	5.0
돼지카페	7	5.0
리더양성	6	4.3
청풍명월	6	4.3
유통구조개선	5	3.6
농정거버넌스	4	2.9
체험마을	3	2.2
희망산촌마을	3	2.2
6차산업화	2	1.4
귀농귀촌지원센터	2	1.4
유관기관참여	2	1.4
금강목장화	1	0.7
농산물생산정보시스템	1	0.7
두레기업	1	0.7
두레마을	1	0.7
천안효덕목장	1	0.7
청양산골꽃마을	1	0.7

3) 정책성과

3농혁신 정책의 효율성은 3.50으로 보통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주체별로 살펴보면, 정책지원(3.61)과 기획(3.57)집단은 정책수혜집단(3.36)에 비해서 정책적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3농혁신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농혁신 정책의 성과는 농어민 소득증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농어업농어촌 가치인식 제고, 농어민의 삶의 질 및 복지 향상, 농어민·공무원의 의식개혁, 지역실정에 맞는 농어업농어촌 정책추진, 도와 시군간 농정거버넌스 구축, 도시/농어촌 및 생산자/소비자의 상생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표 2-25> 3농혁신 정책의 효율성과 정책성과

구분		전체	정책수혜	정책기획	정책지원	F값 (prob)
정책의 효율성		3.50	3.36 ^b	3.57 ^a	3.61 ^a	4.10 (0.0175)
정책 성과	농어민 소득증대	3.48	3.52	3.43	3.5	0.51 (0.5989)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3.57	3.53	3.61	3.58	0.29 (0.7497)
	농어업/농어촌 가치인식제고	3.89	3.74 ^b	3.94 ^a	4.05 ^a	5.09 (0.0067)
	농어민의 삶의 질 및 복지향상	3.50	3.41	3.58	3.54	1.87 (0.1552)
	농어민/공무원의 의식개혁	3.77	3.54 ^b	3.88 ^a	3.97 ^a	10.10 (0.0001)
	지역실정에 맞는 농어업/농어촌 정책추진	3.91	3.87	3.88	3.99	0.80 (0.4522)
	도와 시군간 농정거버넌스 구축	3.68	3.64	3.71	3.68	0.22 (0.8049)
	도시-농어촌/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	3.64	3.57	3.74	3.61	1.81 (0.1648)

주: 효율성과 정책성과는 5단계 리커트로 측정됨.

3농혁신의 정책성과 중에서 가장 높게 평가된 것은 지역실정에 맞는 농어업농어촌 정책추진(3.91)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농어업농어촌 가치인식 제고(3.89), 농어민·공무원의 의

식개혁(3.77) 등이다. 반대로 3농혁신의 정책성과 중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은 농어민 소득증대(3.48), 농어민 삶의 질 및 복지 향상(3.50),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3.57)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와 시군간 농정거버넌스 구축(3.68)과 도시/농어촌 및 생산자/소비자의 상생(3.64)은 정책성과가 보통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3농혁신 정책은 소득증대, 생활환경정비, 삶의 질 개선 등의 직접적인 정책성과 보다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3농혁신 정책은 1차적으로 농어업과 농어촌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에 초점을 두고, 장기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성과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3농혁신 정책의 의의를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중심, 농어민·농어촌의 수요를 고려한 정책추진, 그리고 농어민 및 정책관련자 의식개혁에 두고 있는 것과 내용적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표 2-26> 향후 3농혁신 정책의 주요 주체

구분	전체	정책수혜	정책기획	정책지원	F값 (prob)
중앙정부	0.15	0.14	0.18	0.14	0.44 (0.6472)
충남도청	0.66	0.77 ^a	0.48 ^b	0.76 ^a	14.07 (0.0001)
충남시군	0.66	0.68	0.60	0.72	1.73 (0.1795)
농어민 및 관련단체	0.64	0.55	0.72	0.67	3.95 (0.0203)
농어업/농어촌 유관조직(농협 등)	0.49	0.44	0.54	0.50	1.25 (0.2883)
지방의원	0.08	0.07	0.12	0.05	1.46 (0.2335)
기타	0.02	0.03	0.02	0.01	0.19 (0.8243)

주: 중요도는 1과 0으로 더미 처리된 것임.

5. 3농혁신 정책의 개선방향

1) 주요 주체

지금까지 3농혁신 정책은 주로 충남도 주도로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3농혁신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충남도(0.66)와 더불어 충남의 15개 시군(0.66), 그리고 농어민 및 관련단체(0.64)의 3주체가 중심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농어업·농어촌 유관조직의 참여가 다른 주체에 비해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농어업·농어촌 유관조직의 현재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3농혁신의 주체를 충남도 중심에서 보다 다양화해야 할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요구한다고 하겠다.

2) 성공요인

3농혁신이 향후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중간점검의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계획의 타당성 측면에서는 3농혁신 정책의 구체화·계획화, 3농혁신 핵심사업의 발굴, 충분한 예산 확보를, 그리고 집행의 일관성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3농혁신 정책의 추진, 표준화된 3농혁신 정책집행 방식의 확립, 농어민·농어촌·농어업의 가치 강조를 제시하였다. 한편 제도의 합리성 측면에서는 추진조직의 정비 및 확충, 도-시군-농어민의 협력적 농정거버넌스 구축, 중앙정부 및 지역리더 등 주체별 관심과 지원률, 그리고 정책의 순응성 측면에서는 체계적인 성과평가와 모니터링 수행, 3농혁신정책의 교육활성화(3농대학 등), 3농혁신의 모범사례 발굴 등을 제시하였다. 3농혁신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필수조건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3농혁신 정책이 향후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집행의 일관성 유지(40.20%)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정책의 신뢰성 제고(28.59%)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계획의 타당성 제고(16.34%)와 제도의 합리성 확보(14.54%)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3농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3농혁신 정책의 추진과 신뢰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표 2-27> 3농혁신 정책의 성공요인(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전체	정책수혜	정책기획	정책지원
전체	612 (100.0)	236 (100.0)	224 (100.0)	152 (100.0)
계획의 타당성 제고	100 (16.34)	27 (11.44)	49 (21.88)	24 (15.79)
집행의 일관성 유지	246 (40.20)	103 (43.64)	78 (34.82)	65 (42.76)
제도의 합리성 확보	89 (14.54)	37 (15.68)	33 (14.73)	19 (12.50)
정책의 신뢰성 제고	175 (28.59)	69 (29.24)	62 (27.68)	44 (28.95)
기타	2 (0.33)	0 (0.00)	2 (0.89)	0 (0.00)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계획의 타당성, 집행의 일관성, 제도의 합리성, 그리고 정책의 신뢰성의 4개 부문별로 3농혁신의 성공요인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의 타당성 측면에서 3농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확보(44.77%)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농혁신 핵심사업의 발굴은 28.1%, 3농혁신 정책의 구체화·계획화는 27.12%로 나타났다. 이는 3개 주체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3농혁신의 계획적 타당성 제고를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충분한 예산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집행의 일관성 측면에서 볼 때, 3농혁신의 필수적인 성공요인은 지속적인 3농혁신 정책의 추진(47.7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표준화된 3농혁신 정책집행 방식의 확립이 26.47%, 농어민·농어촌·농어업의 가치 강조는 25.82%로 나타났다. 이 또한 3개 주체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따라서 3농혁신의 집행적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3농혁신 정책의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제도의 합리성 측면에서 볼 때, 3농혁신의 성공요인으로는 도-시군-농어민의 협력적 농정거버넌스 구축(46.7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추진조직의 정비 및 확충이 28.1%, 중앙정부 및 지역리더 등 주체별 관심과 지원이 25.16%로 나타났다. 이는 3개 주체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따라서 3농혁신의 제도적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도-시군-농어민의 협력적 농정거버넌스 구축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표 2-28> 계획타당성 측면의 성공요인

(단위: 명, %)

구분	전체	정책수혜	정책기획	정책지원
전체	306 (100.0)	118 (100.0)	112 (100.0)	76 (100.0)
계획의 타당성	3농혁신 정책의 구체화·계획화	83 (27.12)	34 (28.81)	27 (24.11)
	3농혁신 핵심사업의 발굴	86 (28.1)	34 (28.81)	31 (27.68)
	충분한 예산 확보	137 (44.77)	50 (42.37)	54 (48.21)
집행의 일관성	지속적인 3농혁신 정책의 추진	146 (47.71)	56 (47.46)	45 (40.18)
	표준화된 3농혁신 정책집행 방식의 확립	81 (26.47)	33 (27.97)	35 (31.25)
	농어민·농어촌·농어업의 가치 강조	79 (25.82)	29 (24.58)	32 (28.57)
제도의 합리성	추진조직의 정비 및 확충	86 (28.1)	42 (35.59)	26 (23.21)
	도-시군-농어민의 협력적 농정거버넌스 구축	143 (46.73)	45 (38.14)	59 (52.68)
	중앙정부 및 지역리더 등 주체별 관심과 지원	77 (25.16)	31 (26.27)	27 (24.11)
정책의 신뢰성	체계적인 성과평가와 모니터링 수행	155 (50.65)	62 (52.54)	50 (44.64)
	3농혁신정책의 교육활성화	90 (29.41)	34 (28.81)	36 (32.14)
	3농혁신의 모범사례 발굴	61 (19.93)	22 (18.64)	26 (23.21)

주: 계획의 타당성 $\chi^2=1.1066$, $df=4$, $prob=0.8932$
 집행의 일관성 $\chi^2=7.5577$, $df=4$, $prob=0.1092$
 제도의 합리성 $\chi^2=6.9992$, $df=4$, $prob=0.1359$
 정책의 신뢰성 $\chi^2=2.9629$, $df=4$, $prob=0.5641$

넷째, 정책의 순응성 측면에서 볼 때, 3농혁신의 주요 성공요인은 체계적인 성과평가와 모니터링의 수행(50.6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3농혁신정책의 교육활성화가 29.41%, 3농혁신의 모범사례 발굴이 19.93%로 나타났다. 정책의 순응성 또한 3개 주체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3농혁신의 정책적 순응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성과평가와 모니터링의 수행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3농혁신이 향후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

여(계획의 타당성), 지속적으로 3농혁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집행의 일관성). 이와 더불어 도-시군-농어민의 협력적 농정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고(제도의 합리성), 체계적인 성과평가와 모니터링(정책의 신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중점분야

2013년 현재 3농혁신 정책의 5대 전략과제는 친환경 고품질, 지역식품유통체계, 행복마을 만들기, 도농교류활성화, 그리고 농어촌역량강화이다. 이 중에서 향후 3농혁신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는 친환경 고품질(4.26), 농어촌역량강화(4.25), 그리고 지역식품유통체계(4.2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도농교류활성화(4.09)와 행복마을만들기(4.00)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개 주체별로 중점분야의 중요도에 대해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3농혁신이 보다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분야는 친환경 고품질, 농어촌역량강화, 그리고 지역식품유통체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29> 향후 3농혁신 정책의 중점분야

구분	전체	정책수혜	정책기획	정책지원	F값 (prob)
친환경 고품질	4.26	4.24	4.26	4.30	0.22 (0.8003)
지역식품유통체계	4.23	4.16	4.29	4.24	1.00 (0.3703)
행복마을만들기	4.00	4.03	3.96	3.99	0.23 (0.7915)
도농교류활성화	4.09	4.06	4.02	4.24	1.98 (0.1397)
농어촌역량강화	4.25	4.24	4.23	4.30	0.29 (0.7472)

주: 중요도는 5단계 리커트로 측정됨.

6. 분석결과의 종합

1) 3농혁신 정책의 인식

- 충남도가 3농혁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른다.
-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3농혁신 정책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가 잘 형성되어 있다.
- 3농혁신 정책은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15개 시군과 민간부문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2) 3농혁신 정책의 중감점검

- 3농혁신 정책은 정책순응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고, 계획타당성, 집행일관성, 제도합리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 한편 3농혁신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도의 합리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3) 3농혁신의 기대효과

- 3농혁신 정책의 의의는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중심, 농어민농어촌의 수요를 고려한 정책추진, 그리고 농어민 및 정책관련자 의식개혁 등에서 찾을 수 있다.
- 3농혁신 정책의 성과는 단기적으로 2~3년 이내, 장기적으로 5~7년 이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3농혁신 정책의 성과는 지역실정에 맞는 농어업농어촌 정책추진, 농어업농어촌 가치인식 제고, 농어민·공무원의 의식개혁 등이다.
- ※ 3농혁신 정책은 소득증대, 생활환경정비, 삶의 질 개선 등의 직접적인 정책성과 보다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을 지향해야 한다.

4) 3농혁신정책의 개선방향

- 3농혁신 정책의 주체가 충남도 중심에서 15개 시군과 농어민 및 관련단체로 다양화되어야 한다.

- 3농혁신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계획의 타당성), 지속적으로 3농혁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집행의 일관성). 이와 더불어 도-시군-농어민의 협력적 농정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고(제도의 합리성), 체계적인 성과평가와 모니터링(정책의 신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 2-30> 3농혁신 정책의 성공조건

구분	중간점검의 낮은 항목	3농혁신 성공의 필수조건
총괄	계획의 타당성	-
	집행의 일관성	집행의 일관성
	제도의 합리성	-
계획의 타당성	충분한 예산의 확보	충분한 예산의 확보
	세부사업의 적절성 제고	-
집행의 일관성	사업의 집행도	지속적인 3농혁신 정책의 추진
	사업의 일관성	
	사업목적의 유지	
제도의 합리성	법률적/제도적 제약	-
	다양한 의견수렴	도-시군-농어민의 협력적 농정거버넌스 구축
정책의 신뢰성	모니터링의 적절성	체계적인 성과평가와 모니터링 수행

- 3농혁신 정책의 5대 전략과제 중 친환경 고품질, 농어촌역량강화, 지역식품유통체계가 보다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충청남도의 3농혁신 정책은?

1. 충청남도가 핵심도정인 3농혁신의 정책적 당위성은 매우 높고, 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1. 3농혁신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농정거버넌스와 모니터링 체제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
1. 3농혁신 정책의 성과는 지역실정에 맞는 농어업농어촌 정책추진, 농어업농어촌 가치인식 제고, 농어민·공무원의 의식개혁에서 찾아야 한다.

제4절 주요성과와 개선방안

1. 주요성과

충남도는 2011년에 3농혁신정책을 수립하고,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3농혁신정책이 어떠한 구체적인 성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농혁신정책이 농정정책에 있어서 몇 가지 측면에서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3농혁신정책의 성과는 ① 농어업·농어촌 정책에 대한 중요성 각인, ② 농어업·농어촌의 정책패러다임을 전환, ③ 충남도 농정정책의 체계화·통합화, ④ 농정의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⑤ 농어업·농어촌 주체의 양성 및 발굴, ⑥ 농정분야의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3농혁신정책의 성과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3농혁신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농어업·농어촌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각인시켰다는 것이다. 3농혁신정책의 모토 중의 하나가 “농업의 발전이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산업화 중심의 우리나라의 정책구조에서 농업·농촌정책은 소극적인 정책영역, 부차적인 정책영역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3농혁신정책에서 농어업·농어촌의 가치를 강조하고, 실제 충남도의 핵심 도정으로 설정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충남도의 3농혁신정책을 벤치마킹하는 등 3농혁신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둘째, 3농혁신정책은 농어업·농어촌의 정책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3농혁신정책 이전에는 하드웨어 중심, 행정주도, 외생적 발전, 대외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농어업·농어촌 정책이 접근되었다. 그러나 3농혁신정책을 통해 소프트파워, 민관협력 강화, 내발적 발전, 지역연대 강화라는 형태로 농정의 패러다임을 변화하고 있다. 그 결과 3농혁신정책에서 역량강화, 교류협력 등과 같은 소프트한 정책이 강조되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셋째, 3농혁신정책으로 인해 충남도의 농정정책이 체계화·통합화되었다. 3농혁신 이전의 충남도 농정정책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 및 개별사업 중심으로 추진된 경향을 갖고 있다. 그 결과 농업, 농촌, 축산 등 관련 정책들이 산발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충남도가 3농혁신정

책을 추진함으로써, 농업·농촌정책이 모두 3농혁신이라는 맥락에서 체계화·통합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결과 과거 농업정책과 농어촌정책이 분절되어 추진되었던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즉 3농혁신정책이라는 큰 맥락에서 충남도의 농정을 추진함으로써, 기존의 분절된 농업정책과 농촌정책을 상호 연계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넷째, 3농혁신정책으로 인해 3농혁신위원회 및 사업단 등으로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구축하였다. 3농혁신 이전에는 충남도의 농정이 독자성을 가지지 못하였을 여러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적인 통로가 부족하였다. 그러나 3농혁신정책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3농혁신위원회와 사업단 구성 등을 통해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를 통해 과거 공공주도의 농정정책에서 민간주도의 농정정책으로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다섯째, 3농혁신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3농혁신대학을 매월 개최함으로써, 농업·농어촌의 주체를 양성 및 발굴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3농혁신대학의 경우, 2013년 8월 기준으로 17개 과정 2,154명이 참여하였다. 3농혁신대학은 3농혁신의 공감대 확산과 농업인들의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 마련, 그리고 3농혁신정책을 위한 신규과제 발굴이라는 3가지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섯째, 3농혁신정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농정분야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3농혁신정책 이전에는 충남교육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을 비롯한 각종 지역의 유관단체와 농정분야의 연계·협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3농혁신정책의 추진과정에 이들 유관기관이 3농혁신위원회 및 사업단 등으로 참여함에 따라 유관기관과 3농혁신정책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구체적인 실천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3농혁신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가 되어 농정정책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는 측면, 그리고 새로운 농정의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다양한 농정주체들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적 거버넌스와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개선방안

한정된 재원과 인력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정을 핵심적 도정으로 추진한다는 측면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3농혁신정책이 갖는 정책적 성과도 있지만, 여전히 3농혁신정책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떻게 보면 3농혁신정책은 채 2년도 추진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3농혁신이 제시한 성과를 분명히 달성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3농혁신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이다. 현재 3농혁신정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원은 국비와 시군비이다. 역설적으로 도비의 비중이 가장 작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3농혁신정책에 대한 정책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즉 중앙정부와 시군에 대해서는 3농혁신정책의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를 통해 중앙정부와 개별 시군의 농정정책이 3농혁신정책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3농혁신정책에 대한 의의와 성과를 전략적으로 발굴하여 중앙정부와 시군에 홍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3농혁신정책의 일부 핵심사업의 경우 사업집행률이 저조한 문제점이 있다. 지역순환식품체계, 도농교류 활성화, 그리고 지역리더 육성은 다른 부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국비의 비중이 낮은 분야라는 특징과 소프트파워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가장 차별화되는 정책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분야의 사업집행률이 친환경고품질, 선진축산업, 산림자원, 청정수산,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지역순환식품체계, 도농교류 활성화, 지역리더 분야에서 사업집행률이 낮은 것은 민간부문의 참여가 당초 계획보다 저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분야를 중심으로 보다 더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지역순환식품체계, 도농교류활성화, 지역리더 분야를 3농혁신의 중점분야로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3농혁신정책에서 핵심적인 사업아이템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3농혁신정책은 충남도와 충남농기원을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핵심주체들간의 연계·협력이 취약하다는 한계가 나타났다. 3농혁신정책은 민관협력 거버넌스에 의해 다양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충남도청과 충남농기원 중심으로 추진되었다는 한계, 그리고 이들 2기관간의 연계·협력이 효율적으로 이

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는 3농혁신정책에 몇몇의 시군이 주체로서 등장하고 있는 변화도 있다. 반면 충남농정의 핵심주체인 충남도의회는 3농혁신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유관기관이 3농혁신정책에 참여하고 있지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3농혁신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핵심주체간의 연계·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충남도의회, 개별 시군, 그리고 유관기관 등이 3농혁신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모든 3농혁신정책을 충남도와 충남농기원이 주관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영역별로 역할분담을 하고, 이를 통해 개별 주체들의 참여와 책임을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컨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의 경우는 포괄보조금의 성격에 맞게끔 개별 시군이 주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충남도는 전체 교육 및 컨설팅을 하는 등 주체간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3농혁신정책에 대한 정책적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많은 사람들이 3농혁신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고, 3농혁신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3농혁신정책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3농혁신정책의 내용분석에서도, 그리고 인식분석에서도 3농혁신정책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는 충남도의 모든 농정정책을 3농혁신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3농혁신정책을 통해 충남도의 농정정책이 체계화·통합되었다는 측면에서 볼 때, 특정영역으로 3농혁신정책을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3농혁신정책이 보다 잘 이해될 수 있도록 구체화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은 3농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측면, 그리고 몇몇 사업은 충남도가 3농혁신의 일환으로 핵심적으로 추진한다는 강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2013년도 3농혁신정책에서 30대 중점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다섯째, 3농혁신정책에 대한 정책기획집단의 이해도와 몰입도를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는 정책기획집단이 순환보직이라는 측면, 그리고 업무과중이라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으로 이해된다. 현재 3농혁신정책에 대한 정책기획집단의 교육은 “3농혁신정책의 이해”라는 소양교육이 전부이다. 그러나 3농혁신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충남도가 추진하는 3농혁신정책에 대해서 농정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공무원도 3농혁신정책에 대해서 이해하고, 3농혁신을 해당 분야의 정책과 어떻

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비에 대한 의존 비중이 높은 현재의 농정구조를 감안할 때, 3농혁신정책의 성공은 몇몇의 중점사업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각종 농정정책을 3농혁신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추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높은 의존성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정구조로 인해 여전히 하드웨어 지향적이고, 외발적이며, 행정주도적으로 추진되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3농혁신에 대한 정책기획집단의 이해도와 몰입도 제고를 통해 기존의 농정정책의 집행방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3농혁신정책의 추진체계는 실행에 초점을 두으로써 모니터링과 사후관리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현재 3농혁신정책의 추진거버넌스는 3농혁신위원회와 5개 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3농혁신정책이 초기단계로 집행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3농혁신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구조와 사후관리체계가 전혀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다. 3농혁신정책의 연차별 실행계획에서는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해당 사업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3농혁신정책이 농정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농정정책의 집행과정에 대한 개선이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평가와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3농혁신정책의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3농혁신위원회 및 사업단으로 구성된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모니터링과 사후관리의 기능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5개 사업단에는 총 179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사업단에 개별 시군 공무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3농혁신정책의 추진거버넌스 정비에 있어서 시군의 참여통로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충남도의 핵심도정으로 3농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농혁신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현재 3농혁신정책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 3농혁신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3농혁신정책의 제도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3농혁신위원회 및 사업단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3농혁신정책의 핵심적 수단인 3농혁신대학에 대한 조례 제정 등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3농혁신정책의 형성, 추진과정과 추진성과 등을 도민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도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기적으로 3농혁신정책에 대한 과정평가와 성과평가를 제도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3농혁신정책이 보다 안정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그러나 3농혁신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상의 6가지 과제에 대한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3농혁신정책의 추진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보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3농혁신정책을 재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3농혁신에 대한 인식분석에서 “3농혁신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계획의 타당성), 지속적으로 3농혁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집행의 일관성). 이와 더불어 도-시군-농어민의 협력적 농정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고(제도의 합리성), 체계적인 성과평가와 모니터링(정책의 신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논의한 3농혁신정책의 과제 및 개선방안과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제3장 친환경 고품질 사업 분야

【강마야】

친환경 고품질 사업 부문은 2012년에서 2013년을 거치면서 조직 구성 체계의 변화가 있었다. 즉, 2012년⁴⁾에는 3사업단 8팀 조직 구성 체계 중 친환경고품질 사업 부문은 친환경 고품질 정책기획단, 선진 축산업팀, 청정수산팀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후 2013년⁵⁾에는 5사업단으로 통합되어 각 사업단 하에 18팀이 소속된 형태로 조직 구성 체계가 개편된 이후 친환경 고품질 농업팀, 선진 축산팀, 청정수산팀은 「친환경 고품질 사업단」 하에 운영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현재 체계에 맞춰서 친환경 고품질 농업과 선진 축산, 청정 수산으로 구분하여 전체적인 사업개요, 그동안의 추진경과, 성과,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절 친환경 고품질 농업 부문

1. 사업개요 및 추진 경과

본 부문은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확대 및 수급 안정으로 수요자 및 생산자 간 상생발전 도모를 주요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3농혁신 친환경 고품질 농업의 2012년 예산 규모(사업비 본예산 기준, 이하 동일)는 3,347억원에서 2013년 4,002억원으로 약 19.5% 증가하였다. 이 중 도비 예산 규모는 2012년 344억원에서 2013년 420억원으로 약 22.2% 증가하였다.

2012년의 공동협력사업이자 주요 시책은 ① 충남 쌀 공동브랜드 “청풍명월 골드”육성, ② 도심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사업이었다.

- 4) 2012년 3농혁신 사업단 구성 체계 : 3사업단(친환경 고품질 정책기획단, 지역순환식품 사업단,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추진단), 8팀(선진 축산업팀, 산림자원 육성팀, 청정수산팀, 도농상생 마을만들기팀, 농업 6차산업화팀, 도농교류 활성화팀, 지역리더양성팀, 농어촌 사회서비스 확충팀)
- 5) 2013년 3농혁신 사업단 구성 체계 : 5사업단(친환경 고품질 사업단, 지역식품 유통 사업단, 행복마을 사업단, 도농교류 사업단, 농어촌 역량강화 사업단)에서 친환경 고품질 사업단 산하 소속팀은 친환경고품질농업팀, 선진축산팀, 청정수산팀, 산림자원팀, 친환경농업기술팀으로 구성

2013년의 공동협력사업으로는 ① 도시민 소비자 초청 친환경농업 행사, ② 청풍명월 골드 생산단지 조성이고 이를 위한 주요 시책⁶⁾은 ① 충남 농산물 생산정보 시스템 구축, ② 도심속의 학교 논 만들기, ③ 대한민국 최고 쌀 청풍명월 골드 육성, ④ 직접지불금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 ⑤ 친환경고품질 생산지원을 위한 삼교호 수질개선, ⑥ 시설원에 생산비 절감 위한 에너지 효율화 추진, ⑦ 생명이 살아숨쉬는 친환경농업 활성화 등 이다.

위와 같이 친환경 고품질 농업 부문의 활성화를 위해서 충남도는 농협중앙회(충남지역본부)와 역할분담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청풍명월 골드 쌀 판매촉진을 위해 특허청 상표등록 완료, 포장디자인 개발, 도농협 충남지역본부홈플러스 간 MOU 체결, 홈플러스, 농협 하나로마트, 롯데슈퍼 등 전국 830여개 매장에 입점 중이다.

2012년과 2013년 주요 시책(핵심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다(<표3-1>참고).

- 6) 2013년 주요 시책 중 “직접지불금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은 현재 연구용역 방식으로 진행 중이고 주요 과업내용은 농어업·농어촌에 걸친 광범위한 제도 개선내용이기 때문에 본 부문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친환경 고품질 생산지원을 위한 삼교호 수질개선”사업도 2010년까지 삼교호 수질개선 기본계획 보완조사가 완료되었으나 사업비 과다로 기본계획이 미확정되면서 세부 설계가 지연된 관계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추진경위가 없기 때문에 본 부문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표 3-1> 친환경 고품질 농업의 핵심사업 개요

사업명	구체적 내용
충남 쌀 공동브랜드 [청풍명월 골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시일: '12. 5. 4 ※도내 16개 농협RPC 참여 품질기준: '삼광' 단일품종, "1등급", 단백질함량 "수" 판매처확보: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전국매장 등 830개점 입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년 개정된 양곡표시제 시행에 맞춰 새로운 양곡시장 선점 이천쌀 수준(입고가격 58,000원/20kg)계약, 유통업체 높이 평가 홈플러스 판매현황(6.12~7.5): 25톤/97백만원 생산체계: 원료생산 → 제품생산 → 주문발주 창구 (전문단지) (16개RPC) (농협대전유통센터) 사후관리: 도(친환경농산과) → 농업기술원 → 충남농협 (시책개발/자금지원) (성분검사년2회) (관측/제품관리)
도심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실적: 103학교(서울56, 대전26, 충남21) 사업비: 300백만원(도비 90 시군비 210) 사업대상: 충남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납품 또는 계획 중인 학교 사업내용: 친환경농업인 단체(마을)와 도시학교간 지매결연, 학교 생태 학습농장 조성, 모내기 등 농촌체험학습, 추수행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태학습농장 조성 및 모내기 추진: 100학교(서울54, 대전25, 충남21) 버베기, 탈곡체험 등 추수행사 추진: 10월 ~ 11월초
충남 농산물 생산정보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목표: 충남 농산물 생산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40백만원 사업내용: 시스템 개발, DB구축
직불금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목표: 현행 직불제도에 대한 개선안 건의, 국가 정책반영 사업비: 연구용역비 28,500천원 사업내용: 희망농업직불, 생태경관직불, 행복농촌직불로 구성(안)
친환경고품질 생산지원을 위한 삽고호 수질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목표: 농업용 호소인 담수호, 저수지 등은 농업용수 수질기준 IV 등급(8ppm)이내 목표로 추진 사업비: 804억원(국비 100%) 사업내용: 수질정화 인공습지, 오염물질 침강지, 인공식물성 등

친환경 고품질 농업 부문 주요 시책의 연도별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표3-2>참고).

<표 3-2> 친환경 고품질 농업의 주요 시책 추진 경과

일정	주요 경과	구체적 내용
2011년 07월	충남 친환경연합회 생산자 조직 결성	- 도내 연합회 1개 시군지역 7개 조직 15개로 총 16개 조직 (계룡시는 농산외 연합)
2012년 01월	충남도 공동브랜드 '청풍명월 GOLD'*, 개발 및 등록	- 품종은 삼광벼 육성 협업체결 쌀 관련 11개 기관 및 단체) - 품질은 1등급수, 17개 RPC 운영 - 디자인 및 포장체 개발(6종: 1kg, 5kg, 10kg, 20kg 등) - 표준재배 매뉴얼 개발 및 보급
2012년 02월	민간 협력체계 구축 생산자 조직 및 리더육성 선정	- 행정·도·시군과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16개단체·도, 시군 15)간 상호 협력방안 협의 - 친환경농업 생산조직(16개 조직) 및 리더육성 선정확정을 통한 역량 및 민간협력트렌드 강화 노력
2012년 03월~04월	친환경농업 대단지 선정 기술교육	- 고품질친환경 쌀 생산능가 대상 기술교육 - 유·농 생산단지 친환경농업단지 대상지 선정 - 각종 영농대책 회의 현장 기술지원단 운영
2012년 03월~04월	도심학교 친환경농업실천 및 결연단체 선정 사업설명회	- 서울 56개 대전 25개 충남 시군 도심학교 20 총 100개 학교 대상으로 순회사업설명회 개최 - 도심학교와 농촌마을을 협력사책 농촌체험 학습, 지매결연으로 학교급식 직거래 기반 조성
2012년 05월~10월	'청풍명월 GOLD'*, 출시 기념행사, 마케팅 및 홍보활동 산자관리 활동	- 업무협약: 도·홈플러스·농협 ·정직한 생산결의: 청풍명월골드 계약 생산농가(1,616농가) ·착한소비 결의: 대전·충남 소비자 연맹(회원 35천명) - 광·판 농산물 장터 참여 등을 통한 홍보활동 - 16개 지정 RPC에 대한 사후관리 활동 강화
2012년 05월	도심학교 친환경농업실천 첫 모내기 시연 행정지원	- 목적: 학교 생태학습농장 조성 및 첫 모내기 시연 - 대상: 서대전초등학교 6000명 학생·학부모·도내 대표 농업인 - 내용: 모내기 방법설명 및 체험행사 - 1학교 2공무원·분당체 운영 등 행정지원
2012년 06월	친환경농업 현장지도 점검	- 생산자 조직, 친환경농업지구 등 현장지도와 점검활동
2012년 07월	학교 학생 및 교사 등 초청 농촌체험 제공 및 수확체험	- 결연학교 농촌마을 초청 학교 수확체험 제공으로 상생발전
2012년 09월~12월	청풍명월골드 수도권 내 홍보 및 판촉활동	- 서울공정 서울지역 홈플러스, 서울지역 농협 등 3회 - 지하철 및 광고탑 홍보 등 2식
2012년 10월	도심학교 친환경농업실천 학교별 추수행사	- "사람과 벼 그리고 생명 나눔 한마당" 축제 개최 - 대전원평초등학교(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학교관리자, 학생, 학부모 등 1,000명 참가) - 서울지역에서는 지역 친환경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한 판촉전시 식회전시 홍보활동 전개
2013년 01월~02월	충남 농산물 생산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및 개발착수	- 충남 농산물 생산정보시스템 구축 검토 관련 계획 수립 - 개발유탁(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2013년 01월	청풍명월 골드 농가조직 결성 및 생산단지 확대 조성	- 출시 2년차 생산자 실천결의 등 확산대회 (8000명) - 균일한 원료곡 확보를 위한 청풍명월 골드 생산단지 조성 (100ha)
2013년 04월	도심 학교 속 농민들기 사업 본격 추진	- 대전충남권 서울권 등 권역별 사업설명회 - 도농상생 협력 지매결연 추진(도심학교+친환경마을단체)
2013년 04월	직접지불금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	- 연구용역 수행: 충남발전연구원(2013.04.~08.(5개월간)) - 중앙정부에 직불금 제도개선(안) 제시하기 위한 시선연구

2. 지금까지의 성과

2012년부터 현재까지 가지적인 성과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제도적·생산공급 기반을 마련**하였다. 제도적 기반으로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실천계획의 수립, 충남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 통과(2012.3.16)와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친환경(무농약 이상) 재배면적이 확대되었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공급기반을 구축하였다. 추가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관계기관의 행사 홍보활동도 활발하다. 예로서 월간 친환경 및 월간 여성지 Queen 등 친환경농업 추진 관련 보도자료를 제공 하는 등이다.

- '10년 대비 36% 증가, '10년 3,923ha에서 '11년 5,326ha(유기농 1,835, 무농약 3,492)
- 무농약 이상 재배면적 증가율 전국 최고
-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 250ha, 친환경 광역 및 지구조성 5개소
-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사업 확대, 도심 속의 학교 논 만들기 : 11년 14개에서 12년 100개 (330백만원), 성과 좋은 편, 쌀을 교체하고 폭력없는 학교로 지정 등

둘째, **도심학교 친환경농업실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사업을 통해 도농교류의 실천, 도시 소비자와 생산자 간 상생교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도농교류사업단과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서 (사)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충남도가 함께 충남 내 공공급식에 충남산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친환경농산물 급식데이”를 개최하여 2012년 대한민국 유기농 대상서 최우수 대상 수상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리고 학교와 마을간 학교급식 공급계약을 2012년에 맺었다. 보령시 친농연과 서울 이수초등학교 간, 서산시 서친생영농조합법인과 강당초등학교 간 학교급식 공급계약을 맺었다. 학부모를 마을에 초청하고 18개 학교급식 계약을 맺어 현재 납품 중이다(<표3-3>참고).

<표3-3> 친환경 고품질 농업의 우수사례 1



셋째,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충남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학교급식 사업 지원방식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 기존 현금지원 방식에서 지역농가와 사전 계약 재배를 통해 현물지원 병행하고 시군 급식지원센터 확대 설치에 대한 지원, 도내 급식재료 수급조절 등 잉여농산물은 다른 지역에서 공급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넷째, 충남 쌀 산업 육성 정책이 수량 중심에서 **품질 중심·품질고급화 정책으로 전환, 공동브랜드 출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내 11개 기관과 단체 실천협약을 하는 등 공감대를 마련하고 고품질 쌀 기반 확충**을 할 수 있었다. 친환경 벼 품질고급화를 위해 참여자간 품종 단일화를 합의하여 3대 주력품종(삼광, 황금, 새누리) 중 삼광을 선정하여 다수확 보급급 공급을 중단, 공공비축미 수매 제외 등의 시도를 하였다. 이로서 고품질 품종재배 면적은 '11년 36.2%에서 '12년 41.6%로 확대하였다.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 참여 농업인 자율 합의하였고 고품질 친환경 벼 생산을 위해 전 참여단지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청풍명월 골드”라는 도단위 공동브랜드를 출시하여 전국적으로 830여개 매장 입점 등 충남 쌀의 가치를 높여나가고 있다.

다섯째, 충남 농산물 생산정보시스템 구축을 시도하여 시범운영하기에 이르렀다. 시스템 개발로 가을무, 배추의 수급안정을 도모하여 성공적으로 되면 이후 품목을 더 확대하여 도내 주요 농산물의 재배현황에 대한 정보를 농업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섯째, 직불금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노력을 수행 중이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기본(안)은 다음 <표3-4>와 같다.

<표3-4> 친환경 고품질 농업의 우수사례 2

【 직불금 제도 개선(안) 】
○ 제1축 (농업 분야) 희망농업 직불 : 식량자급 프로그램, 젊은농부 프로그램
○ 제2축 (환경 분야) 생태경관 직불 : 농업생태 프로그램, 농촌경관 프로그램
○ 제3축 (농촌 분야) 행복농촌 직불 : 농촌공동체 프로그램, 농촌안전망 프로그램

일곱째, 최근 7월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농정국 산하 농산물 유통과가 별도로 마련되어** 정책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즉, 기존의 농정과 유통계와 친환경농산과 유통계가 서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업무수행의 비효율성, 정책적 지원의 일관성 부족 등을 야기했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단위의 통합된 추진체계 구축을 달성하였다.

3. 과제와 개선방안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여러 차례 공식회의,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해 제기된 친환경·고품질 농업 분야의 과제에 따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친환경·고품질 농업 부문에서는 **영역간 불균형**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정책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주로 친환경광역단지 조성, 생산자 품질교육, 친환경 자재지원 등 **생산 영역에만** 주력하였다. 그러나 직거래 사업, 직판장사업, 기관 및 학교 급식 등 새로운 수요 확대에 대비한 친환경농산물의 품목 다양화가 미흡하였고 충남산 친환경농산물을 **충남 내 유통(로컬푸드)체계가 미흡**하였다. 여전히 충남 내 친환경농산물 소비계층 확대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고 아이러니하게도 충남내 소비량 자체도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자체극복이 힘든) **소비영역에서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영역이 서로 조화롭게 운영되지 못하는 불균형 측면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 영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충남 내 생산 중심 권역과 유통 중심 권역이 연계한 후 소비자 영역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과 소비에 초점을 맞춘 후 이에 대응하는 생산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생산 중심 권역인 부여, 논산, 청양 지역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이를 통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자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주체로서 (사)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유통 중심 권역인 당진, 아산 중심의 친환경농산물의 광역유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며 광역연합마케팅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관행농산물 유통을 포함한 친환경농산물 유통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농수산국 내 통합적인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농정과 유통계와 친환경농산과 유

통계 통합을 통한 창구단일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창구단일화를 통해서 일반농산물을 포함한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정책 지원과 관련한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해결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정책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친환경농업부문과 학교급식과의 연계 등 **영역간 융복합화와 강력한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 융복합화와 연계성 확보는 첫째에서 제안한 내용인 영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활동을 통해 1차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의 도심학교 친환경농업실천사업이 수범사례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충남 내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 단체의 급식과 친환경농산물간 소비와 공급의 연계 등이 그것이다.

둘째, 친환경·고품질 농업 부문에서는 주체 간 **인식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일반 관행 농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에게는 친환경 농업 중심으로만 진행되고 있고 **고품질 농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친환경농업인보다 관행농업인이 수적으로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농업인의 인지도나 체감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농업인들 스스로도 친환경농업에 대한 **자기신뢰성에 대한 의문점**을 느끼고 있고 이는 **사회적자본(신뢰) 확충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을 말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홍보와 교육 강화**일 것이다.

생산자에게는 형식적인 친환경농법 및 홍보 등 기존 방식으로부터 벗어나 친환경·고품질 농업에 대한 본연의 가치와 그것이 가지는 위대한 힘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생산자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생산자 부분은 별도의 홍보보다 교육과 연계한 홍보방식이 필요하다.

소비자 역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역시 홍보와 소비자 교육이라고 본다. 이 부분은 **기초적인 생산단계에서부터 신뢰회복을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생산자 교육과 홍보에 집중하면서 단계적으로 소비자 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특히 도심학교 속 논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 어린 시절부터 농업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보고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교육방식은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7) 참고로 2013년 7월 농산물 소비활성화, 산지유통 선진화 시스템 구축 등 농산물 유통기능을 강화하기 위

한 '농산물유통과'가 신설되었다.

셋째, 친환경농업인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인 **생산단계에서의 경영비 절감방안 대책**, **타 인증으로의 이동 및 전환에 따른 대응 등을 이슈화**하지 못하였다. 수입개방 시대에서 현재의 농산물 가격형성 메커니즘으로 농업소득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기에 생산단계에서의 경영비 절감방안을 고민하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이 3농혁신 친환경고품질 부문에서 핵심사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농산물 가격 하락, 농업 분야 재해피해 등에 따른 지방정부 차원의 문제해결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단위 차원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집행 추진체계 내에서 생산단계 경영비 절감 방안 도출은 부족하였다는 지적이다.

또한 친환경농업활성화라는 측면에서 2016년 **저농약 인증 폐지에 따른 타인증으로의 이동 및 전환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정책에서 이에 대한 대응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즉, 저농약 인증비율이 전체 친환경인증 비중의 66.6%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높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여전히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충남 자체적으로만은 해결하기 매우 힘든 부분이다. 범 국가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스러우나 그런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충남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을단위의 협업경영, 공동농장 시범사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기존의 시군단위라는 큰 행정체계를 떠나 현실적으로 자연부락, 행정리 단위라는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모든 농업생산과 관련된 활동들을 공동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생산단계에서 공동기계 작업, 공동자재 구매사업, 공동인력 제공(품앗이, 두레 등) 등 마을의 모든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도단위 공동브랜드인 “청풍명월 골드” 출범**과 동시에 생산, 유통, 가공(품질 및 상품화), 소비 등 각 부분별 완성도가 아쉬운 상황이다.

생산단계에서는 청풍명월 골드 브랜드 기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품종(삼광벼) 선택” 문제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삼광벼는 수확 중심의 품종으로서 일반벼와 수확량에서 많은 차이, 도복문제, 증산위주의 농법이 발생하여 미질저하의 우려가 심각하다. 그 외에 삼광벼 전용 재배단지 조성방안 부족, 브랜드쌀 판매실적 저조에 대한 대책 마련 미흡, 산물수매 방안에 대한 검토, 수확량 감소에 따른 소득보전을 위하여 영농비 절감방안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및 소비 단계에서는 공동브랜드가 출범했지만 첫해인 관계로 전국적으로 쌀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지 못하였고 소비자 인지도 확산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단위면적당 수량은 전국 1위이지만 미질 평가에서는 충남 쌀에 대한 소비자 평가는 그리 높지 못한 상황이다. 그간 충청권 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미지나 인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던 탓 - 지역 쌀 브랜드보다 타지역 원료곡 및 중저가 쌀로 판매되는 현실 - 에 브랜드 출범 이후 바로 우위를 선점하기는 힘든 여건인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품화 단계에서는 16개 RPC(10개 시군 산재)별 원료곡의 품질 차이가 발생한 점도 제기되었다.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홍보와 지원,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근본적인 농업구조상 정책성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부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지만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비율 저조한 현상을 보면 친환경농업의 전략적 육성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아직은 많이 남았음을 시사한다. 2012년과 2013년에 공통 중점 추진사업은 도심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사업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고민하고 실행해야 할 몫이다.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도심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모내기, 수확체험 등 사업추진 시기가 농번기와 겹치기 때문에 실제 **농업인들 일손 부족현상이 발생**하였다. 특히 본 사업은 자매결연을 맺은 학교의 반응이 좋아 2013년에서 주요 시책으로 선정되었기에 농가들의 농번기 중복성 해결이 시급하고 다른 사회단체, 활동가와 연대가 필요한 점이다.

도심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사업 실시에 따른 농업인 일손 부족현상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권역별 사업설명회 시 참여학교와 친환경마을 단체 간 사전협의로 학사일정을 조정하여 농번기 농촌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농촌에 거주하는 일반 마을주민들이 함께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마을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충남 내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체와 사회적 협동조합 구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이미 조직들이 많이 준비되고 있는 상태여서 인적자원 활용면에서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 이것은 단순히 일손을 도와주는 개념이 아닌 각자 영역에서 또다른 형태의 일자리 창출 제공과 함께 농업과 사회적 경제 분야의 교집합을 찾는 중요한 사업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섯째, 당초의 충남 친환경농업육성을 목표로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사업내용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맞춤형비료지원이 과연 친환경농업 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다. 그리고 기존 국비사업 집행이 대부분인 현재 여건상 힘든 구조로 인해 국비사업 내용과 동일하여서 3농혁신 정체성과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사업내용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이런 지적사항은 2013년 30대 중점 추진사업으로 압축되면서 해결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여전히 관련 주체들은 충남의 친환경고품질 농업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중장기적인 비전과 구상을 같이 하고 있지 않다.

충남 친환경농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한 비전, 목표, 추진전략, 추진체계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문제인식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결국 충남의 친환경농업이 큰 틀에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접근해 갈 것인지에 대해 공감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에 대해 관련 주체 간 논의와 협의과정을 거친 뒤 충남의 친환경농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차원에서는 이미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11-2015)을 수립한 바 있으므로 이와 방향을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쌀 직불금 등이 친환경농업부문 전체 예산으로 편성되면서 상대적으로 예산규모는 크지만 정책목표인 친환경고품질농업육성과 수단인 세부 사업간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쌀 고정직불금이 포함됨으로써 친환경농업부문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규모 비중 차지하고 실제로 3농혁신의 친환경고품질농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고 보기에 이 부문은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친환경농업발전을 논하기 위한 협의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런 소통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정책대상자, 기획자, 지원기관 간 통일적인 의견 도출을 위해서 소위원회, 분과별 회의, 협의회 등 여러차례 기회를 통해 논의하고 있지만 의견 도출결과가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친환경고품질농업 TF팀, 3농혁신 소위원회, 3농혁신위원회 등 민간거버넌스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실용성있는 논의를 끊임없이 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이라고 본다. 아직은 거버넌스 체계가 초기 단계이기는 하나 그간 운영의 경험을 토대로 조금씩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 틀 속에서 방향과 목표 설정에 따른 세부 사업의 조정, 예산의 조정 등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선진 축산 부문

1. 사업개요 및 추진 경과

본 부문은 친환경 축산업 육성 및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유통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3농혁신 선진 축산의 2012년 예산 규모(본예산 사업비 기준, 이하 동일)는 1,519억원에서 2013년 1,551억원으로 약 2.1% 증가하였다. 이 중 도비 예산 규모는 2012년 150억원에서 2013년 161억원으로 약 6.8% 증가하였다.

2012년 중점시책으로는 ① 조사료 자급률 확대를 통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② 자연순환형 축산단지 조성을 통한 자연순환형 축산업 육성(당진낙협), ③ 축산물 유통판매시스템 선진화(충남 한우 공동브랜드 ‘토바우’육성)이다.

2013년 공동협력사업으로는 고품질·친환경·선진 축산물 유통시스템 구축, 홍보지구 소규모 축산농가 축분보관시설 지원이다. 2013년 중점시책으로는 ① 동물복지 실천농가 보조금 지원 제도 도입 추진, ② 약취없는 클린 축산농장 만들기, ③ 충남 조사료 완전 자급기반 구축 등으로 환경과 복지가 조화되는 “착한 축사”육성, 3無(스트레스, 약취, 질병)운동이 중심이 된다.

2012년과 2013년 주요 시책(핵심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다(<표3-5>참고).

<표 3-5> 선진 축산의 핵심사업 개요

사업명	구체적 내용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육성 ▶ 충남 한우 공동브랜드 [토바우]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표 : 한우우 광역브랜드 육성 3개브랜드(토바우, 하늘소, 참육우) ○ 사업비 : 762억원(광역브랜드육성 45, 시설현대화 717)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을 전국 명품한우브랜드로 발돋움 - 한우고기 및 수입 쇠고기와 경쟁할 수 있는 차별화된 육우브랜드 육성 - 축산물 고급육 생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123개소)
자연순환형 축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251억원(조사료재배90,분뇨자원화140,아름다운농장만들기21)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 주변 경관 개선을 위한 '아름다운 농장만들기'추진(100개소) - 제2차 양질 조사료 자급화 대책('12~'14년) 수립추진 - 조사료 확대 재배(30천ha)와 연계하여 가축분뇨 자원화 지속 추진(262개소)
축산물 유통판매시설 현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65억원(축산물 공판장 45, 유통판매시설 20) ○ 사업내용 : 축산물 유통판매 구조개선을 위한 세부추진 방안 수립,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판매시설 : 3개소, 20억원 - 홍성군 축산물공판장 설립 추진 1개소 : '12~'13년 45억원
동물복지 실천농가 보조금지원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표 : 친환경동물복지인증제 및 축산업허가제 추진, 친환경사육시설 15개소, 동물복지 인증 농가 지원 ○ 사업비 : 1,900백만원('12년 900, '14년 500) ○ 사업내용 : 동물복지인증 및 친환경사육시설 농가 지원
악취없는 클린 축산농장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표 :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축산업 이미지 제고 ○ 사업비 : 2,160억원 ○ 사업내용 : 축사시설 현대화, 아름다운 농장만들기, 악취 탈취시설 및 탈취제
충남 조사료 완전 자급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표 : 사료작물재배 116천 ha, 경영체 육성 154개소, 조사료 제조 운송비 544천톤, 임차료 9,000ha ○ 사업비 : 979억원 ○ 사업내용 : 양질 조사료 확대생산을 위한 장비 및 자재 등 지원

선진 축산 부문 주요 시책의 연도별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표3-6>참고).

<표 3-6> 선진 축산의 주요 시책 추진 경과

일정	주요 경과	구체적 내용
2012년 01월~02월	한우젓소 수급 안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및 대책 수립	- 한우 사육두수 지속적인 증가로 지난해 구제역 발생 등으로 급년 초에는 한우우 극심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통하여 대책수립
2012년 02월	양질 조사료 확대생산을 위한 조사료 자급화 중기대책('12~'14) 수립	- 조사료 자급율 목표치 : '12) 97% , '13) 97.5%, '14) 98%
2012년 02월	축산물 공판장 설립 간담회	- 축산물 공판장 설립(홍성) 관련 간담회 개최 - 도 홍성군 (주홍주마트 푸른축산(영) 합동 참석 - 효율적인 추진방안 협의를 위해 행정차 이행 등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연차별 추진
2012년 04월	선진축산팀 현안 토론회	-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50여명(시군 생산자단체 등) - 내용 : 3농혁신 정책 실행과 현안(가축분뇨 등 생산성 향상 방안) 토론
2012년 05월	생산자단체 중심의 축산물 유통판매 시설 구축 완료	- 홍성 서부농협 1개소에 판매장+음식점+가공시설 등 융복합화 1개소 10억원(도비 1.5억원)
2012년 05월	선진축산분야 현장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 및 문제점 발굴	- 광역브랜드, 시설현대화, 사료작물재배, 가축분뇨 자원화 그 외 중시영역 현황 등 15개 시군 현장방문 종합 점검
2012년 05월~06월	생산자 단체 중심의 축산물 유통판매 시설 구축 완료, 축산물 공판장 대상자 결정	- 홍성 서부농협 1개소에 판매장+음식점+가공시설 등 융복합화 1개소 10억원(도비 1.5억원) - 축산물 공판장 설립 사업대상자 결정 이행규정 검토 - 축산물 공판장 설립을 위한 '도사계획' 입제 결정절차 이행
2012년 06월~07월	분야별 도시군경영체 참여의 협의체 구성	- 한우광역브랜드 : 토바우, 하늘소 - 육우광역브랜드 : 참육우 - 양질조사료 생산 및 유통, 가축분뇨 지원 및 유통 등
2012년 08월~11월	현장 확인 및 점검	- 적기사업 추진 독려 및 의견 수렴 위한 현장 확인 강화 - 상하반기 현장 확인과 현장 목소리 청취하여 정책 반영
2012년 09월	우수 조사료 생산경영체 선정	- 재배품종, 품질, 공급가격 등 종합평가 후 선정 - 2013년 인센티브 지원
2012년 10월	현장 견학 및 벤치마킹	- 타시도 축산물공판장 시설 현장 견학 및 벤치마킹 - 타시도 명품 한우우 브랜드 현장 견학 및 벤치마킹
2012년 10월	현안 토론회	- 분야별 도시군 및 경영체 등 참여토론회 개최를 통해 한우우 브랜드 조사료 생산유통분노 지원방안 등
2012년12월~2013년01월	동물복지 관련 조례 정비를 통해 동물복지 실천농가 보조금 지원제도 도입 추진	- 2012년 2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충남 동물보호조례'개정 추진 - 2013년 1월 관련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사업 완료 - 동물복지인증제(신체계), 축산업허가제(가업승) 등 실시
2013년 01월	유통구조개선 사업대상자 결정	-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 대상자 확대 추진 - 지원대상 :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등
2013년 01월	조사료 생산전문 경영체 워크숍	- 시군 축협, 농가 등 184명 - 경영체 구성 운영 요령
2013년 03월	악취없는 클린 축산농장 만들기 대책수립	- 내포산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 수립

2. 지금까지의 성과

위와 같은 문제점들도 있었지만 성과도 있었기에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공식적인 성과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충남 한우 공동브랜드 [토바우] 육성을 통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기초**를 다져놓은 점이다. 1등급 이상 출현율이 토바우 83%로 일반 거세우 78%보다 높은 성적을 거두었고 2012년 전국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 한우 부문 최우수상(토바우)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현장의 양축농가들도 이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견이었다.

둘째, **자연순환형 축산업 육성을 위한 양질의 조사료 기반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가축분뇨를 활용한 양질 조사료 확대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조사료 자급화 중기대책을 수립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로서 사료작물재배 '11년 25천ha에서 '14년 32천ha이 확대 생산되었다. 조사료 사업과 관련하여 우수사례는 다음 <표3-7>과 같다.

<표3-7> 선진 축산의 우수사례 1

【국내산 조사료 생산 및 제조 시연회 개최】	
○ 개요	
- 일시 : '12. 05. 15, '13. 08. 09	
- 장소 : 천안 성환 양령단지, 당진 석문 간척지	
- 참석자 : 농식품부 장관 등 1,000여명	
- 내용 : 사료작물(호밀, 옥수수) 예취 및 사일리지 제조 시연, 양질의 가축분뇨 액비 살포 시연 및 사용효과 설명, 사료작물 품종별 특성 및 이용방법 등 현장 교육	
	

셋째, **축사시설경관 등의 종합개선으로 클린 축산농장을 확대조성**하였다. 친환경사육시설 및 아름다운 농장만들기 호응이 좋다.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우량 퇴액비 자원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아름다운 농장만들기 사업을 실시하여 '12년 630개소에서 '14년 830개소로 증가하였다. 클린축산농장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의 양축농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계속 확대 시행해야 할 것이다(<표3-8>참고).

<표3-8> 선진 축산의 우수사례 2

【아름다운 농장만들기 우수농장】	
	○ 개요 - 2012년 아름다운 친환경 축산농장 시진공모전(농식품부 주관)에서 우수상 수상 - 수상자 : 예산 고덕 몽곡 962-3 전용철 농가(양금농장)

셋째, **민관이 협력하여 각종 토론회 개최를 통해 축산농가경영안정대책을 수립**하였다.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약 5회 개최, 도 정책 반영 17건, 정부 건의 31건, 장기 과제 1건 등을 수행하였다. 축산농가경영안정대책 중 실천사항으로는 소비촉진행사 8회, 암소 도태장려금지원 17천두(52억원), 설날 사회복지시설 한우고기 지원 2톤 무상공급 등을 실시하였다.

넷째, 정부시책인 **‘축산업허가제’ 도입에 따른 조기 정착 준비** 차원에서 도 자체 계획을 수립 추진에 노력하였고 도입 필요성을 홍보하였다. 동물복지인증제 및 축산업허가제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경제적 부담 최소화를 위한 농가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을 채택, 공동자원화시설 등 민원 우려 높은 사업은 지역주민 사전 협의로 추진, 산지와 유통을 연결하는 전국 축산물유통거점센터로 육성하기도 하였다.

다섯째,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동물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중앙정부에 직불금 지원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보**를 하였다. 동물보호법 개정('12.2월), 충청남도 동물보호조례 개정('12.12월)하는 가운데 친환경사육시설 사업계획을 수립, '13년 1월에는 동물복지인증농가 직불금 지원 제도 도입, 을 농식품에 건의하였다.

3. 과제와 개선방안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여러 차례 공식회의,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해 제기된 선진축산 부문의 과제에 따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충남 한우 공동브랜드 “토바우”를 육성을 시작했으나 유통, 가공(상품화), 소비 등 영역간 불균형, 부분별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축산물 공동브랜드가 출범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과를 논하는 것은 이르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현재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예상되는 시행착오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유통 및 가공 판매 단계에서는 한우 ‘토바우’는 생산분야(가축사육, 전용사료 공급 등)는 매우 안정적이지만 축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경영 불안정으로 시설 현대화 기피현상과 맞물려 유통·가공·판매 분야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전문판매장 16개소, 축산물프라자 및 전용가공시설이 없는 관계로 상품화, 유통, 소비 단계에서 한계점을 드러냈다. 토바우 외에 일반 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에서도 우선 충남 지역 내 생산과 유통 간 순환체계가 부족하다.

소비 단계에서는 기존의 타지역 명품 한우브랜드(강원도 횡성한우, 평창대관령한우, 경기도 안성마춤 한우)에 비하여 충남산 한우는 그간 소비자 인지도가 낮아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축산물의 영역간 균형 노력을 비롯하여 도단위 공동브랜드인 토바우에 정책적 관심과 집중지원이 필요하다.** 영역간 불균형적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순환식품체계라는 정책의 틀 속에서 충남산 축산물이 지역내에서 먼저 유통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그리고 토바우의 경우 작지 않은 규모의 예산과 많은 정책 노력을 기울인 결과 탄생한 도단위 공동브랜드인 만큼 진행과정과 사후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영역간 균형을 맞춰가면서 소비자와의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 것이 브랜드의 첫 번째 조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지의 생산자 영역, 유통 영역, 소비 영역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수직계열화사업의 참여 전면 확대 등이 필요하다. 유통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판매장, 시설 확장에만 주력하기 보다는 생산 단계에서의 철저한 사양관리를 통한 축산물 고품질화를 달성하는 것이 선결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브랜드라는 것을 만들고 당장의 성과를 도출하라는 것은 무리임을 감안

해야 할 것이다. 브랜드는 결국 소비자의 신뢰 확보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려있고 신뢰 확보는 장기간에 걸쳐서 쌓아가는 과정의 중요성에 있음을 관련 주체들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둘째, **축산업을 둘러싼 대내외부 환경이 매우 불리하여** 충남 축산업 추진에 있어서 장애요 소로 작용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축산과 관련한 각종 시설 설립 시 법률 및 제도적 측면에서 많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축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 시간, 노력, 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내적으로는 자연순환형 축산업 육성 부문에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대상지 민원발생, 축산물 공판장 설립 시 각종 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지연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축산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시각과 축산 농가의 입장 간 간극이 타산업보다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각종 사업에 차질을 빚었고 주민과의 갈등 해결에 난관이 있었다⁸⁾. 즉, 지역 주민들의 시각은 밀집사육에 따른 동물 공장, 악취·유발·환경오염원 등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가축분뇨 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은 아직 미흡하다는 반응이었다. 반면, 축산 농가 입장은 축산업 부정적 이미지 해소 노력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우선시 하게 되고 상시 방역으로 악성가축전염병 재발 위험에 대한 긴장감 낮아지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순환형 축산업 육성 및 양질조사료 생산기지 조성을 시도하였으나 사료작물 파종시기(10~11월)에 잦은 강우와 저온현상으로 파종실적 저조,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가격 지속 인상에 따라 사료자급화가 필요하나 국토여건 및 농촌인력 고령화로 사료자급화에 어려움, 축산물 유통판매시설 현대화 사업은 생축 가격 하락과 연동한 축산물 소비자 가격 하락으로 실적 추진이 미흡하였다.

- 자연순환형 축산업 육성을 위해 당진낙협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사업대상지(당진시 석문간척지 내)에 민원 발생으로 추진 공정 지연
- 축산물 유통판매시설 현대화 사업 중 홍성군 내 축산물공판장 설립 시 도시계획시설변경 절차이행에 따른 사업 착공 지연

8)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2013년 충남 3농혁신 선진 축산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동물복지’지향이 필요한 것에 인식을 공감하고 2013년 공동 중점추진시책으로 선정되었다.

- 축산업허가제 실시와 관련해서 축산 농가들의 이해 촉구가 필요하여 3월 개정 되었으나 후속 법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개정에 따라 도 자체 추진계획 수립 추진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은 계속 발굴하여 확대시행할 필요가 있다. 축산업은 다른 분야와 달리 대내외부 환경적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에 있으므로 앞으로의 방향설정은 환경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앞서 클린축산농장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만족도가 높다고 언급했듯이 실제 생산성 향상, 농가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악취절감 시설 사업, BM활성수사업과 같은 과학적 연구와 기술이 뒷받침되는 R&D사업 분야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충남 차원에서는 **충남 지역 축산 현실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농가들이 겪고 있는 애로 사항들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축산업의 환경 문제를 무조건 생산자 책임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소비자가 책임을 같이 공유하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이 문제가 생산자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무리인 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비자를 향한 홍보와 인식전환 교육 활동 등을 통해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할 수 있는 대면접촉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충남 축산업의 중장기적 계획과 세부 지침이 부재한 상태**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정책수요자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 모든 농업보조금의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일례로 선진축산업 부문 진행 시 정책대상 선정기준의 모호함, 평등하지 못한 배분방식, 단편적 집행과정 등 신뢰도가 저하된 상황이다.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기존 사업들을 3농혁신 선진축산업이라는 정책 틀로 묶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 예를 들면, 동물복지 관련 군집시설 사업의 경우 시범사업 수준으로 이행했으나 현장 양축농가들이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었기에 사업신청자 실적 저조하였다. 이것은 정부나 일반 국민들이 축산업 실태를 모르고 선진국을 쫓아 과도하게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하는 일이 발생한 결과이다.

- 농협중심의 지원사업이 대부분인 관계로 보조금의 수혜 혜택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사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농협을 이용하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농가들은 오히려 비싼 가격에 자재를 구입하게 되면서 관련 보조금 혜택이 농가에게 귀속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적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및 수혜 혜택 역전 현상** 등이 발생하였는데 오히려 유통구조 개선, 사료비 등 경영비 절감방안 등 좀 더 현실적인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충남의 축산업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충남 축산 부문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추진체계 등 기본구상이 마련된 상태에서 각론이 논의되고 협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책적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킬 수 있는 협의체계 구축과 실행전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3농혁신 선진축산업의 성패는 결국 관련 주체들의 만족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실에서 와닿을 수 있는 정책구상이 필요한 때이다.

넷째, **선진축산팀의 TF논의와 협의체계가 부족했던 점**이 아쉽다. 축산업이란 성격 상 각종 법률 및 제도적 문제의 해결, 소비감소와 가격하락이라는 매우 급변하는 축산업 환경 등 현안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관계자간 충분한 만남과 논의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 선진축산업과 관련하여 현재의 3농혁신 TF팀, 3농혁신 소위원회, 3농혁신 위원회 등 민간거버넌스 체계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충남 축산업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큰 틀을 논의하고 세부과제와 전략을 제대로 논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남는 대목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결국 현안에 집중하면서도 **선진축산업과 관련된 주체들이 정기적인 논의와 협의의 기회**를 갖는 것이다. 회의라는 다소 경직된 틀을 벗어나서 실제 선진축산업이 증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현장 방문, 사례와 견학, 학습 기회, 구성원간 의견토론과 발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소비자와의 교류 활동들을 통해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환기하고 이해를 도모하는 간접적인 교육과 홍보도 필요하다. 축산업이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할 때 결국 주체들의 힘과 역량, 지혜들을 모으는 방법 밖에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고 본다.

제3절 청정수산 부문

【김중화】

1. 사업개요 및 추진 경과⁹⁾

충남도의 어업생산량은 112천톤(2012년)으로 전국 연근해 어업(3,183천톤)대비 5번째로 많은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어, 그 비중이 큰 편에 속한다.¹⁰⁾ 또한 청정해역과 충남의 갯줄인 금강이 있어, 해면과 내수면에서 수산업 고루 발달할 수 있는 지정학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에 민선 5기 충남도정에서는 3농혁신의 한 분야로 “청정수산”을 선정하여, “충남수산 4대명품화”와 “지천100리 금강 목장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청정수산 분야에서의 “충남수산 4대 명품화”와 “지천100리 금강 목장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또, 첨언하여 3농혁신의 30대 과제에는 속해 있지 않으나, 3농혁신이 지향하는 농정거버넌스의 기틀이 되고 있는 “어업인과 함께 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추가적으로 논하겠다.

1) 충남수산 4대 명품화

“충남수산 4대 명품화” 사업은 충남의 대표적인 4대 수산물(바지락, 참굴, 김, 해삼)을 2014년까지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어업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며, 수출확대를 통한 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사업비 65,735백만원을 투입하여, 바지락 명품단지 조성, 연중 생산이 가능한 갯벌 참굴단지를 육성, 안정적인고 질 좋은 김 생산, 해삼 특화단지(섬)를 조성하고 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자체토론회와 3농혁신대학(청정수산과정)을 개최하여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어업인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썩” 퇴치를 위한 시험포(7개소/2,100㎡) 운영, 굴 양식시설 현대화(136대), 해삼 축제식 실험양식(2개소) 등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판로다변화와 안정적인 판로확충을 위하여 전자상거래 및 면세점 입점을 통한 수출확대를 도모해 왔다.

특히, 참굴에 있어서는 전국최초를 시범양식단지를 조성하여, 친환경적 양식시설인 수평양식 시설을 25ha, 6,900세트를 설치하였다. 또한, 생산에서 가공·유통까지의 체계적인 산업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어업관리 및 생산(어업인), 시설 및 출하(어촌어항협회), 가공·유통 및 수출(전문업체)”로 이어지는 융·복합형 산업모델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1,180백만원의 수출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또한, 수산부문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3~2014년도 수산부문 도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였으며, 4개 명품수산물에 대한 2013년도 예산편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참여어업인 132명).

2) 지천 100리 금강목장화 사업

“지천 100리 금강목장화” 사업은 금강수계 서식환경조성 및 참게, 다슬기 등을 방류하여 생태체험장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여가활동·삶·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으로 지천 36km(청양 대처~부여 규암)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업비는 총 50억원으로, 1단계(2013년~2014년)로 기본계획 수립 및 서식환경·자원을 조성하고, 2단계(2015년~2017년)로 내수면어업 활성화, 가공식품 개발, 생태체험관 건립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금강 목장화 조성 기본계획수립을 위하여 2013년 도비 5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다.

3) 어업인과 함께 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제한된 수산정책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업인을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시키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운영하고 있다. 2012년 8월, 2013년도 바지락, 굴, 김, 해삼에 대한 수산분야 도민참여예산제를 시범운영하였으며, 2012년 12월과 익년 1월, 2014년 전체 수산정책 예산으로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새로운 정책에 대한 홍보와 어업인의 관심을 고조시켜, 참여어업인이 2012년 114명에서 2013년 324명으로 210명이 증가하였으며, 어업인의 적극적인 의견제시로 현장중심의 정책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9) 3농혁신 홈페이지 「<http://www.chungnam.net/3nongMain.do>」

10) 수산정보포털 「<http://www.fips.go.kr/>」

2. 성과

그동안 청정수산분야의 성과를 꼽으면 양식어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미래산업화**를 도모 하였으며, 1차 산업인 어업과 2차 산업인 가공, 3차 산업인 유통과 관광을 융합하여 **수산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충남의 대표적인 4대 수산물을 선정하고, 도내 생산·유통·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육성 함으로서 특화수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창출했다. 이는 4대 수산물에 대한 생산성과 품질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회·경제적 가치를 부여한 것으로 충남과 4대 수산물의 이미지 결합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김 양식분야에서는 어가 당 소득이 1억원을 초과 달성하는 등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다.¹¹⁾

둘째, 생산, 가공, 유통의 결합을 지향하는 6차산업화 프로세스를 수산분야에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 수산분야에서는 어업에 기반을 둔 1차 산업이 주를 이루었으나, 3농혁신에서는 어업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또는 수출)과 연계한 고차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참굴을 홍콩에 수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셋째, 내수면 어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금강목장화 사업을 통하여 참게, 다슬기 등의 내수면 어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부가적인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 성과라 할 수 있다.

넷째, 양식산업 육성을 통하여 고부가가치의 수산물 생산을 도모하고 있다. 양식은 부족한 어업자원을 보충하여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이 가능하게 하는 미래 수산의 핵심산업이다. 충남은 3농혁신에서 양식어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한 고부가가치 수산물(해삼 등) 생산을 도모하고 있다.

다섯째, 제한된 수산정책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어업인을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시키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였다. 이는 수산정책 예산편성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자긍심을 부여하며, **어업인을 수산정책의 주체로 세우는 역할**을 다하였다.

11) 여기에서의 이미지 결합이란 “충남=4대 수산물”이라는 소비자 인식을 말함.

<표3-9> 청정수산부문 우수사례 1

【충남의 갯벌참굴 홍콩시장으로 수출】
○ 개요
- 융 복합 산업 모델방식 갯벌참굴 시범생산 및 수출
- 어업인 (삼동영어조합법인 186명)이 생산하고, 전문업체에서 가공 수출을 담당하며,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중도입식과 출하 등을 담당하는 형태로 운영
○ 성과
- 2012년 5월2일 갯벌참굴을 홍콩에 첫수출하여 같은 해 6월 말까지 13톤(140천패), 107백만원의 매출을 올림
- 2012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약 81만패를 홍콩에 수출하여 약 10억원의 매출을 올림
○ 향후계획
- 친환경 갯벌참굴 시범 양식단지 확대조성 및 시설 현대화 (‘11년) 10ha →(‘12년) 25ha →(‘13~14년) 50ha

<표3-10> 청정수산부문 우수사례 2

【보령산 「머드바지락」 브랜드 개발 생산 및 판매】
○ 개요
- 보령지역 특색을 살린 고유 브랜드(머드바지락)를 개발하여 맛좋은 미네랄 성분이 다량 함유된 바지락을 생산 판촉(홍보)활동 강화로 어업인 소득증대
- 장소 보령시 오천면 삼시도 어촌계, 면적: 마을어장 2건 89ha, 연간 200톤(약 8억원) 소득
○ 성과
- 도시와 직거래장터 운영(마사회 과천경미장)
- 인터넷·전화판매
-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상설시장에서 매주 월요일에 판매
- 지역특색을 살린 홍보물 제작
○ 향후계획
- 생산량 확대 및 판매처 다변화

3. 과제 및 개선방안

청정수산 분야의 문제점은 3가지로 정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충남수산 4대 명품화”에서 생태관광·체험관광·푸드투어를 포함한 광의적 6차산업화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4대 명품수산물 특화사업은 생산, 가공, 유통을 포괄하여 이미 6차산업화 프로세스를 지향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프로세스 외의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관광자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충산수산 4대명품 수산물의 생태관광 로드맵을 개발하고, 산지를 중심으로 하는 체험관광, 푸드투어를 기획하여 운영할 필요 있다. 또 4대 명품 수산물을 가공하여 고부가가치의 상품으로 개발하고, 효율적인 유통망을 구축하여 판매할 필요 있다.

둘째, “지천 100리 금강목장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지역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충남수산 4대 명품화”는 활발히 진행되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에 반해, “지천 100리 금강목장화” 사업은 아직까지 기획단계에 있다.¹²⁾ 이는 아직까지 정책방향 설정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았으며, 그에 따른 정보가 정책수혜자 또는 지역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금강목장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역주민에게 정보발신하여 지역 내의 합의 또는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셋째, 기본적으로 청정수산 분야는 생산자, 가공업자, 유통업자 등 개인 또는 소규모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업전개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어업은 바다, 갯벌이라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동 어로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산업보다 공동체 형성이 중요하다. 어촌은 집락의 공간적인 개념 외에, 어로활동을 위한 최소의 경제조직단위이므로, 어촌 경제활동의 기본적 단위인 어촌계(또는 그에 상응하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 어촌 공동체별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경제활동을 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 모색되어야 한다.

12) 이는 예산확보와 중앙부처와의 협의에 따른 문제로 사료됨.

제4장 지역식품 유통 사업 분야

【허남혁】

제1절 지역순환식품&학교급식지원 부문

1. 사업개요 및 추진 경과

지난 2011년말부터 지역순환식품 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2013년부터는 산지유통 혁신팀, 학교급식지원팀, 지역순환식품팀의 3개 팀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업단에서는 2011년 회의 1회(12,23), 2012년 회의 2회(3,21, 9,27), 2012년 워크숍 1회(2,1)를 개최하였다.

지역순환식품사업단의 핵심 분야는 크게 학교급식 분야와 로컬푸드 분야로 나뉘어진다. 로컬푸드 분야에서는 우선 2012년말 충남 산지유통체계화 중장기 발전계획(2013-2017)을 수립하고 충남 로컬푸드 활성화 계획 수립중장기 비전을 설정하였다. 또한 농업인직거래장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에는 15개 시군에서 사업이 진행되었고, 올해도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급식 분야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 사업과, 식생활교육 관련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들이 설치되어 운영되거나 설립 준비되고 있으며, 학교텃밭(식생활교육체험장)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 지금까지의 성과

첫째,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있다. 2011년 당진(2011.4)을 시작으로, 2012년 아산(2012.12)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신규로 4개소(천안, 논산, 서천, 청양)가 선정되어 설립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 논의가 2013년 하반기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서, 현재 센터 운영위원회 결성이 임박해 있다.

둘째, 학교급식 추진 업무가 일원화되었다. 2011년 10월 27일자로 종전 2개 부서에서 별도로 추진하던 것을 농정부서로 일원화하고, 이 업무를 별도의 부서(로컬푸드 학교급식 담당)를

신설하여 일관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셋째,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2012.4.10)함으로써, 친환경 무상급식의 제도적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넷째, 국제·국내 로컬푸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2012.9.7. 아산). 일본, 미국, 이탈리아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고, 충남의 로컬푸드 관련 전문가, 활동가, 농민, 시민 등을 중심으로 8개 세션을 구성하여 국내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해외의 모범 정책사례들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전국적으로 충남의 여러 로컬푸드 사례들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다섯째, 식생활교육체험장(학교텃밭) 사업을 진행하였다. 충남의 16개 학교를 대상으로 텃밭을 조성하고 농-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식생활교육충남네트워크가 위탁사업으로 진행하였는데, 충남도-네트워크-16개 학교가 협약서를 체결하고 진행함으로써 민관협력사업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내었다.

3. 과제와 개선방안

1) 목표 설정

첫째, 사업단 구성과 사업내용 선정 시의 혼선이다. 처음에 사업단과 사업내용 선정 시에 유통분야의 중요한 두 축 중 한 축인 일반유통·산지유통 분야에 대해 별도의 사업단이나 TF를 구성하지 않은 탓에, 지역순환식품사업단 내에서 로컬푸드 유통과 일반유통 사업의 목표와 내용에 혼선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중대농 위주로 추진되어야 할 일반유통·산지유통 사업과 중소농 고품농과 소비자 위주로 추진되어야 할 로컬푸드 사업 간에 사업대상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못했다.

또한 농정과에 유통계가 있긴 하지만 실제 품목별 유통 관련 업무가 농산과에 많이 흩어져 있다는 문제점(쌀, 원예작물 브랜드사업 등)이 부각되었고, 그에 따라 사업단의 소관부서가 애매해진 문제, 유통분야의 소관이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 부분은 2013년이 되어서야 사업단 내에 산지유통혁신팀을 구성하고 산지유통 관련 사업들을 별도로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해소되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향후에도 산지유통 영역과 로컬푸드 영역 간의 사업 특성 및 사업대상의 차별성을 확실히 인지하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업단 구성시 비전 설정과정에서 비전에 대한 충분한 공유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3농혁신은 중앙집중적, 관행농, 대량생산 대량유통 농정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의식 하에서의 농정 패러다임 전환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지역순환식품 사업단의 경우에는 더욱더 현재 유통문제에 대한 대안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참여 구성원과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비전 공유와 교육의 절차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미흡했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여전히 로컬푸드 분야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셋째, 학교급식과 로컬푸드 분야는 처음부터 기존 농정 라인이 아니라 별도의 TF조직으로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왜냐하면 이는 생산, 유통, 소비 전반을 포괄하는 이슈이며, 또한 농업 분야를 넘어서는 이슈이기 때문에 교육, 소비 관련 부서와의 협조 및 공동실행이 애초부터 필요한 사안이었다는 점 때문이다. 이 점은 향후 추진 과정에서, 농정 분야를 넘어서는 부서간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2) 논의 절차

첫째, 3농혁신 사업단의 성격에 대한 민과 관 사이의 이해의 차이가 나타났다. 과연 지역순환식품사업단은 단순한 자문기구인가, 아니면 실제 정책내용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심의기구인가 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사업단에 집행과 모니터링의 권한이 있는가의 여부를 놓고 논의/결정단계와 집행단계의 괴리가 발생했으며, 집행권한이 없는 TF의 문제에 대해 지적되었다. 이 점은 TF 회의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2013년 하반기 들어 점차 회의의 빈도가 늘어나고 회의의 내용 역시 사후보고가 아니라 심의에 관한 내용이 늘어나면서 조금씩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점차 TF에 좀 더 심의와 의결의 기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학교급식지원센터 사업 추진시 사업단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이다.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선정과정시(2012년 4개소)에 지역순환식품사업단이 어떠한 논의(선정기준)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사후보고(선정결과)도 받지 못함으로써, 사업단이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심의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센터 선정 심의기구와 사업단을 일체화하여 운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점 역시, 2013년 하반기부터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논의가 본격적

으로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을 기존의 센터 선정 심의기구와 연동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어서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성격과 광역센터 추진을 둘러싼 토론과 이를 통한 갈등 해소 가 여전히 미흡했던 탓에, 지역순환식품사업단에서는 민과 관 간의 상호이해와 협조관계(거버넌스)가 한때는 거의 붕괴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평가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에 대해 협의가 다시 재개되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거버넌스가 조금씩 회복되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3) 사업 내용

첫째, 중간지원조직의 미비로 인한 사업 추진과 모니터링에서의 문제점이다. 즉, 학교급식 분야와 로컬푸드 분야에서 적절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고 활용하지 못했다는 문제이다. 다시 말해 학교급식의 경우 충남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추진단)를 제대로 설립 운영하지 못했고, 로컬푸드의 경우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회적경제 분야와 비교가능한 부분이다. 향후에 이 점은 충남지역의 직관활동(농업인 직거래장터,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컨설팅 체계가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를 중심으로 갖추어지게 된다면 조금씩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사업에서의 문제점이다. 3농혁신의 성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당진 학교급식지원센터이지만, 엄밀히 말해 당진 센터는 3농혁신 이전부터 추진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3농혁신의 성과물로 보기 어렵다. 당진 센터와 이 모델을 근거로 만들어진 아산 센터의 경우 과연 친환경 로컬푸드 식재료 공급이라는 당초의 목표를 투입 대비 효과적으로 달성했는가의 여부에 있어서 지역 내(충남, 당진, 아산)에서 이견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 점은 향후 당진과 아산 센터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토론과정을 거쳐서 지역사회에서 반드시 평가하고 넘어가야 할 점이다. 이를 통해 향후 추진될 타 시군 급식센터의 설치과정에서도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셋째, 광역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둘러싼 갈등이다. 애초에 민간 진영에서는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도 차원의 학교급식 개선계획과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는

광역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위한 광역 센터의 시급한 설치를 주장해왔고, 도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주장을 수용하였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도에서는 광역 학교급식지원체계의 구축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어 사용하면서, 올해 초 들어 이 사업을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사용하는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자를 공모하는 사업으로 대체하였다. 다행히 2013년 하반기 들어 광역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쪽으로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어 현재 센터 사무국과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향후 사업내용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광역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통해 그간 학교급식 영역에서 충남에서 이루어온 성과와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관장하게 될 것이다.

넷째, 학교텃밭 조성사업(식생활교육체험장 조성사업)에서의 문제점이다. 이 사업은 지역 순환식품사업단 소속 사업이지만, 실제 집행은 식품산업계(6차산업화)에서 담당함으로써 기획과 집행 간의 괴리라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지만 행정 쪽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올해는 식생활교육충남 네트워크의 관여 없이 행정 쪽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즉, 사업비만 학교에 교부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문제이다. 예산집행과 정산 문제를 둘러싼 갈등, 그리고 2012년 음식인문학 사업을 둘러싼 갈등 등으로 인해 식생활교육 분야에서 민과 관과의 신뢰관계가 지금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향후 식생활교육 분야의 민관 거버넌스와 신뢰관계의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다.

제5장 행복마을 사업 분야

[조영제]

제1절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부문

1. 사업개요 및 추진 경과

1)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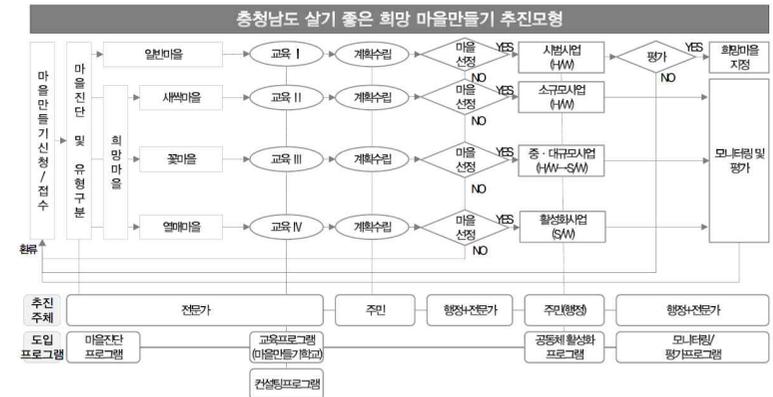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는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스스로 이루어 나가는 희망 농어촌 마을”을 미래 비전으로, ‘살기 좋은 정주여건’, ‘지속가능한 생산·경제활동’, ‘수준 높은 문화·여가생활’이라는 3대 상위 목표와 9가지의 하위 목표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림 5-1>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의 비전과 목표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의 추진모형은 마을의 역량별 유형구분에 의한 맞춤형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도록 한다는 전제하에 마을의 유형을 크게 ‘일반마을’과 ‘희망마을’로 구분하고,

‘희망마을’을 기존 사업추진 경험의 유·무, 마을의 역량정도에 따라 다시 ‘새싹마을’, ‘꽃마을’, ‘열매마을’로 구분하여 역량별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도록 하는 모형을 구축하였다. 마을만들기는 ① 마을만들기 신청/접수 → ② 마을진단 및 유형구분 → ③ 유형별 마을만들기 추진(주민교육 → 계획수립 → 사업 대상마을 선정 → 사업추진) → ④ 모니터링 및 평가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는 큰 틀을 갖고 있다.



<그림 13-2>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의 추진모형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 먼저 ‘일반마을’은 새로운 리더육성 및 주민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담은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우수마을을 대상으로 1개 단위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희망마을 중 새싹마을과 꽃마을은 각각 소규모 사업과 중·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소규모 및 중·대규모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열매마을은 지역활성화 계획을 통하여 부존자원 및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S/W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는 일반마을은 지방비, 새싹마을과 꽃마을은 소규모 및 중·대규모 국비, 열매마을은 지방비와 자부담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체계를 갖고 있으며, 201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일반마을을 중심으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우수마을에 대해 소정의 상사업비를 지

원하고 있으며, 희망마을은 기존의 마을만들기 관련사업과 융복합화 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일반마을	희망마을		
		새싹마을	꽃마을	열매마을
주민교육	리더육성 및 주민 동기부여	소규모 사업추진 역량 및 컨설팅	중·대규모 사업추진 역량 및 컨설팅	지역 활성화 역량 및 컨설팅
계획수립	마을발전계획	소규모 사업계획	중·대규모 사업계획	지역 활성화 계획
사업추진	1개 단위사업 (H/W)	소규모 사업 (H/W)	중·대규모 사업 (H/W+S/W)	지역활성화사업 (S/W)
사업비	지방비	소규모 국비	중·대규모 국비	지방비 + 자부담

<그림 5-3>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의 사업내용

2) 주요 추진경과

- 2011년
 -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기본구상 마련(충남발전연구원)
- 2012년
 - 마을 자원조사 및 D/B 구축 : 4,279개 마을
 - 일반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발전계획 수립 : 258개 마을
 - 마을학교 운영 : 516명 주민교육 및 리더육성
 - 마을발전계획 우수마을 상사업비(6개 마을, 4.1억 원), 선행사업(30개 마을, 6억 원) 지원
 -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
- 2013년(예정)
 - 마을발전계획 수립 : 250개 마을
 - 마을학교 운영 : 500명 주민 및 리더 교육
 -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개정 : 하반기 예정

<표 5-1>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의 주요 추진 경위

일정	주요 경과	구체적 내용
2010년 10월 20일	충남도민 정상회의	- 10대 핵심과제 선정(충남형 희망 농어촌만들기)
12월 14일	추진단 구성	- '희망농어촌마을만들기 추진단' 구성
2011년 1월 20일	토론회	- 정무부차사 주재 추진방안 토론회
2월 7일	기획위원회 워크숍	- '살기 좋은마을만들기' 기획위원회 조직 및 회의 개최 - 마을만들기 예산편성안 및 추진절차 협의
2월 18일	기획위원회 워크숍	- 충남 미술공공체 현황과 정책과제 - 충남 농촌개발사업 실행 및 살기 좋은마을 만들기 과제 - 살기 좋은지역만들기 '홍동지역협력소' 상공 시제
2월 25일	충남발전연구원 마을만들기 연구 착수	- '희망 농어촌마을 만들기'의 성공적인 추진모델과 추진체계 연구착수
4월 20일	자문위원회 워크숍	- '살기 좋은지역만들기' 자문위원회 워크숍 개최 - 지역만들기 추진체계 및 추진계획 등 협의
5월 6일	마을만들기 T/F 회의	-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내용 및 지침 협의 - 마을만들기 T/F 운영방안 협의
5월 19일	마을만들기 T/F 회의	- 희망 농어촌마을 만들기 예비사업 시행지침 협의 -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정책구도 협의
7월 12일	부지사님 보고	- 충남형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안) 부지사 보고(충남연) - 2011년 사업사업(안) 논의
7월 19일	토론회	- 살기 좋은마을만들기팀 토론회 개최 - 살기 좋은마을만들기팀 주요과제 점검 및 방향 설정
8월 31일	마을자원조사 계획	- 마을만들기 관련 마을자원조사표 및 자원조사 가이드라인 작성(충남연)
9월 21일	마을 만들기 추진계획(안) 지사님 보고	-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추진배경 및 목적 - 사업추진 방향과 방법 - 2011년 추진계획 및 향후 계획 등 보고
10월 18일	충남발전연구원 마을만들기 최종안 확정	- '희망 농어촌마을 만들기'의 성공적인 추진모델과 추진체계 연구완료 및 결과 제시
12월 13일 ~27일	시군 순회 설명회	-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순회 설명회 개최 - 13일 : 예산 태안 서산 당진 아산 천안 - 22일 : 홍성 청양 보령 서천 부여 - 27일 : 연기 공주 논산 금산 계룡

<표 5-1>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의 주요 추진 경위(계속)

일정	주요 경과	구체적 내용
2012년 2월 29일	추진단 회의	- 마을만들기 추진계획 및 추진방안 협의 - 마을발전계획 수립 대상마을 선정 및 가이드라인 협의
3월 7일	추진단 회의	- 마을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마련
3월 16일	추진단 회의	- 마을만들기 대상마을 선정기준 마련
4월 20일	시군 공무원 직무교육	-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시군담당자 직무교육
5월 1일	마을학교 운영계획 시달	- 마을학교 운영계획(카리큘럼 등) 수립 시달
6월 12일	추진상황 보고회	- 2012년 상반기 '3농혁신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7월 6일	관계기관 및 추진단 간담회	- 마을만들기 관계기관 간 간담회 개최 -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안) 논의 - 마을발전계획 수립 평가지표 논의
7월 18일	추진상황 보고회	- 인센티브 제공, 마을리더 육성 등의 필요성 보고 - 중간조치 및 시군참여 활성화 필요성 보고
7월 25일	토론회	- 융복합 추진방안 토론(12개 실과 23개 단위사업)
8월 13일	관계기관 및 추진단 간담회	- 추진단과 관계기관 간 간담회 개최
11월 22일 ~ 23일	3농혁신대학	- 3농혁신대학 마을만들기 지도자 과정 개최
11월 28일	추진단 회의	- 2013년 마을만들기 추진계획 논의 - 우수마을 선정 협의
12월 28일	3농혁신 간담회	- 2012년 추진상황 및 2013년 추진계획 점검
2013년 1월 25~26일	3농혁신 합동 워크숍	- 3농혁신 기본계획 마련 및 협의
2월 20일	'13년 대상마을 선정	- 2013년 마을발전계획 수립 대상마을 선정
2월 26일	마을학교 운영계획 시달	- 마을학교 운영계획(카리큘럼 등) 시달
3월 14일	협력부서 T/F 연찬회	- 마을만들기 협력부서간 융복합 추진방안 협의 (13개 실과 30개 대상사업)
4월 8일	추진상황 보고회	- 2013년 마을발전계획 및 마을만들기 추진계획 보고
5월 14일	희망마을 만들기팀 간담회	- 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포럼, 산행사업 추진계획 협의 - 마을만들기 대회 추진계획 및 모·야영 계획 협의 -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센터 설치운영 방안 논의
6월 13일	총발연 전략과제 토론회	- 마을만들기 성과 및 문제점 토론 - 향후 개선방안 도출
8월 22일	희망마을 만들기팀 간담회	- 마을만들기 문제점 및 2014년도 계획 - 3농혁신대학 운영계획
9월 25일 ~ 26일	3농혁신대학	- 마을만들기 문제점 및 향후 과제 도출 - 우수사례 발표

2. 지금까지의 성과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이하 마을만들기)는 3농혁신정책들이 결국 마을만들기로 귀결되는 가장 범용적이고 핵심적인 시책으로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만들기는 충남도 차원에서 직접 추진하고 충남의 실정에 맞는 최초의 농어촌 지역개발시책이다. 최근까지의 농어촌지역개발사업들에서 나타났던 유사사업의 중복추진, 중장기적인 비전·전략 부재, 체계적인 추진체계 부재 등의 수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적은 예산으로 성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마을만들기는 타 시군에 비해서는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충남도 및 시·군 차원에서는 새로운 시도이며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둘째,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의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까지 상향식 개발사업을 표명하던 많은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하향식으로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 및 학습을 통하여 인지하게 되었다. 향후 전반적으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의 역할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인지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셋째, 주민주도의 내발적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마을만들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자치의 실현'이다. 이를 위하여 마을만들기는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자원을 바탕으로 테마를 설정하고 마을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직접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마을과 주민의 잠재력 및 추진역량을 스스로 진단하고 역량강화를 통하여 직접적인 사업 추진과 사업추진 후 운영·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넷째, 농어촌지역의 소외되었던 마을에 마을발전에 대한 동기부여와 희망을 갖게 하였다. 2012년부터 추진된 일반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통하여 당초 우려와는 달리 상당히 많은 마을의 주민들이 마을발전에 대한 동기부여와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자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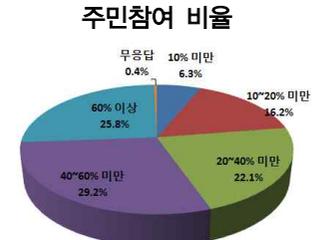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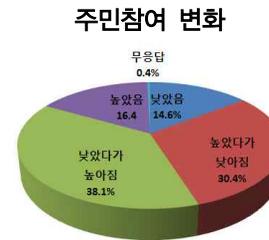
의지가 형성되었다. 일반마을은 대부분 농어촌지역개발사업으로부터 소외되었고 마을의 고령과 과소화로 인하여 침체되고 마을발전에 대한 희망조차 갖지 못하였던 마을이었음을 감안할 때 마을만들기의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다섯째,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리더육성 및 주민교육을 실시하였다. 마을발전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마을학교'를 운영하여 2012년에 258개 마을, 516명의 리더와 다수의 마을 주민들의 교육이 운영되었고 2013년에는 250개 마을, 500명의 리더 및 다수의 마을주민들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결과, 교육·학습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전반적으로 호응도 및 교육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그동안 성장하지 못하고 침체된 일반마을이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충남도의 균형발전에 상당히 많은 공헌을 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교육 및 마을만들기 추진으로 충청남도 농어촌지역의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판단된다.

※ 2012년도 마을발전계획 수립 관련 주민의식조사 결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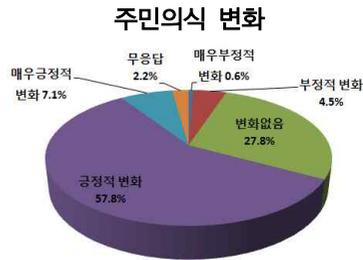
1) 주민참여

- 마을발전계획 수립 과정상에서 주민의 참여도는 처음에는 낮았다가 높아졌다는 비율이 38.1%로 가장 높았으나, 반면 처음에는 높았으나 점차 낮아졌다는 비율도 30.4%로 높게 나타남
- 처음부터 끝까지 높았던 마을은 16.4%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낮았다는 마을도 14.6%로 나타남
- 주민참여 비율은 60%이상의 주민참여를 보였던 마을이 25.8%, 40 ~ 60% 미만의 비율은 29.2%, 20~ 40% 미만의 비율은 22.1%로 나타났으며, 주민참여 비율이 10% 미만이었던 마을도 6.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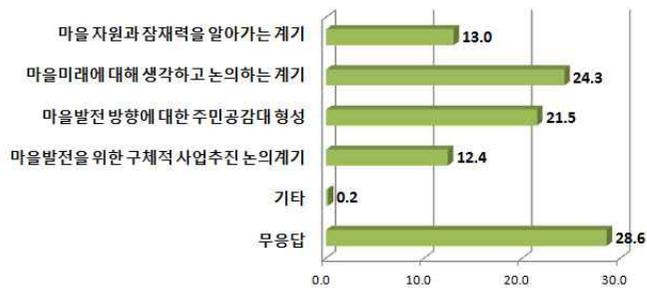
2) 마을주민 의식 변화

- 마을발전계획 수립 전·후를 비교할 때 마을주민들의 의식의 변화정도를 살펴보면, 전체의 64.9%의 주민이 긍정적 또는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응답하였고, 27.8%는 변화가 없다고 응답함
- 반면, 부정적 또는 매우 부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응답은 전체의 5.1%로 비교적 낮게 나타남



3) 긍정적 변화 내용

0 마을발전계획 수립 전에 비해 수립 후 긍정적으로 변화된 내용으로는 ① 마을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주민들 간에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됨(24.3%), ② 마을발전 방향에 대한 주민들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게 됨(21.5%), ③ 마을의 자원과 잠재력을 신중히 생각하고 알아가는 계기가 됨(1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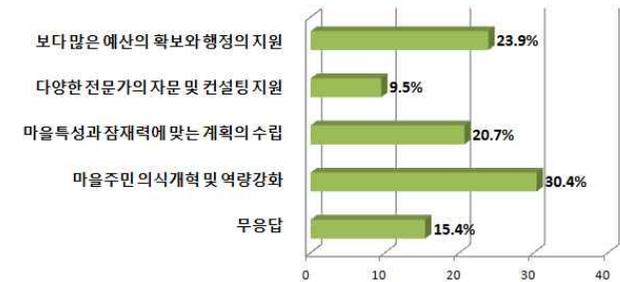
4) 부정적 변화 내용

0 마을발전계획 수립 전에 비해 수립 후 긍정적으로 변화된 내용으로는 ① 노력에 비해 성과(우수마을 선정, 후속 사업지원 등)가 없음에 대한 실망감(32.3%), ② 마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시간을 낭비한 것 같은 후회(29.0%), ③ 마을발전 전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 및 참여부족으로 인한 좌절감(19.35%) 등의 순으로 나타남



5) 마을만들기 과제

0 향후 성공적인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추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제로는 우선 마을의 리더육성 및 주민교육 등을 통한 마을주민의 의식개혁 및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30.4%)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보다 많은 예산의 확보와 행정의 지원(23.9%), 마을특성과 잠재력에 맞는 마을발전계획 및 사업계획의 수립(20.7%) 등의 순서로 의견을 보임



13) 충남발전연구원 2013년도 현안과제로 수행한 내용을 인용함

3. 과제와 개선방안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이하 마을만들기)는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대상마을 선정방식 개선 및 추진체계의 점검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는 향후 추진체계 점검이 필요하다. 마을만들기의 대상마을은 크게 일반마을과 희망마을로 구분하고, 희망마을은 다시 새싹마을, 열매마을, 꽃마을로 구분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마을만들기는 주로 일반마을에 집중되어 있고, 희망마을에 대해서는 다양한 융복합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보다 명확한 추진체계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즉, 새싹·꽃·열매마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열매마을은 기존에 중·대형 사업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한 마을로 컨설팅·자문 등 S/W사업 추진으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였으나,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역시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일반마을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을발전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대상마을 선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즉, 당초 정해진 개수에 억지로 맞춰 대상마을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인해 주민의 의지보다는 행정이 강제적으로 대상마을을 선정하는 사례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중도에 포기하는 마을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향후, 정해진 대상마을 개수를 달성하려는 형태보다는 사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마을의 필요에 의해 마을발전계획 수립에 지원하는 형태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2014년에 추진될 대상마을을 2013년 연말에 주민설명회를 통해 신청을 받고, 2014년 1월부터 바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이는 봄 및 가을의 농번기를 피해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대상마을의 개수가 줄어들 경우, 희망마을(새싹마을, 꽃마을, 열매마을) 중에서 신청을 받아 컨설팅(또는 예비계획수립)을 지원해 주어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를 일반마을 뿐만 아니라 전체유형의 마을로 확대시켜야 한다.

② 융복합화 및 거버넌스 방안 확충

희망마을 육성을 위한 융복합화 및 거버넌스 방안 확충이 필요하다. 일반마을 이외의 희망

마을(새싹·꽃·열매마을)을 육성하기 위한 기존사업과의 연계 및 통합 추진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충남도에서는 13개 실과 30개 단위사업에 대한 융복합 추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추진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유도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것인지, 그리고 3농혁신정책 내에서 관련된 체험관광, 리더육성, 귀농귀촌 등의 사업과 어떻게 연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예로, 2012년도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한 258개 마을 중 50% 이상의 마을이 농촌체험마을 등 도농교류를 희망하고 있어 이러한 마을을 도농교류사업단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색깔있는 마을' 등 농식품부의 연계가능한 사업중 연계하기 쉬운 사업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도 및 시군의 관련실과를 중심으로 업무협약 등의 방식을 도입하여 융복합 추진을 촉진하여야 한다. 특히, 포괄보조사업 대상지 선정에 있어 마을만들기 추진의 경험이 있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에 마을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마을은 마을진단 및 역량분석을 통하여 희망마을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마을만들기에 참여하고 마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한다.

③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취지 고수

일반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발전계획 수립이 당초 우려와는 달리 의외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몇몇 시군의 경우 아직도 참여 컨설팅업체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주민이 작성하는 마을발전계획이 아닌 외부역량이 작성하는 사업계획서가 되어버리는 문제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희망마을의 경우도 주민역량 및 의사와 관련 없는 기존의 사업추진방식을 아직도 채택하고 있어 마을만들기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주도의 상향식 방식'의 취지를 반드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부 시군에서는 '마을발전계획서' 보다는 '예비계획서 수준의 사업계획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마을발전계획서'의 작성은 사업계획이 아닌 마을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주민 스스로 작성하는 원칙을 고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싹마을, 꽃마을에 대해서 요구가 있을 경우, 마을발전계획 작성과는 별도로 예비계획서를 작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라는 취지는 반드시 고수하여야 한다.

④ 시·군의 참여 확대

마을만들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 및 주도적인 추진이 필요하나 아직까지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마을만들기의 취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시군이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마을만들기 일환으로 육성되는 일반마을 및 희망마을에 대해 어떠한 사업을 적용하여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시·군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마을만들기는 도 차원 보다는 시·군 차원에서 적용할 경우 보다 더 많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중요한 모형으로 이 점에 대한 시군의 자각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매년 신규사업을 발굴해야 할 포괄보조사업(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전혀 다른 대상지를 발굴·육성하기 보다는 마을만들기를 통해 차근차근 육성해 나가는 방식을 도입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충남도의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를 각각의 시·군에 접목하여 시·군 차원의 마을만들기를 육성해 나간다면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전북 진안군, 완주군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도록 한다.

⑤ 관련 주체의 역할 재정립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일련의 사업 및 행사 등에 대해 담당주체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즉, 마을발전계획은 주민이 직접 수립하는데, 컨설팅업체와 공무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에 있어 도와 시·군의 역할은 무엇이고 시·군의 자율성을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예로, 마을만들기 포럼운영을 대다수의 시군에서 컨설팅업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떠넘기고 있는데, 당초는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참여전문가 및 유관기관이 실제 마을만들기 추진에 어떠한 자격으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인가 등도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희망마을만들기팀'의 역할도 단순 자문기구의 역할만을 수행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자문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등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나씩 하나씩 보완·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할 점은 현재는 상당한 부분을 행정이 유도하고 끌고 나가고 있지만 향후 마을만들기의 기획·유도의 주체가 행정에서 민간으로 반드시 이관되어야 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민간 영역의 참여확대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내발적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역할정립이 필요하다.

⑥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성격과 기능

마을만들기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중간지원조직(지원센터)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012년 마을만들기 조례제정으로 인해 올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하반기에 구성될 예정이나 센터의 성격 및 기능에 대해 논의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중앙정부(농식품부, 안행부 등)에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움직임이 있어 향후 사업방향과 국비지원 등의 여부를 반영하여 2014년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

향후, 실제적으로 충남도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범위와 명확한 기능, 그리고 실제 운영가능한 형태 및 주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운영되어야 한다. 특히, 색깔있는 마을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충남농촌활성화센터' 등과의 역할정립 및 연계 또는 활용을 염두에 두어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도 단위의 중간지원센터의 설치와 함께 반드시 시군 단위의 중간지원센터 설치도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하고, 이는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추진의 핵심적 내용이라 할 수 있다.

⑦ 지속가능한 추진기반의 마련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는 다양한 3농혁신정책 중에서 가장 실질적인 성과와 결실을 맺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며, 또한 이러한 성과를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의 정권교체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추진될 수 있는 기반마련이 필요하다. 즉,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여론조성 등이 필요하며, 향후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마련과 이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향후 마을만들기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각종 민간부문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건전하게, 그리고 실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서는 민간투자를 효율적으로 유치 및 관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시군단위별로 (가칭)마을만들기 희망펀드를 설립·운영해야 할 것이다. 기존 마을만들기의 경우 실질적인 민간투자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마을만들기 사업에 민간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제 시군별 마을만들기 희망펀드에 민간투자가 이루어진 이후에 사업이 집행되는 투명한 구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는 마을만들기에 민간투자를 제도적으로 유인한다는 측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을만들기 투자가 이루어지게끔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제2절 두레기업 육성 부문

【권오성】

1. 사업개요 및 추진 경과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에 대한 계획적인 육성관리를 통하여 6차산업화를 촉진하고, 농어촌 산업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레기업 육성사업”은 중점추진시책으로 농어촌 마을기업 창업 및 육성, 6차산업화 전략자문단 및 포럼운영, 농식품·향토자원문화디자인사업, 전통주 및 발효식품육성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표 5-2> 중점시책의 개요

사업명	사업내용
농어업6차산업화 마을기업육성 (두레기업육성)	1) 2012년 농어촌6차산업화마을기업육성사업 -총사업비 : 10.5억원(도비 3.15, 시군비 7.35) (마을당 1.5~2.5억원) -사업대상 : 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등 이미 법인화가 되어있는 마을 또는 법인화계획이 있는 마을 2) 2013년도 6차산업화 두레기업 창업 및 육성사업 -총사업비 : 104억원(국50%,시군30%,자20%) 가) 두레기업 창업 및 육성 ① 소규모 마을기업 창업 ○사 업 비 : 18억원(마을당 10억원 이하) ○사업대상 : 마을단위에서 농어업을 기반으로 영리법인을 설립하고 6차산업화를 이루려는 사업단 또는 마을간 연계를 통해 법인화 계획이 있는 사업단 ② 자립화마을기업육성 ○사 업 비 : 36억원(마을당 10억원~25억원 이하) ○사업대상 : 소규모마을 기준요건을 갖춘 농어업법인으로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사업단 나) 지역우량기업 육성 ① 기업조합육성 ○사 업 비 : 30억원(1개 사업단에 10억원 이하) ○사업대상 : 읍면단위 3개 이상기업이 새로운 영리법인을 구성하고 신상품개발 및 시장개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 ② 농식품 우량기업육성 ○사 업 비 : 20억원(업체당 5억원 이하) ○사업대상 : 전년도 결산서 기준 매출 3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HACCP 등 기업시설고도화를 희망하는 농식품 대기업

〈표 5-2〉 중점시책의 개요(계속)

사업명	사업내용
6차산업전략자문단 및 포럼운영	1) 6차산업화전략자문단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위촉 -모니터링 및 컨설팅, 도정 자문 등 2) 6차산업화포럼 -6차산업화 리더역량강화 및 정보교류 -선진사례 견학
농식품 향토산업 문화디자인 사업	○ 총사업비 : 13.5억원(개소당 2천만원 이내) ○ 사업대상 : 도내 농식품(장류, 전통주류, 농식품 등) 관련 자체브랜드를 보유한 시군, 법인, 단체 등 ○ 사업내용 : 웹툰, CI, BI, CI를 이용한 광고 리플렛, 포장 디자인 용기, 박스 디자인 등
전통주 및 발효식품 육성	○ 총사업비 : 1억원(개소당 1억~2억원 이내) ○ 사업대상 : 도내 전통장류, 전통주류, 농식품기업 ○ 사업내용 : 공장 증개축, 생산설비 등

※자료출처 :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두레기업육성사업은 당초 「지역순환식품사업단」 「농어업6차산업화팀」으로 학교급식을 통한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사업과 함께 지역 내에서 생산과 가공 및 소비촉진을 이루는 성공적인 6차 산업모델 및 농산업 비즈니스모델 구축을 위한 마을기업의 창업 및 육성을 촉진할 계획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도비와 시군 비로만으로 추진하였던 2012년 농어업6차산업화 마을기업 창업 지원 사업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2012년 초부터 “충청남도 농어업6차산업화 확대발전계획¹⁴⁾”을 수립하여 道가 주도하는 농어촌복합산업화사업¹⁵⁾계획을 농식품부로부터 승인받아 광특 501억 원을 포함 총 1,00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2015년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 12개소 구축에 300억 원과 농어업6차산업화 마을기업(두레기업) 창업 및 육성과 지역 단위 우량기업 73개소 육성에 70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지역순환식품체계구축사업”과 농어업6차산업화 사업을 융·복합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를 목표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2013년 1월 3농혁신 워크숍¹⁶⁾에서 3농혁신 추진체계를 3단 8 TF팀에서, 5단 16

14)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2차-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지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
15) 정부가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발전을 지원하고,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설치한 특별회계
16) 2013년도 3농혁신 핵심사업 선정과 추진체계 재정비 등 현안과제 및 발전방안 토론회 (2013년 1월 25일~26일)

개 팀으로 개편함에 따라 “행복마을사업단”으로 재편 되었다. 사업(팀)의 명칭도 타 부처의 마을기업 사업과 명칭이 혼돈됨에 따라 두레기업육성사업(팀)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농어촌 6차산업화 두레기업 육성 및 창업사업”을 팀의 2013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업단 재편으로 “희망마을만들기, 도농상생복합단지사업조성, 마을리모델링, 농어촌복지” 사업과 융·복합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표 5-3〉 중점시책별 추진경과

중점시책	주요 내용 및 경과
농어업6차산업화 마을기업육성 (두레기업육성)	○ ‘12년 3월 : 농어촌복합산업화지원(광특) 예산확보 추진 ○ ‘12년 8월 : 농어업6차산업화 추진계획수립 및 공모 -선정결과 : 6개 마을 선정 ○ ‘12년 9월 : 농어업 6차산업화 확대(두레기업육성)을 위한 사업비 광특 501억원 등 1,001억원 확보 ○ ‘12년 9월 : 농어업 6차산업화 확대발전계획 방침 결정 -충남형 6차산업화 지원 사업 모델 마련(제시(2개분야 4개유형)) ○ 2013년 농어업 6차산업화 마을기업 창업 및 육성지원 공모 및 선정 - ‘12년 9월 : 1차 공모(3개소 선정) - ‘12년 12월 : 2차 재공모(3개소 선정) - ‘13년 4월 : 3차 재공모(3개소 선정) - ‘13년 6월 : 4차 재공모(1개소 선정)
6차산업화 전략자문단 및 포럼운영	○ 6차산업화전략자문단 -‘12년 4월 : 자문위원 위촉(15명) -‘12년 4월~11월 : 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 추진 -‘12년 ○ 6차산업화포럼 -포럼회원 : 45명 -포럼횟수 : 6회
농식품 향토산업 문화디자인 사업	○ 2012년 농식품문화디자인사업 -‘12년 3월 : 공모 및 평가 -추진결과 : 5개소 선정
전통주 및 발효식품 육성	○ 2013년 전통주 및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 -‘12년 10월 : 공모 및 평가 -추진결과 : 4개소 선정

2. 지금까지의 성과

첫째, 마을의 일부 주민과 리더 등 공동체중심에서 기업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춘 농식품가공 산업 주도의 6차산업화 모델 제시는 물론 시범사업을 통해 발전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차(가공)산업중심으로 1차(농업)와 3차(유통·체험)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간 융복합화 지원 사업을 3농혁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자립형 마을기업 6개소를 선정하여 농업의 생산·가공·유통 및 서비스가 융복합된 6차 산업 마을로 육성하고 있다.

< 우수사례 1. >

【 농업의 생산·가공·유통 및 서비스 융복합 6차산업 마을기업 발굴 육성 】

- 2012년 6차산업화마을기업 창업 및 육성 시범사업
 - 총사업비 : 10.5억원
 - 마을기업 창업 : 6개소
 - 매현마을(금산군), 바리실마을(금산군), 봉하마을(서천군), 갈두천마을(태안군)
 - 동달이영농조합법인(보령시), 자연애밤토랑마을

둘째, 농업과 문화의 융복합화 추진을 들 수 있다. 도내 농식품 관련 자체브랜드를 보유한 5개소를 선정하여 각각의 농식품자원과 문화콘텐츠를 융복합한 스토리텔링, 만화, 캐릭터개발 등을 지원하여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고 대내외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우수사례 2. >

【 농식품자원과 문화콘텐츠 융복합으로 브랜드가치 제고 】

- 2012년 농식품·향토자원 문화디자인사업
 - 총사업비 : 13.5억원
 - 추진결과 : 5개소
 - 천안 천안농축산, 서산 두루맛 부여 소부리영농조합법인, 청양 아리랑주조, 홍성 백제물산

셋째, 충남도가 주도하는 충남형 복합산업화 모델 제시로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등 확고한 사업추진기반 마련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도비와 시군비로만 추진했던 “2012년 농어업6차산업화 마을기업 창업 지원 사업”을 확대발전시킬 목적으로 충남농어업 6차산업화 확대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충남도가 주도하는 “농어촌복합산업화사업” 모델을 농식품부로부터 승인받아 광특회계 501억을 포함 총 1,00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다. 이 중 701억원을 투자하여 3년간 73개의 두레기업 및 지역단위식품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지역의 농산물 소비촉진은 물론 노인층과 부녀자들의 일자리창출 등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우수사례 3. >

【 농어촌 6차 산업 모델·발굴 육성을 위한 道 주도의 복합산업화 사업비 확보 】

- 道 주도 농어촌복합산업화 사업비 확보 및 6차산업 선도모델 발굴 육성
 - 총사업비 : 1,001억원(광특회계 501억원, 지방비 및 자부담 500억원)
 - 두레기업 육성 사업비 : 701억원(지방비 및 자부담 포함)
 - 사업내용
 - 로컬푸드유통센터 : 12개소
 - 두 레 기 업 : 35개소
 - 우 량 기 업 : 35개소

넷째,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6차산업화 촉진 및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3농혁신 “농어업6차산업화” 지원을 위한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가 충남발전연구원에 설치되었으며, 중점사업으로 “농어업6차산업화 전략자문단 운영과 농어업6차산업화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6차산업화전략자문단”에서는 지역자원의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통해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및 사업의 완성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농어업6차산업화포럼(17)을 통해 45명의 회원을 유통·가공분과와 도농교류분과 등 2개 분과로 나누어 농어업을 기반으로 하는 6차산업화 현장리더로 양성하였다.

17)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의 6차산업화 리더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 우수사례 4. >

【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6차산업화 견인 】

- 6차산업화포럼 및 아카데미 운영
 - 6차산업화 리더육성 : 103명
 - 주요내용 : 6차산업화 자원 및 모델 발굴
- 6차산업화전략자문단
 - 자문위원 풀 구축 : 53명
 - 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 : 97건

다섯째, 사업간 융복합화를 통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6차산업화전략자문단”¹⁸⁾의 모니터링 통한 정보제공, 컨설팅 및 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 등 사업간 융복합 활동을 통해 3농혁신 “살기 좋은 희망마을” 사업을 견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1개의 희망마을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 우수사례 5. >

【 3농혁신 사업간 융복합화 견인 】

- 두레기업 사업 선정 현황
 - 공주 밤툰마을
 - 사업비 : 6.5억
 - 사업내용 : 밤 장류 및 밤 가공상품 생산라인구축, 밤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여섯째, 3농혁신대학 “6차산업화과정”¹⁹⁾을 기반으로 민간중심의 25개 기업 및 사업단으로 구성된 “(사)충남복합산업화협회가 출범되었다. 협회를 중심으로 회원기업의 역량강화는 물론 공동사업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원료구입 등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복합산업화협회와 충청남도 그리고 KBS월드의 MOU체결을 통해 전문적이고 글로벌한

18) 도내의 전문가 53명으로 구성된 6차산업화 정책 및 현장지원단

19) 2012년 9월 14일~15일 청양 칠갑산 자연휴양림에서 도내 마을기업 및 농식품클러스터 사업단 관계자 등 120여명 참석하여 효과적인 6차산업화 추진방안 모색

홍보·마케팅 기반을 형성하였다. 이를 통해 도내 농업 6차산업 현장과 우수 제품에 대한 국내외 홍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교육 및 역량강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 우수사례 6. >

【 복합산업화협회 출범 및 농식품산업 월드 마케팅기반 확보 】

- (사)충남복합산업화협회 출범
 - 출 범 일 : 2013년 3월 21일
 - 회원기업 : 70여명(24개 사업단 및 기업)
 - 주요활동 : 회원 역량강화교육, 공동 홍보마케팅, 공동 원료구입, 공동가공센터운영 등 공동사업 발굴 등
- 충남도, KBS 월드, (사)충남복합산업화협회와 농업 6차산업화 업무협약 체결
 - 일시 : 2013년 6월 21일
 - 내용 : 6차산업화 사업현장과 우수제품 국내·외 홍보, 교육 및 역량강화사업 공동 추진 등

3. 과제와 개선방안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소비증대를 위한 농식품가공 중심의 6차산업화 마을기업 창업을 지원하여 농업의 생산·가공·유통·체험·문화가 융복합된 농어촌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두레기업육성사업은 그동안 70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농업 6차산업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족은 물론 처음으로 추진되는 道주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농어촌현장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과제도 표출되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현장에서 표출되고 있는 과제와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고자한다.

첫째, 사업초기 3농혁신이라는 큰 틀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틀 안에서 사업비 확보에만 급급하다 보니, 일선 시군과 현장의 여건을 반영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문제이다.

이는 사업의 모델이 중심이 된 사업계획이 아닌 충분한 사전조사와 연구를 통해 지역 내 6차산업화 기반조사 등 道 단위 “6차산업화종합추진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져 추진배경과 목적 등 이론적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해 줌으로 시군단위에서 지역의 여건에 맞는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한 대응체계가 마련된 후에 진행되었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농어업의 6차산업화와 사업의 목적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그동안 만연되어온 농어업 보조 사업으로 생각함으로 나타나는 문제이다. 기존의 보조 사업과 같이 특정인만을 위한 사업으로 오해하고 마을주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소득창출 계획이 아닌, 일부의 리더중심으로 만들어진 계획이나, 일부 주민의 숙원사업 중심의 계획들이 제출되고 있어 공모에 참여하는 비율에 비해 선정되는 마을이 적어 재 공모를 질차가 진행되고 있다. '12년 9월 이후 2회에 걸쳐 공모와 선정을 추진하였으나, 6개소 선정에 그쳐 목표치 14개소 대비 4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앞에서 거론한 지역의 문제들이 원인이지만 결과적으로 반복되는 선정절차의 이행이나, 지도감독 등으로 인한 행정력의 부족의 문제를 야기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중심이 되어 두 차례 설명회를 추진하였으나, 시군을 통한 홍보의 한계로 인해 일부 마을에서의 참여와 사업내용을 전달하는 수준으로 진행됨으로 정보의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주민들과의 충분한 공감대형성과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사업설명회는 물론 상담과 컨설팅이 연계되도록 추진되어야한다. 또한 마을단위 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참여마인드가 제고되어야하며, 시군별 예비사업자 선정을 통한 교육과 컨설팅 등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의 홍보, 교육 지원 대상 선정, 모니터링 및 평가를 분야별로 나누어 6차산업화센터와의 연계 또는 위탁추진 방식 도입 등 중간지원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정과 사업비 집행부분과 선정, 평가, 모니터링 등 추진과정 부분을 분리하여 이관이 가능한 업무를 연계 또는 연계 위탁을 통해 분산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부분의 농어촌 마을들이 그러하듯 고령화된 주민들의 출자와 배당에 대한 이해 부족과 마을공동체 붕괴로 상호신뢰기반이 미약하여 마을주민의 50%이상 출자를 통한 자부담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두레기업 창업 및 육성 사업의 자부담 비율은 최대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소규모마을 2억원, 자립화마을 5억원 이상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금액을 고령화된 주민이 대부분인 농촌마을에서 확보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자부담 금액의 25% 범위 내에서 마을출신 출향인사의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지역단위 우량기업육성사업의 경우도 충남의 농식품가공산업의 기반이 미약하여 선정대상의 폭이 매우 협소하다. 대부분의 농식품가공기업들이 영세한 규모와 시설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나,

50%의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지역 농산물소비와 부가가치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차 가공 산업이 중심이 된 모델이다 보니, 마을주민이 출자를 통해 주식회사 형태의 식품기업을 만들고 경영활동을 통한 수익을 창출해야하는 구조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마을 내에 활동하고 있는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함께 참여해 주어야하지만, 마을 주민과 공동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는데 부담감이 팽배하여 참여를 꺼려하고 있는 문제를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령화된 주민이 대다수인 마을에서 쉽게 대응 할 수 있도록 사업의 규모를 조정하여 현실에 맞게 모델 및 규모를 세분화하고, 예비사업 대상 마을 지정을 통한 마을주민이 스스로 논의과정을 통해 사업계획을 작성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기업조합육성 모델은 신규시장 진출을 위한 신제품출시를 목적으로 유사한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3개 이상의 법인기업이 상호출자에 의해 신규법인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새로운 개념의 비즈니스모델로 기업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아이템부족으로 인한 참여가 미진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지금까지 도내 농식품가공기업들 간에 네트워크구축을 위한 노력은 전무한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충남발전연구원 농어업6차산업화센터와 충남복합산업화협회가 중심이 되어 도내 대학, 연구소 등 식품관련 전문기관과 농식품가공기업이 참여하여는 “6차산업화포럼”을 활성화하여 상호연계 및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략자문단의 활동영역을 확대하여 기술이전, 기술지도 등 6차산업코디네이터 역할을 지원할 있도록 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현황들을 종합해볼 때 사업 수행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관리할 수 있는 “사업운영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가동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3절 농어촌 복지 부문

【윤정미】

1.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농어촌 복지는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체계적 추진으로 정책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여 도농간의 공공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농어촌서비스 제고, 농어촌 영향평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서비스 기준은 농어촌서비스 기준의 실태분석 및 이행실태 제고를 위해 연구를 추진하였고, 2013년 충청남도 자체적인 농어촌서비스 지표 개발하고 있다. 농어촌 영향평가는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정책 수혜도의 도농간 격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발굴하여 정책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동안 추진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서비스 기준

- 농식품부의 전국 140개 시군 대상 공공서비스 기준 분석
 - 충청남도의 경우 평가항목 39개 중 목표달성 7, 평균이상 18, 평균이하 12, 기타 2
- 농어촌 사회서비스 확충 TF팀 회의개최(6명, 총발연)
 - 서비스 기준은 농어민이 국민으로서 향유해야할 최소한의 기준으로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무리가 있음
 - 시군별로 필요한 지표를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제시 필요
- 서비스 기준 제고방안 수립 추진 협조
- 중앙부처 차원의 서비스기준 추진계획 협의(농식품부)
 - 향후, 항목별 달성정도를 측정 인센티브 부여 및 지표보완 예정
- 道차원의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전략과제 추진(총발연)
 - 농어촌서비스 기준 실태분석 및 이행촉진방안 연구
 - 기준항목의 시군별 실태 및 특성 분석
 - 시군별 서비스 기준 이행촉진 제고 및 추진방안 제시 등
- 농어촌 서비스 실태 및 만족도 조사(4개 시군 대상)

- 충청남도 차원의 농어촌서비스 지표 개발(진행)
- 충청남도 농어촌지역의 서비스 실태 및 수요조사(15개 시군 대상, 진행)
- 3농혁신 관련 농어촌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제고방안 토론회(2013. 6. 17)
 - 내용 : 농어촌서비스 이행실태 제고방안 설명 및 토론 등
 - 참석자 : 34명(농수산국장, 충남대 권용대교수, 농경연 김광선 박사, 총발연 윤정미 박사, 道 및 시군교육청 관계공무원)
- 농어촌서비스 기준 제고를 위한 시군 순회 설명회 개최(2013. 7.10~11)
 - 내용 : 아산, 서산, 금산, 홍성군 농어촌서비스 이행실태 제고 방안 설명
 - 85명(서비스기준 항목별 담당직원, 시군별 20~25명 내외)

2) 농어촌영향평가

- 2011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추진사업 영향평가 실시 및 개선의견전달(복지보건국)
 - 개선내용 : 종사자수(자원봉사자) 증원을 통한 시간 내 급식 배달서비스
- 2012년 농어촌 영향평가 대상사업 발굴 및 현안과제 추진
 - 이동빨래차 추진사업이 시군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분석
 -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의 도농격차 비교분석
- 2013년 농어촌 영향평가 대상사업 발굴 및 현안과제 추진
 - 취약아동 방과 후 돌봄서비스 운영지원 영향분석(진행)
 - 119 구조 구급서비스 도농격차 비교 분석(진행)

<표 5-4> 농어촌 복지 추진 경과

구분	일정	주요 경과	내용
농어촌 서비스	2012년 2월	농어촌 사회서비스 확충 TF 팀 회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농어촌서비스 기준 마련 논의, 인센티브 부여방안, 시군별 지표 개발 필요성 논의
	2012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제고를 위한 전략과제	농어촌서비스 기준 실태분석 및 이행촉진방안 연구 수행
	2012년	농어촌서비스에 대한 주민 의식조사 및 인터뷰	농어촌서비스실태에 대한 주민만족도 및 의식조사 실시(4개 시군 대상 1000부) 금산군을 대상으로 인터뷰
	2013년	충남형 농어촌서비스 기준안 마련(진행)	현재 설정된 농식품부의 지표와는 별개로 충남형 농어촌서비스 기준 지표 마련
	2013년	충청남도 농어촌지역의 서비스 실태 및 수요조사(진행)	충청남도 15개 농어촌지역의 서비스 실태 및 만족도 분석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2013년 6월	3농혁신 관련 농어촌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제고방안 토론회	농어촌서비스 이행실태 제고방안 설명 및 토론
	2013년 7월	농어촌서비스 기준 제고를 위한 시군 순회 설명회 개최	아산, 서산, 금산, 홍성군 농어촌서비스 이행실태 제고 방안 설명
농어촌 영향 평가	2011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추진사업 영향평가 실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추진사업 영향평가 실시 결과를 토대로 종사자수 증원을 통한 농어촌 서비스 개선
	2012년	이동빨래차 추진사업에 대한 농어촌 영향평가 실시	이동빨래차 추진사업에 따른 도농 격차 비교 분석 및 정책 제언
	2012년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의 도농격차 비교분석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도농격차 비교 분석 및 정책 제언
	2013년	취약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운영지원 영향분석(진행)	도농격차 비교분석 및 정책 제언
	2013년	119 구조 구급서비스 도농격차 비교 분석(진행)	도농격차 비교분석 및 정책 제언

2. 성과

1) 농어촌서비스 기준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고방안 연구 완료

· 농어촌서비스 기준의 성과로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과제가 완료되었으며, 연구 결과의 확산을 위해 시군 순회 워크숍을 추진하였다.

○ 충남형 농어촌서비스 기준(안) 마련 연구 진행

· 전국단위의 농어촌서비스 기준으로는 조사 및 주민만족에 한계가 있기에 세부적인 충남형 농어촌서비스 기준(안)을 마련하여, 향후 충남형 농어촌서비스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공무원들의 공감대 형성

· 농어촌서비스 기준 확산 및 이행제고를 위해 시군 및 본청 관계 공무원들과의 토론회 개최 결과 농어촌서비스 이행 제고방안에 대한 소관별 지표 변경 요구와 다양한 의견제시 등 열띤 토론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농어촌서비스 기준 확산 사례 1. >

【3농혁신 관련 농어촌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제고방안 토론회】

○ 토론회 개요

- 일정 : '13. 6. 17(월)
- 대상 : 충청남도 담당급 및 시군 농정과장
- 내용 : 농어촌서비스 이행실태 제고방안 설명 및 토론 등
- 제안 및 의견 사항

· 면단위 학교가 학생수에 따라 폐지되는 경향이 있어 면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 지역민의 정서를 고려한 폐교결정과 면지역은 최소 1개교 이상 유지가 바람직, 주민자치센터는 도시지역에 맞는 제도로 농촌지역은 비효율적이며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임

· 농촌인력의 고령화로 노인의료는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 응급분야와 같이 시급을 다루는 업무는 현실을 감안한 지표개발 필요

· 농업관련 부서에서 종합적인 농어촌서비스 행정을 추진하기에는 해당되는 일부 항목외에는 매우 비효율, 종합적 기능을 가진 정책실 등에서 다루어야 시안에 따른 예산배분 등이 가능할 것임

· 지표추가 설정이 가능하다면 고령화 문제에 대하여 귀농정책의 체계적인 도입을 추가, 농촌실정에 맞도록 도시민들이 농촌에 대하여 다양한 재능기부 항목 등 필요

· 보건의료와 관련, 지난해 등 연속으로 전국 최고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주민만족도는 낮게 인식되어 주민 체감지원의 지표개발로 평가와 연계될 수 있도록 건의

· 농어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평가지표가 없음(예-친환경 및 체험 마을 운영 등), 이에 대한 지표개발 필요

· 시군의 농정부서가 아닌 핵심부서에서 전담추진이 바람직

· 각 부문별 작성의 정확도에 의구심, 道 및 시군의 관련부서에서 정확히 작성하고 대응할 필요

· 문화수준 향상 지표관련, 읍면동에는 도서대출이 가능한 마을문고 대부분 있으나 홍보부족 및 대응부족으로 평가결과가 낮고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문화프로그램도 평가시 유사실적으로 평가포함 가능

- 상하수도 보급률 관련, 우리도는 최하위로 목표 75%는 곤란
- 중앙 기준에 맞추기 때문에 시군마다 지표가 상이한부분 인정
- 충남도에 맞는 자체 지표개발로 중앙부처에서 인정받는 환경유도 필요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분지표 필요
- 고령화 문제 대두 등 관련지표 개발 필요 등
- 농촌은 농민이 농사짓는 현장으로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지표개발 필요 - 예)농촌 기계화율, 재해보험 가입률 등



○ 농어촌서비스 기준제고 확산을 위한 4개 시군 순회 설명회

- 농어촌서비스 기준의 지속적인 전파·확산을 위해 2012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실태분석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시군 해당 실무 담당들을 대상으로 농어촌서비스 기준 확산 및 이행제고를 위한 방안을 전파함으로써 업무 체감도 및 필요성을 확산시켰다.

< 농어촌서비스 기준 제고를 위한 시군 순회 설명회 사례 2. >

【 농어촌서비스 기준 제고를 위한 시·군 순회 설명회 】

○ 설명회 개요

- 일정 : '13. 7. 10(수) ~7.11(목)
- 대상 : 아산, 서산, 금산, 홍성군 등 4개 시·군(2012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실태분석 연구기관 대상)
- 참석 : 85명(시 군별 20~25명 내외)/ 서비스기준 항목별 담당직원 이상
- 내용 : 농어촌서비스 이행실태 제고 방안 설명
- 주요토론 내용

<아산시>

- 도서열람 및 대출관련 市立도서관과 교육청 도서관間 연계 운영할 경우 시민에게 더 큰 서비스 수준제고 기대(시립도서관)
- 찾아가는 합동 문화바우처 운영시 공연보다 의료분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의료분야 서비스 확대 필요(문화관광과)

<서산시>

-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 참여율의 경우 '단순 참여율 지표보다는 '만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교육청)
- 각 읍면별로 소방센터가 부족하여 5분내 출동 어려움(소방서)
- 주거난방의 경우 단순 '도시가스 보급률' 만 가지고 한정했는데 전기, 태양열 등 다양한 난방시설 포함 바람직(경제과)

<금산군>

- 자부담율이 큰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표제의 바람직(지경과)
- 과거의 지표기준(시설, 프로그램 운영)에서 새로운 지표(문화복지, 예술교육, 문화향유 등)활용 바람직(다락원)
- 전문 의료진 순방의 경우 지표 '대상지역'을 행정리에서 실질적 수혜받기 어려운 오·벽지로 변경 바람직(보건소)

<홍성군>

- 전 마을 버스운행 및 도서관 운영 활성화되고 있는데도 지표가 낮게 평가(부군수 교통담당) → 충실한 자료·설문 대응 제시
- 수준 저위지역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필요(공공시설사업소)
- '상수도 지표'의 경우 마을(간이)상수도 포함필요(상수도담당)
 - 수범사례 발굴(시군의 이행제고 방안으로 전파 계획)
- 오·벽지 미중물 교통체계 운행(아산시)

- '12 11월부터 오 벽지 시내버스 미 운행 지역을 대상으로 마중버스(5대/7개노선)와 마중택시(1개 콜센터/2개 마을)를 버스 환승정류장까지 운행, 월평균 버스27인, 택시17인씩 수혜 중이며, 점차 확대할 계획
- 농어촌 시내버스 경유지 및 중점 연장(서산시)
 - 농어촌 교통편의를 위해 금년 2개 노선에 대한 시내버스 경유지 추가(팔봉 흑석리) 및 중점연장(대산 삼길산) 운행
- 농촌도시가스 보급률 제고(금산군)
 - 도시가스 공급관로 100m 범주내 44가구 미만(이상은 무상)시 1세대당 총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
 - '11~'13.6월 777가구, 203백만원 지원/ 현재 읍지역 50% 공급 완료
- 행복신고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서비스(홍성군)
 - 복지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11개 읍면 오 벽지 주민을 대상으로 22개 민.관 유관기관 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보건의료, 자원봉사, 일상생활, 교육 등 4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 연인원 2만여명 참여, 오 벽지 주민들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노인복지 서비스지원 시범사업 추진(홍성군)
 - one-line IT기술과 off-line의 노인 돌보미,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연중 24시간 안전 확인 및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을 통하여
 - 지난해 부터 시범으로 65세 이상 독거노인 1,500세대 보호관리



아산시



서산시



금산군



홍성군

2) 농어촌영향평가

○ 농어촌영향평가를 통해 정책 개선방안

· 농어촌영향평가를 통해 정책 개선방안이 도출되어 도농격차 해소를 위해 사업이 개선되었다. 예로 2011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추진사업이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분석' 결과로 종사자수(자원봉사자) 증원을 통한 시간내 급식 방안이 개선되었으며(종사자 1인당 재가 노인수 변화 : 금산군 24명 → 6명, 태안군 10명 → 5명, 청양군 8명 → 3명, 공주시 57명 → 30명, 보령시 40명 → 7명, 당진시 9명 → 7명 등), 2012년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이동 빨래차 추진사업'의 도농격차 비교분석' 과제 수행 결과를 통해 전담직원 및 수혜자 확대를 위해 해당부서에서 시정·개선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3. 과제 및 개선방안

1) 농어촌서비스 기준

첫째, 농어촌서비스 기준 제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단계별 확산 및 실천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농어촌서비스 기준이 농정 부문만이 아닌 모든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복지, 응급, 문화, 안전, 정보통신 등 모든 부문에 해당되기에 시군의 농정과에서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를 위해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한 시군 확산을 위한 순회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시군 지자체장의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농어촌서비스 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이행 제고와 확산·실천 시 어려움이 있다. 민관·학의 농어촌서비스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여, 농식품부에서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자료 요청 시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시군의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농어촌서비스 기준에 관한 포럼 및 시군별 워크숍 등을 통해 인지·확산·실천에 대한 노력이 보다 필요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의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 및 학습의 기회가 필요하다.

셋째, 농어촌서비스 관련 예산확보의 문제점이 있다. 농어촌서비스 이행제고를 위해 대부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나, 농어촌서비스 이행제고에 대한 인센티브 등에 관한 내용이 부재함으로 인해 시군 차원의 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다. 또한 농어촌서비스 기준 제고와 관련된 지표는 투자 대비 성과 가시화가 높지 않아 정책수립 및 반영시 투자의 후순위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시군에서 수립한 정책방향과 일치하지 않아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넷째, 농어촌서비스 기준에 대한 목표·목적 설정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하다. 농어촌서비스 기준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이행을 제고할 수 있는 지표가 대부분이기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는 이행 제고 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지표와 시군의 정책추진 정책의 방향이 다른 경우도 있기에, 충청남도 차원에서는 이행제고를 목표로 하는 것보다 도농격차 해소 및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캠페인 등을 통해 농어촌서비스 기준의 중요성을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실천가능한 구체적인 목적이 재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서비스 기준 지표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 농어촌서비스 기준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문제, 너무 많은 지표로 인해 이행의 문제, 공간적 분포 및 접근성이 고려되지 못한 문제, 변별력이 낮은 항목이 선정된 문제 그리고 목표를 이미 달성한 지표가 많은 문제 등이 있어 지표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에 현재 도에서 추진 중인 충남형 농어촌서비스 기준에 관한 지표 재설정 필요하고, 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2) 농어촌영향평가

첫째, 농어촌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사업 선정 방안에 대한 문제가 있다. 현재 농어촌영향평가는 충청남도 대상사업 중 도농격차가 우려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평가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통해 사업이 개선되어 추진되어야 하기에 도농격차가 우려되는 가장 우선적인 사업 선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농어촌영향평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방법 및 평가 체계가 부재하다. 농어촌영향평가에 대해 농식품부에서 명확한 분석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있지 않아 각 지자체 담당자의 자질에 따라 결과가 도출되기에 이에 대한 통일성 있는 방법론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 평가를 수행하고 개선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정책적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대상사업별 통계 조사 및 사업 담당자의 협조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농어촌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계값이 시계열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단편적 시기의 자료만을 분석하여 사업을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 담당자들의 본 농어촌영향평가의 중

요성 인식 부족으로 인해 자료 협조 및 취득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넷째, 평가 결과의 개선방안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등 실천적 방안이 부재하다.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사항이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개선사항 수행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등에 대한 마련으로 실천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가 및 개선을 추진하는 주체의 의식에 대한 문제가 있다. 추진 주체의 의식이 매우 중요하기에 이에 대한 농식품부 차원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학습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평가 대상 부처 담당자의 농어촌영향평가와 관련한 중요성 인지 강화,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에 대한 문제 등, 지속적으로 연찬회와 정보교류 등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6장 도농교류 사업 분야

【박경철】

제1절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 부문

3농혁신 추진체계가 새롭게 개편²⁰⁾되기 이전의 도농교류 활성화 부문(도농교류 활성화팀)에서 다루어 왔던 주요 사업으로는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 ‘귀농귀촌 확산 및 유치’, ‘농어촌 응원운동 전개’이다.

本節에서는 추진체계 개편에 따라 도농교류사업단에 속해 있는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 부문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²¹⁾.

1. 사업개요 및 추진 경과

충남도의 농어촌체험관광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국토의 중앙에 자리잡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산, 강, 바다, 평원, 산촌 등이 골고루 갖추고 있어 농어촌관광자원이 풍부하다. 특히, 최근 세종특별자치시 내 정부기관과 각급 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하면서 생태와 자연환경이 잘 갖춰진 농어촌을 찾는 도시민들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충남도는 도시민에게는 재충전의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고 농어민들에게는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충남형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1년 162개의 농어촌체험관광마을을 2014년 183개 마을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그동안 농어촌체험관광마을 육성 및 소프트웨어 중심의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분야 종사자의 인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충남의 농어촌체험관광은 도와 (사)충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농협충남지역본부, 한국관광공사충청권협력단, 충남친환경농업연합회, 코레일대전충남본부, 충남교육청, 충남문화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하에서 추진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체험관광이 농촌지역 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심 속의 아이들에게 직접 찾아가 아이들이 도심 속에서도 농촌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심 속의 학교 농 만들기사업을 실시해왔다. 이 사업

20) 2013년 3월 3농혁신 추진체계가 이전의 3개 사업단 8TF팀에서 5개사업단 18개 팀으로 재편되었음

21) 귀농귀촌팀에 대해서는 농어촌역량강화사업단분야에서 다루기로 함

은 현재 농촌체험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인성교육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되어 앞으로도 더욱 확대할 전망이다.

2. 그 동안의 성과

3농혁신을 통한 그 동안의 충남형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과 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 내용>

- 2012년까지 도내 농어촌체험마을 지정 마을은 164개소이며 이 중 체험휴양마을로는 97개 마을이 지정됨.
- 농어촌3농혁신대학 「농어촌체험관광과정」 운영(2012년 2월/2013년 3월)
- 체험마을 대표 및 사무장 워크숍을 실시하고 25개 체험마을 공동체험양 교육 및 컨설팅 실시(2012년)
- 철도이용 체험객 유치를 위해 7개 기관과 MOU를 체결(2012년)
- 농어촌체험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코레일 및 서울시교육청 방문 초중고생 농촌체험학습 유치 협의(2012년 4월)
- 수도권 등 1,500개 초중학교 도지사 서한문 등 체험학습 안내(2012년 9월)
- 친환경마을(단체)과 도시학교 간 자매결연을 통해 도시 학교 내 생태학습장(주로 플라스틱 고무용기를 이용한 작은 논)을 조성 모내기, 벼베기, 탈곡체험, 전통놀이 등을 실시(2011년-2014년)
- 초·중학생들의 농어촌체험을 통해 농산업의 가치와 바른 품성 함양을 위한 농촌체험교육 실시(충남도교육청: 2011년)
- 농촌교육농장 육성 및 농촌체험학습자원홍보전 실시(충남도 농업기술원, 2012년 이후)

<성과 내용>

- 「2012 농어촌여름휴가 페스티벌」 체험마을평가 전국 최우수상(도, 도협의회)
- 2012년 대한민국 마을대상 수상: 아산 외암마을
- 관광체험마을 방문객 및 매출액 모두 증대

- 방문객은 2011년에 82만7천명에서 2012년에는 120만3천 명으로 8.3%p 증가함.
- 또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03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25%p 증가함.

<표 6-1> 농어촌체험관광 성과지표 달성도

지 표 명	단위	연도별					
		'09	'10	'11	'12	'13 (예상)	'20 (예상)
체험관광객 유치	만명	70	76	87	100	130	200
체험관광 매출액	억원	80	94	103	120	150	250
체험휴양마을 지정	개수	-	33	67	97	110	200

출처: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2013. 「3농혁신」 추진상황 점검·신규시책 구상을 위한 도농교류사업단 TF 팀 합동회의 자료.

- 농어촌체험마을협의회 전국 최초로 조직화(2011년 11월)
 - 워크숍, 마을건설팅(마을공동체함양사업) 등 마을 리더주민 역량강화
- 도심 속 학교논 만들기 추진(2011-2012): 114개 학교
 - 2011년: 14개 학교(서울 8, 대전 6)
 - 2012년: 100개 학교(서울 54, 대전 25, 충남 21)
- ※ 모심기와 벼베기 등 벼의 생육과정에 대한 관찰을 통해 아이들의 인성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며 학교 당국은 이러한 활동을 적극 확대하고자 함. 어린 학생들은 영농체험 이후 자매결연마을과 단체에 영농체험을 하면서 “농부님들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골 외할머니가 생각났어요” 등의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음
- 그동안 친환경농업사업단에서 실시해왔던 도심 속 학교 논만들기사업은 2013년부터 충남 체험휴양마을협의회와 공동으로 진행함. 3농혁신 정책사업을 사업단 간 협력을 통해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모범사례라 할 수 있음.
-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농촌체험학습 증가(2012년 120개교에서 2013년 320개교 목표)
- 농촌교육농장 육성 및 농촌체험학습지원홍보전 확대
 - 2012년 52개소에서 2013년 60개소로 확대 계획
 - 2012년 9,500명에서 2013년 15,000명으로 확대 계획

도심 속 학교 논 만들기 우수 사례: 서울 남산초등학교




사진: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홍성 농부들이 함께 모내기하는 모습(좌)과 학교 논(우)

남산초등학교의 모내기행사는 홍성친환경작목회와 함께 진행한다. 홍성의 농부들은 바로 학교 논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했던 장본인들. 작목회 주형로 회장은 2년 전 처음 학교 논 만들기를 기획했고, 지금까지 학교 논 프로젝트를 이끌어오고 있다.

홍성의 농부들과 아이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 모내기를 진행한다. 1,2,3학년은 작은 운동장에 줄지어 있는 고무합지박에 모내기를 하고 4,5,6학년은 큰 운동장 한쪽에 있는 논에서 모내기를 한다. 작은 논에서 줄지어 모를 함께 심으니, 시골의 논 풍경이 도시로 옮겨온 듯하다. 아이들은 정말 논흙을 밟으며 느끼고,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느낀다. 어떤 학생은 혼자서 대어섯 포기를 삼어 '일꾼 냐다!'가 찬사를 받기도 한다.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모내기를 하고, 모내기가 끝난 후에는 논에서 나온 아이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정성껏 씻어 주신다.

남산초등학교의 모내기 행사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작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끼리 했으니 농부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하는 모내기 행사는 올해가 처음인 셈이다. 남산초등학교 최미경 선생님은 홍성에서 농부님들이 직접 오셔서 함께 하니 정말 제대로 된 공부가 되었다며 홍성 농부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최미경 교장선생님은 생태·농사 교육에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였다.

“요즘은 아이들이 형제자매가 많지 않다 보니까 누구를 돌보고 보살피는 경험이 부족해서 남에 대한 배려를 배우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명을 가꾸고 보살피는 경험을 통해 남을 배려하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태도를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먹을거리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교육적 의미가 있다고 봐요. 급식지도 할 때 영양사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벼를 길렀던 경험을 환기시키면서 쌀 한 톨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시간과 노력을 이야기하면 밥을 남기고 흘린 아이들이 태도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서울 남산초등학교 최미경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부터 아이들까지 남산초등학교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학교 논이 벼는 싹싹 자라게 될 것이다.

출처: 녹색교육 달팽이통신(<http://blog.naver.com/snailcomm?Redirect=Log&logNo=50152398763>)

3. 과제 및 개선 방안

앞서 설명했듯, 충남도의 농어업과 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3농혁신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는 충남형 농어촌관광체험 활성화는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도 많이 거두었으나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도 안고 있다.

첫째, 소위 잘 나가는 관광체험마을과 그렇지 못한 마을간 균형 있는 예산투자가 필요하다. 체험관광을 체계적으로 잘 하는 마을에 대해 지원이 많아져야 되는 것은 타당하나 정책투입의 효율성에 치우쳐 지나치게 안정성 위주로 갈 경우 정부의 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마을 내 부하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체험관광마을 간 형평성뿐만 아니라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역량이 부족한 마을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적절한 규모의 관광객 유치와 관광객의 적절한 분배 노력이 필요하다. 충남도에서도 최근 일부 체험마을이 유명세를 타면서 체험객들이 몰려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체험마을은 아직 안정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일부 유명한 체험관광마을에 대한 지나친 홍보를 통한 관광객을 유치할 경우 주변의 기타 체험관광마을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또한, 체험관광마을 단위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마을 내 행사(축제 등)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마을 내 수용 가능한 범위 내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마을단위 축제에서 세계, 혹은 국제 단위의 행사 개최는 홍보성, 상업성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 농촌의 고유한 성격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지양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부 유명한 체험관광마을에 대한 지나친 관심보다는 그렇지 못한 마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충남체험휴양마을협의회 자체 조사에 따르면, 현재 충남의 97개 체험휴양마을 중 10여 개만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충남체험휴양마을협의회 자체적으로 마을평가를 실시해 활성화 수준별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수준별 교육을 통해 각 마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셋째, 정책 혹은 사업 간 상충되는 부분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행정체계에서 농어촌체험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투자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일관된 체계가 없다면

중복투자 등 관리상 낭비와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체험마을을 육성하기 위해 마을 내 많은 교육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관광객들은 마을 내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장에만 머물다 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마을 내 체험시설의 분산과 다양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농장을 체험마을과 분리 지원 및 육성하기보다는 충남도와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업무 협조를 통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내에 교육농장을 지원 및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학교 논 만들기사업의 경우, 도심학교에서의 모내기과 추수절행사가 농번기와 겹쳐 행사를 진행하는 농민들에게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체계화된 프로그램과 체험 안정성이 더욱 강구되어야 한다. 현재 수도권 등 대도시 수학여행객 유치를 위해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단체 등에 충남도 농어촌체험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으나 이들은 체험프로그램과 안정성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보이고 있는 경우가 있다. 체험과 숙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험가입을 필수 조건으로 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이를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어린 학생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안전장치와 시설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서울시가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객이 의무화에서 자율로 전환되면서 소규모 체험단 유치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체험관광마을이 활성화되면서 체험관광마을 인근에 대규모 자본의 투자가 유입되고 있고, 4대강사업 이후 최근 들어 (오토)캠핑이 유행하면서 건물 내 숙박형 체험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대규모 자본의 투입에 의한 개발과 시류의 변화는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저해하며 자칫 농어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기업에 의해 차단됨으로써 지역 내 농어촌체험관광이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체험마을 인근에 기업형 펜션과 체험시설이 들어설 경우 상호간의 협약을 통해 상보관계를 유지하고, 여건이 가능할 경우 체험마을 내 적절한 규모의 오토캠핑장을 마련해 체험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제7장 농어촌역량강화 사업 분야

제1절 지역리더 양성 부문

【유학열】

2013년 3월 3농혁신 추진체계가 새롭게 개편²²⁾ 된 후, 지역리더양성팀은 농어촌역량강화 사업단²³⁾에 속하게 되었다. 세부 사업으로는 이전에 함께 추진되어 왔던 ‘3농혁신대학운영사업’이 새롭게 생긴 농어업인역량강화팀으로 이전됨에 따라 지역리더양성팀에서는 ‘지역리더 아카데미운영(초급, 중급, 고급)’과 ‘농촌여성역량강화 아카데미사업’을 관장하게 되었다.

本節에서는 지역리더양성팀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지역리더아카데미운영’에 대해서만 논하고자 하며, 2012년 지역리더양성 초급프로그램을 시행한 시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²⁴⁾ 결과, 3농혁신 농어촌역량강화사업단 협의회²⁵⁾ 및 3농혁신 지역리더양성팀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기술하고자 한다.

1. 사업개요 및 추진 경과

‘지역리더아카데미운영’은 충남 농어업·농어촌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리더²⁶⁾ 양성을 목적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663백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역리더아카데미는 수강생의 역량에 따라 초급반·중급반·고급반 3단계로 운영되며, 3년간 총 1,800명의 지역리더를 양성할 계획이다.

초급과정은 농어촌지역 일반주민으로 마을발전에 관심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자기혁신과

22) 2013년 3월 3농혁신 추진체계가 이전의 3개 사업단 8TF팀에서 5개 사업단 18개 팀으로 재편되었음
 23) 새롭게 개편된 농어촌역량강화사업단에는 농어업인역량강화팀, 지역리더양성팀, 귀농귀촌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24) 설문조사는 농업기술원 정보교육과의 협조를 통해 2013년 4월에 실시함
 25) 농어촌역량강화사업단 협의회는 최소 분기별 1회는 개최하고 있으며 필요에 의해 임시 협의회도 열고 있음
 26) 본사업에서 말하는 지역리더란 전문적인 농업기술, 마케팅, 농업경영관리 등 전문농업인이 아닌 주민참여형 지역사회개발에 필요한 지역(마을)발전계획 수립, 개발사업 추진, 농촌관광 경영 등 지속적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마을)경영이 가능한 지역인재를 말함

셀프리더십 배양’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다. 중급과정은 초급과정 이수자, 기존 지역개발 교육 이수자, 지역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지역개발과 리더십 육성’이라는 주제로, 고급과정은 중급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지역개발과 리더십 육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 이 두 과정은 도농업기술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표 7-1> 지역리더양성팀의 핵심사업 개요

사업명	구체적 내용
지역리더 아카데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표: 2012년~2014년 1,800명 지역리더 육성 ○ 사업비: 663백만 원(도비 46% + 시군비 54%) ○ 주요내용: 자기혁신과 셀프리더십 배양, 지역개발 리더십 육성, 지역경영과 미래비전 구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2013년도 운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급반: 시군 농업기술센터 시행, 2013년 4월~12월, 440명 - 중급반: 도 기술원 시행, 2013년 4월~12월, 120명 - 고급반: 도 기술원 시행, 2013년 4월~12월, 40명 ○ 추진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농업기술센터: 초급반 운영 - 도 농업기술원: 중급반, 고급반 운영 및 세부계획 수립 - 충남발전연구원: 프로그램 개발, 교육 평가

그 동안 추진 경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2> 지역리더 양성팀의 주요 추진 경과

일정	경과	구체적 내용
2012년 4월~8월	지역리더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개발	-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단계별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계획 수립
2012년 8월	2012년도 지역리더아카데미 교육 기본계획 수립	- 2012년 초급반 운영지침 수립 - 14개 시군(거통시 제외)에 사달
2012년 9월~12월	2012년도 지역리더아카데미 초급반 운영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초급반 운영 - 실제 수강생 총 467명
2013년 5월	3농혁신 농어촌역량강화사업단 협의회(1)	- 사업단 목표, 정책방향 논의 - 지역리더 양성팀 문제점 도출 및 향후 개선방안 논의
2013년 8월	3농혁신 농어촌역량강화사업단 협의회(2)	- 사업단 3기팀별 그 동안 추진 상황 논의 - 사업 추진과정상의 문제점 논의 - 2014년 신규사업 발의 논의

2. 그 동안의 성과

첫째, 3농혁신의 가장 핵심은 우리 지역 **농어업인을 충남 농정의 주체로 이끌어 내고 양성** 하는데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역리더아카데미 운영은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2년도 초급과정에 계통시를 제외한 도 내 14개 시군에서 총 467명의 지역주민이 지역리더 과정을 수료함에 따라 앞으로 지역리더로서 역할을 할 리더 후보군을 육성하였다는 점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내발적 농어촌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인적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최근 농어촌개발 추진 방식이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방식에서 지역주민 주도의 상향식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또한 마을만들기 방식이 과거 물적 중심에서 인적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역리더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은 큰 의미를 가진다.

셋째,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3농혁신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홍보에 효과**가 있었다.

충청남도가 시행한 설문조사²⁷⁾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1.3%, 잘 알고 있다 22.9%, 매우 잘 알고 있다 8.3%로 나타나 잘 모른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37.5%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농어촌 주민들에게 3농혁신에 대한 인지가 점점 침투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우리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역개발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모** 하였다.

초급과정의 기본 목표가 ‘자기혁신과 셀프리더십 배양’으로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이해와 자기변화를 통해 나도 지역리더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고취시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성과라 할 수 있다.

3. 과제 및 개선방안

추진과정 상 드러난 과제를 도출하고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리더양성이라는 본래의 사업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교육내용이 적지 않다**. 2012년 상반기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충남발전연구원에 위탁하여 개발한 지역리더 양성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교육목표, 교육주제, 교육내용과는 적합하지 않은 커리큘럼으로 시행된 사례가

27) 충청남도 농업정책과에서 2012년 12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일부 시군에서 발견되었다. 13개 시군에서 실제로 시행된 교육 커리큘럼을 분석한 결과 본래의 취지에 맞는 교육은 전체의 55.2%에 불과하였고, 중간 정도의 적합 16.7%, 적합하지 않은 교육 28.1%로 나타났다. 적합하지 않은 교육내용의 예로는 건강, 행복에 관한 주제의 강의 및 토양관리, 시설재배기술 등 영농기술에 관한 교육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을 위탁 받아 시행한 교육기관이 본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데 이유가 있다.

둘째, 시군 담당자가 본 교육의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초급반의 경우 교육 시행주체가 시군 농업기술센터이다. 현장의 실무 담당자가 3농혁신 지역리더 교육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외부 전문기관에 전적으로 위탁²⁸⁾하는 형태가 되어 버리는 실정이다. 외부기관에게 위탁을 하되 실무담당자가 교육의 목표, 내용, 평가, 성과 등 일련의 교육과정에 대해 관리, 감독, 평가를 해야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셋째, 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사후 교육생 관리가 소홀**하다. 2012년도에 시행한 초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 결과, 평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사업의 총괄을 맡고 있는 농업기술원 교육정보과에서는 시군별 사업시행 결과를 취합 당초 목표대로 시행되었는지에 대한 엄밀한 검토와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 조치 등 일련의 사업 피드백(feedback) 작업이 필요하다. 각 과정이 끝나면 다음 단계 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생 관리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교육 참여자들에게 이들이 수료한 과정과 아직 이수하지 못한 과정을 구분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어야 한다.

넷째, 교육생의 모집 대상이 **농업인에 편중되어 비농업인의 교육 기회가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본 교육을 시행함에 따라 교육생 모집 대상이 농업관련단체임원, 품목별연구회원, 생활개선회원 등 농업인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나타나 비농업인의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본 사업의 본래 취지가 지속적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경영이 가능한 지역인재를 육성하는데 있기에 모집대상 폭의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3농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의 마을학교²⁹⁾ 운영과 상호 연계성이 매우 미흡하여 교육생 모집의 어려움과 교육내용의 중복성이 발생하고 있다.

다섯째, 상기에서 지적 했듯이 3농혁신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인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28) 14개 시군 가운데 자체적 시행한 지자체는 3개 시군에 불과하였음

29) 3농혁신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추진되고 있는 마을 발전계획 수립 시 필요한 주민교육 커리큘럼을 의미함

의 마을학교 운영(지역리더 육성 교육)과의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 교육의 목적, 내용, 대상 등에 있어 중복되는 사항이 많기에 충남도 농촌개발과든 농업기술원 교육정보과든 사업추진의 일원화가 요구된다.

여섯째, **충남형 LEADER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EU의 LEADER 프로그램, 캐나다의 Canadian Rural Partnership³⁰⁾ 등과 같이 소규모 파일럿 사업을 통해 주민의 사업계획 역량이나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프로그램 즉 단순한 교육·훈련이 아니라 사업의 실행을 통해 배워나가는 실천학습(learning by doing)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유정규, 2012). 따라서 충남도에서도 행정과 주민 사이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주민간의 협력과 신뢰의 사회자본을 배양함과 동시에 사업계획 역량이나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소규모 파일럿 프로젝트 도입이 요구된다.

30) 주요 목표는 파일럿 가업을 통한 마을공동체 내의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인적자본 개발, 공동체 합의 구축, 공동계획과 실행 능력을 배양하는 것임

제2절 농어업인역량강화(3농혁신대학 운영) 부문

【박경철】

1. 사업개요 및 추진 경과

충남도는 3농혁신정책을 체계적으로 전파하고 관련 도·시·군 관련 공무원, 유관 기관 담당자 그리고 3농혁신의 주체인 핵심 농어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농혁신대학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3농혁신대학은 ‘대학’의 기능이라기보다는 3농혁신정책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논의와 합의’의 과정이다. 즉, 3농혁신대학에서는 충남도 농정현안에 대한 농어업인의 문제점 제기, 핵심사항 논의, 해결방안 도출, 핵심 사업 도정 반영 등의 과정을 거친다.

3농혁신대학은 2012년 1월 「쌀산업과정」을 시작으로 세부 부문별로 총 3년간 3,600명의 인력을 육성한다는 목표로 3농혁신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매월 세 번째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실시되며 각 시·군을 순회하며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는 모두 100-130명의 충남도·시·군 관련 공무원, 유관 기관 담당자, 핵심 농어민 등이 참석하고 있다. 1박2일의 기간으로 진행되는 3농혁신대학에서는 충남도 3농혁신정책의 설명, 각 분야별 전문가 특강, 우수사례 발표와 토론 등이 진행된다. 특히 도지사가 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면서 농업인, 유관 기관 담당자, 공무원 등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충남의 농어촌, 농어업, 농어민 문제의 올바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충남도는 3농혁신대학 운영을 통해 3농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을 결집시키고 3농혁신 추진을 위한 강한 원동력을 마련하고 있다. 2012년 3농혁신대학의 운영 현황과 성과는 다음과 같다.

<3농혁신대학 운영 현황>

- 2012년 한 해 동안 전체 11개 과정으로 매월 진행된(6월 제외) 3농혁신대학에는 도·시·군 공무원 관련 공무원, 유관 기관 담당자, 농어민 등 모두 1,256명이 참여했음(구체적인 프로그램 진행내용, 인원은 <표 7-3> 참조).
- 2013년에는 12개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며 4월 현재 14개 과정에 모두 1,746명이 참석함.
- 2012년 한 해 3농혁신대학 프로그램을 보면, 특강 51건, 사례발표 23건이 진행됐고 매회

분임 및 종합토론이 진행됐음.

- 2012년 한 해 3농혁신대학 운영비로 8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됨: 교재비, 강사원고료, 참여자 급식비 등

2. 그 동안의 성과

<운영성과>

- 충남도의 3농혁신정책을 정례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강한 동기 부여
- 분야별 전문가의 강연과 토론을 통해 3농혁신의 실천과정에서 겪는 문제점과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 3농혁신대학은 시군별 순회 개최를 통해 지역의 현안과 결부한 3농혁신정책의 분위기 확산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7-3>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3농혁신대학 운영 현황과 교육과정에서 발표된 자료들을 모두 도청 3농혁신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3nongMain.do>)에 공유함으로써 3농혁신대학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교육내용도 손쉽게 이용할 수 체계를 마련함.

<표 7-3> 2012년도 3농혁신대학 과정별 운영 현황

과정명	일자 (장소)	인원	성과
쌀산업	1.27-28 (농업기술원)	80	· 고품질 쌀산업 발전방안 모색 · 쌀산업 목표설정 및 합의도출
농촌체험관광	2.24-25 (농업기술원)	100	· 농촌체험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 농촌체험관광의 나아갈 방향 제시
농업협동조합	3.30-31 (공주시)	100	· 신경분리 후 농산물유통 강화 · 조공법인, 공선출하, 품목조합
산림자원육성	4.27-28 (태안군)	120	· 고소득 작목재배 및 산촌마을만들기 모델 발굴
선진축산	5.25-26 (홍성군)	120	· 가격 폭락 등의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향 제시 · 축산분뇨 자원화, 첨단관리 성공모델 발굴
청정수산	7.26-27 (농업기술원)	120	· 지역명품 수산물 특화방안 모색 · 생산성 증대, 수출 등 성공모델 발굴
친환경리더	8.23-24 (서천군)	123	·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방안 모색

6차산업화	9.14-15 (청양군)	136	· 주민주도 자립형 마을기업 육성 방안 모색 · 농어민의 경영마인드 제고, 성공모델 발굴
학교급식지원	10.25-26 (당진시)	130	· 로컬푸드와 연계한 학교급식 지원 방안 모색
마을가꾸기 지도자	11.22-23 (부여군)	130	· 동기부여, 역량강화를 통한 희망마을 가꾸는 농어촌마을 육성 · 마을학교 운영, 마을발전수립 등 모델 발굴
농업경영혁신리더	12.6-7	97	· 글로벌 농업시장 변화에 대응 가능한 경영혁신 리더 육성 · 신기술 등 창의적 농법과 유통혁신으로 재정적으로 자립된 농가 양성
계		1,256	

자료: 충남도청 3농혁신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3nongMain.do>) 내용 재정리

- 2013년 들어 3농혁신대학의 프로그램은 다소 다양화되었으며 프로그램 운영형식도 기존의 강의, 질의응답, 종합토론 등과 같은 다소 정형화된 틀을 벗어나 참여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참여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였음.

3농혁신대학 프로그램 운영 우수 사례: 농어업 6차산업화과정(2013. 6)

- 프로그램 특징: 기존의 강의, 토론 형식에서 탈피해 <음식과 어머니>에 관한 토크쇼를 추가했고 충남도와 공영방송 간 상호협정을 통해 향후 충남 농수산물공품의 홍보 기회 확대
- 운영 성과: 농어업6차산업화를 단순히 산업적 마인드로 접근하지 않고 <음식과 어머니>를 테마로 한 토크쇼를 통해 우리 농업과 음식의 소중함과 가치를 일깨웠으며, 공영방송인 KBS와의 상호협력협정 체결을 통해 향후 충남 농수산물공품의 홍보 확대 기회 마련



3. 과제 및 개선 방안

3농혁신대학 운영을 통해 그간 정부, 민간, 전문가집단을 결집시켜 충남도 3농문제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고 민간이 주체가 되어 3농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적, 물적, 행정적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역량있는 농민대표들이 다수 참여해 3농혁신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도 존재한다.

첫째, 3농혁신대학을 통한 3농혁신정책 확산 노력이 필요하다. 3농혁신대학은 충남도의 핵심도정인 3농혁신정책을 추동하기 위해 정책의 핵심그룹과 협력자그룹이 머리를 맞대고 현안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논의와 합의의 기구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3농혁신대학 참석자들은 대부분 충남도 담당공무원, 농어민단체 대표, 농업업 관련 기관의 대표자들이다. 3농혁신대학의 기본 운영 방침이 이렇다 보니 3농혁신대학의 운영 과정에서 대다수 농어민들은 자동적으로 배제가 되고 있고 그 결과 대다수 농업인들은 3농혁신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3농혁신정책이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도 차원의 3농혁신대학 운영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시군 단위 등 낮은 차원에서 농어민을 상대한 3농혁신 교육내지 홍보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프로그램 운영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2012년에 11개의 주제를 가지고 11개월 동안 실시했던 교육프로그램과는 달리 2013년도에는 전년도에 운영했던, 3개 과정(쌀산업, 친환경리더, 농업경영혁신리더)을 제외하고 4개 과정(농정거버넌스, 여성농업인, 귀농귀촌 안정 정착, 인삼산업발전)을 신설했고 교육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참여 분야별로 모든 계층을 망라했던 2012년도와는 달리 2013년도에는 분야별로 핵심계층과 그들이 선정한 협력자 그룹이 참여하는 형태로 변화돼 프로그램 운영방식에 많은 개선을 가져왔다. 단지 아쉬운 점은 프로그램 운영방식이 대부분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다소 일부 과정에서는 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분야에 따라서는 정형화된 합숙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탈피해 영농현장에서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는 운영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3농혁신대학 교육결과의 반영 노력이 필요하다. 앞서 얘기했듯, 3농혁신대학은 ‘대학’의 기능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와 합의의 기구이다. 따라서 교육과정 중에는 관련 전문분야에 따라 다양한 현안문제들이 도출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

의하고 있다. 그 가운데는 단기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도 있고, 장기적으로 해결 가능한 과제들이 있다. 농어민 주체들이 교육과정에서 제기한 이러한 문제들이 이후에 어떻게 조치되었고 조치될 계획인지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도에서는 3농혁신대학 과정 중 도출된 14개 안건(농업협동조합과정 5건, 체험마을 활성화과정 4건, 청정수산물육성과정 5건)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이를 반영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의 공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3농혁신대학의 지속가능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 3농혁신대학은 민과 관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5개 사업단과 각각의 TF팀을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운영의 주체는 충남도이고 아직 민간단체 스스로가 추동할 여력은 없는 상태이다. 장기적으로 3농혁신대학을 충남도에서 계속 끌고 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충남도와 농업관련단체가 어떠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지속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농업벤처대학이나 농촌관광대학, 완주의 퍼컬처대학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자생적으로 조직된 충남농업포럼과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8장 결론

【유학열】

제1절 연구 요약

추후 작성

제2절 정책적 제언

3농혁신이 향후 민선 6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3농혁신 기본계획에 대한 수정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3농혁신의 기본틀은 2011년 7월에 수립된 것으로 사업별 목표연도가 대부분 민선5기(~2014년)까지로 되어 있다. 3농혁신의 비전, 목표, 핵심사업 등 큰 틀에서의 수정은 불필요하나 현재의 기본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와 함께 민선6기 3농혁신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둘째, **충남 농정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2009년에 수립된 충남 농정 2020은 3농혁신의 기본방향과 불일치하는 면도 많기에 상기의 3농혁신 기본계획 수정계획과 함께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기라 생각한다.

셋째, **시·군 참여의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3농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농어민, 유관기관, 전문가, 충남도 등 관련 주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사업을 현장에서 시행하는 시·군의 적극적 협조와 참여 없이는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 현재 3농혁신 시군특화사업 발굴 등 참여 제고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나,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시군별 특화된 3농혁신대학 운영, 공모형 시군특화사업 발굴, 사업비 매칭비율의 시군 부담 경감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5개 사업단, 18개 T/F팀에 권한과 책임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 동안의 3농혁신의 가장 큰 성과 가운데 하나가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들 수 있다. 3농혁신위원회, 5개 사업단, 18개 T/F팀 모두 민과 관이 적정 비율로 구성되어 활발히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단, T/F팀의 경우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형식적, 의무적 사업단, T/F팀 운영

이 아닌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운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단, T/F팀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이 혁신위원회와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공무원)에게 정확히 전달되고 사업 추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장치가 요구된다.

다섯째, 수요자인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직결되는 기술 개발, 보급사업 발굴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농업인이 3농혁신의 성과를 실감할 수 있는 새로운 작목 발굴, 에너지 절감기술 및 품질 고급화 기술 등 현장에 바로 접목할 기술 개발과, 보급이 필요한데 이것은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3농혁신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의미도 가진다.

여섯째,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3농혁신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위주의 점검이 아닌 전체적 틀에서 농어업인이 농정의 주체가 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새로운 농정패러다임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등 3농혁신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기적 점검이 필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기적 모니터링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참고 문헌

- 김태연 외, 2012, 「3농혁신 추진성과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방법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전략연구
과제 최종연심회 자료집
- 충남발전연구원, 2013.06. 「충남 3농혁신의 추진상의 문제점과 그 동안의 성과 논의하기 위한
전략연구과제 워크숍 자료집」
- 충청남도 3농혁신위원회, 2013.04. 「3농혁신 추진상황보고 자료집」
- 충청남도 3농혁신위원회, 2013, 「2013년 3농혁신 워크숍 자료집」
- 충청남도, 2013, 「3농혁신 워크숍」 자료
- 충청남도, 2013, 「소위원회 결과보고 자료집(제1차~2차)」
- 충청남도, 2013, 「추진상황보고 및 결과보고 자료집(제1차)」
- 충청남도, 2013, 「3농혁신 가속·가시화를 위한 도농교류사업단 TK팀 합동회의」 충청남도 농업
정책과3농혁신 위원 및 단팀장 간담회 결과보고 자료집.
- 충청남도, 2013.01. 「3농혁신 합동워크숍 설명자료」
- 충청남도, 2012, 「소위원회 결과보고 자료집(제1차~5차)」
- 충청남도, 2012, 「추진상황보고 및 결과보고 자료집(제1차~5차)」
- 충청남도, 2012, 「담당주무관관계자 간담회 자료집(제1차~2차)」
- 충청남도, 2012.09. 「3농혁신 합동워크숍 설명자료」
- 충청남도, 2012.06. 「상반기 3농혁신위원회 간담회 결과보고 자료집」
-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2013, 「3농혁신 농어촌역량강화사업단 협의회 자료집」
- 유학열 외, 2011, 「민선5기 충남농정의 방향과 실천과제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전략연구과제
3농혁신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3nongMain.do>)
- 수산정보포탈(<http://www.fips.go.kr>)

[부록 1]

3농혁신정책 설문조사

--	--	--

충남도 3농혁신 정책의 중간점검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충남발전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정책개발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과 15개 시군이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3농혁신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연구를 보다 실증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남도 3농혁신 정책의 중간점검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는 내용은 통계 처리되어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에 관한 사항은 일체 밝히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성의 있는 답변은 3농혁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오니, 끝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지는 2013년 4월 26일까지 반송해 주시면 연구수행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4

조사자: 충남발전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유학열 · 이관률 박사

※ 본 설문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el: 041-840-1201/1204, Fax: 041-840-1219, E-mail: krlee@cdi.re.kr)

충청남도 3농혁신 정책의 개요

- 충남도는 2011년부터 도정의 역점사업으로 3농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3농혁신 정책은 “농어업인이 농정의 주체가 되어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충남도의 자체적인 농어업/농어촌 정책”입니다.

3. 비전과 목표

비전	- 생산자와 소비자,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충남 농어업·농어촌 사회 구현
3대 목표	- 농어업인을 비롯한 농어촌 주민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 - 충남 도민과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기본권 실현 - 도시와 순환·공생하는 농어촌 공동체 만들기

1. 3농혁신 정책의 인지도

- 귀하는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3농혁신” 정책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알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모른다 ⑤ 전혀 모른다

- 귀하는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3농혁신” 정책에 주로 어떤 형태로 참여하셨습니다?
① 사업수혜 ② 교육/워크숍 ③ 정책수립·집행 ④ 평가·자문 ⑤ 기타()

2-1. 귀하가 참여하신 “3농혁신” 정책의 내용과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 귀하는 충남도의 “3농혁신”의 세부사업 혹은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알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모른다 ⑤ 전혀 모른다

- 귀하께서 충남도 “3농혁신” 정책을 생각할 때, 생각나는 핵심단어를 3개 이내로 적어주십시오(예시: 충남도, 3농대학, 역점시책, 성공 혹은 실패 등)

①

②

③

- 귀하는 충남도의 “3농혁신”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잘 추진되고 있다 ② 잘 추진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잘 추진되고 있지 않다 ⑤ 전혀 잘 추진되고 있지 않다

- 귀하는 충남도의 “3농혁신” 정책이 **충남도의 농어업과 농어촌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귀하는 충남도의 “3농혁신” 정책이 중앙정부 혹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 및 농어촌정책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큰 차별성을 갖고 있다 ② 차별성을 갖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차별성을 갖고 있지 않다 ⑤ 전혀 차별성을 갖고 있지 않다

- 귀하는 충남도의 “3농혁신” 정책이 **누구에 의해서 추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생각하는 주체를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중앙정부 ② 충남도청 ③ 충남도의 15개 시군 ④ 농어민 및 관련단체
⑤ 농어업/농어촌 유관조직(농협 등) ⑥ 지방의원 ⑦ 기타()

II. 3농혁신 정책의 중간점검

충남도의 3농혁신 정책의 전반에 대해서 중간점검을 해 주십시오.
3농혁신 정책의 중간점검은 2012년 12월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1. 귀하는 충남도 “3농혁신” 정책이 분명하고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 귀하는 충남도의 “3농혁신” 정책의 **세부사업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 귀하는 충남도가 “3농혁신” 정책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4. 귀하는 충남도의 “3농혁신” 정책이 **당초 일정대로 원활히**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5. 귀하는 충남도의 “3농혁신” 정책이 **당초 내용대로 사업의 변경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6. 귀하는 충남도의 “3농혁신” 정책이 **당초 목표대로 농촌/농업/농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7. 귀하는 충남도가 “3농혁신”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법률적/제도적 제약조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8. 귀하는 충남도가 “3농혁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9. 귀하는 충남도의 “3농혁신” 정책이 **투명하고 표준화된 집행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0. 귀하는 충남도의 “3농혁신” 정책의 **성과관리와 모니터링**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1. 귀하는 충남도에서 “3농혁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2. 귀하는 충남도의 “3농혁신”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3. 귀하는 충남도의 “3농혁신” 정책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III. 3농혁신 정책의 기대효과

1. 귀하는 충남도 “3농혁신” 정책이 **당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 귀하는 충남도 “3농혁신” 정책의 **성과가 언제쯤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① 향후 1년 이내 ② 향후 2~3년 이내 ③ 5~7년 이내 ④ 10년 이후
3. 귀하는 충남도 “3농혁신” 정책이 **투입 대비 성과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4. 귀하께서 알고 계시는 충남도 “3농혁신” **정책의 우수 모범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5. 귀하는 충남도의 “3농혁신” 정책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농어민 및 정책관련자의 의식 개혁 ② 농업/농어촌의 가치 중시
③ 농어민/농어촌의 수요를 고려한 정책추진 ④ 내발적 지역발전의 토대 마련
⑤ 충남도의 독자적인 농업/농어촌 정책 추진 ⑥ 농어민/농어촌의 정책수혜도 제고
⑦ 농업/농어촌의 활력 증대 ⑧ 기타()

6. 귀하는 충남도의 “3농혁신” 정책이 다음의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성과정도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① 농어민의 소득증대					
② 농어촌의 생활환경 정비					
③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인식 제고					
④ 농어민의 삶의 질 및 복지 향상					
⑤ 농어민/공무원의 의식개혁					
⑥ 지역실정에 맞는 농어업·농어촌 정책의 추진					
⑦ 도와 시군간 농정거버넌스 구축					
⑧ 도시와 농어촌 /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					

IV. 3농혁신 정책의 개선방향

1. 귀하는 충남도 “3농혁신”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누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모든 주체를 표기해 주십시오.

- ① 중앙정부 ② 충남도청 ③ 충남도의 15개 시군 ④ 농어민 및 관련단체
⑤ 농어업/농어촌 유관조직(농협 등) ⑥ 지방의원 ⑦ 기타()

2. 귀하는 다음의 4가지 영역에서 성공적인 “3농혁신” 정책 집행을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영역별로 필수조건 1가지씩만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예시항목	필수조건
계획의 타당성	① 3농혁신 정책의 구체화·계획화 ② 3농혁신 핵심사업의 발굴 ③ 충분한 예산 확보	
집행의 일관성	① 지속적인 3농혁신 정책의 추진 ② 표준화된 3농혁신 정책집행 방식의 확립 ③ 농어민·농어촌·농어업의 가치 강조	
제도의 합리성	① 추진조직의 정비 및 확충 ② 도-시군-농어민의 협력적 농정거버넌스 구축 ③ 중앙정부 및 지역리더 등 주체별 관심과 지원	
정책의 신뢰성	① 체계적인 성과평가와 모니터링 수행 ② 3농혁신정책의 교육활성화(3농대학 등) ③ 3농혁신의 모범사례 발굴	

3. 귀하는 충남도 “3농혁신”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다음 중 어떤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타당한 3농혁신 정책의 수립 ② 3농혁신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③ 3농혁신 정책을 위한 제도개선 ④ 3농혁신 정책에 대한 신뢰성 제고 ⑤ 기타()

4. 귀하는 충남도 “3농혁신” 정책에서 다음의 분야가 어느 정도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중요도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①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생산					
② 지역식품유통체계 구축					
③ 행복마을만들기					
④ 도농교류 활성화					
⑤ 농어촌역량강화					

5. 귀하는 충남도 “3농혁신” 정책에서 다음의 4대 방향이 어느 정도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중요도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① 소프트파워/민간협력파트너십					
② 협동과 연대/지역네트워킹					
③ 지역내발적 발전					
④ 가공·유통·마케팅 강화					

6. 끝으로 3농혁신 정책에 대한 귀하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V. 인적사항

연령	만 ()세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거주지	() 시·군 () 읍·면·동
직업	① 농어민 ② 도청 공무원 ③ 시군공무원 ④ 대학 및 연구기관 ⑤ 지방의원 ⑥ 농어업·농어촌 유관기관 ⑦ 기타()
3농혁신 참여분야	① 3농혁신위원회 ② 3농혁신사업단(세부 팀명칭:) ③ 3농혁신대학 ④ 농어민단체 ⑤ 3농혁신집행 ⑥ 기타()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2]

3농혁신 연구회 운영 현황

전략과제: 3농혁신의 현재와 미래 연구회 운영 현황(10월 8일 현재)

일정	장소	부문	참석자	주요 논의 내용
1월 29일	충발연	총괄(연구자문)	허승욱 교수, 추욱 계장, 원내 참여 연구진	- 연구의 시의성 및 필요성 논의 - 연구의 목적, 범위, 내용 검토
2월 1일	충발연	총괄(연구자문)	손권배 과장, 이홍우 계장, 원내 참여 연구진	- 연구의 범위, 내용 재검토 - 연구결과 활용방안 논의
4월 25일	농업기술원	산지유통팀	김호 교수, 박지홍(농업정책과), 윤일근(농협 충남지역본부), 이봉구(부여통합RPC), 박기범(만인산농협), 김기현(지역농업네트워크), 박종관(수박공선출하회), 최명규(농업기술원), 김종화(충발연)	-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조례 제정계획안 검토 - 신규 전략품목 선정 - 생산자조직 중심의 산지유통 시스템 구축계획
4월 26일	농업기술원	지역리더양성팀	최문락 과장, 김시현 팀장, 서은숙 팀장, 유학열	- 2013년 교육시행 계획 검토 - 2012년 교육시행 시군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에 대한 논의: 내용, 시기 등 - 2012년 교육생(초급과정) 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 요청 - 2012년 교육프로그램 시군별 커리큘럼 요청
4월 29일	천리포수목원	청정수산팀	조한중(수산과장), 임민호(수산과), 최동용(수산과), 성낙천(수산과), 박경철(충발연), 김종화(충발연)	- 청정수산분야 과제 선정 배경 및 발전 방안
5월 6일	충남도청	산림자원팀	이찬호(공주대), 이용열(산림복지과), 김은환(웰빙산악초공동체), 김보영(공주친환경인증밤생산자협회), 최원창(임업후계자협회충남지회), 이원행(산림행정담당), 최영규(산림자원담당), 방의석(아산시 산림복지과), 이관틀(충발연)	- 3농혁신 산림자원분야의 추진과정과 성과평가 - 향후 산림자원분야의 사업방향 및 핵심사업 논의 - 산촌마을의 소득증대사업 논의
5월 13일	농업기술원	지역리더양성팀	최문락 과장 외 TF원 8명	- 지역리더아카데미 운영 현황 및 2013년 추진 계획 검토 - 지역리더아카데미 운영 상의 문제점 논의

5월 13일	농업기술원	농어업인 역량강화팀	최문락 과장 외 TF원 8명	- 농촌여성 역량강화 아카데미 참여 대상 논의 - 농어업인역량강화팀 추진과정 상의 문제점 논의
5월 14일	농어촌공사 충남도본부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박경 교수, 정남수 교수, 한동화 농촌개발과장, 유정규 박사 등 10명	- 마을학교 입찰에 대한 논의 - 포럼구성 및 운영에 대한 논의 - 성과평가 및 선행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 - 중간지원센터 및 융복합마을에 대한 논의 - 마을만들기 대회 추진에 대한 논의
5월 22일	충남도청	지역순환식품팀	TF원	- 2013년 사업계획 중간검토 - 2012년 사업내용 평가
5월 22일	충남도청	두레기업육성팀	유재룡 계장, 박일순 주무관	- 두레기업육성팀 중점추진시책 변동 추이 -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 등
6월 4일	충발연	총괄 10개 팀	허승욱 교수, 최문락 과장, 추욱 계장 등 약 30명	- 그동안 연구되어 온 결과물 논의 - 3농혁신 인지도, 문제점, 성과 등을 다룬 설문조사 결과 논의 - 세부사업별 추진 경위 및 문제점 공유
6월 5일	충남도청	청정수산팀	조한중(수산과장), 박영제(한국연구재단), 전승수(전남대), 김종화(충발연), 명노환(충청수산), 최병각(주교어촌계), 전상덕(씨에버) 외 시·군 수산공무원	- 그동안 추진성과 보고 - 청정수산팀 발전방안 토론회(참여율 제고 및 분위기 확산, 융·복합 및 도·시·군간 소통 강화, 3농혁신 중점사업 가축·가시화, 3농혁신 추진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등)
6월 13일	충발연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팀	정남수 교수(공주대), 정환영 교수(공주대), 박한식 박사(주)명소, 정규재 계장(농촌개발과) 등 8명	- 마을만들기 문제점 제기 및 개선방안 논의 -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성격 및 기능 등 논의(농촌활성화센터 연계 방안 등) - 마을발전계획수 수립 마을 선정 및 추진체계 논의 - 마을만들기 융복합 추진 및 향후 추진방안 논의
6월 13일	농업기술원	농어업인	최문락 과장	- 3농혁신 평가는 연구의 시의성, 대외공개로 인한 문제점 논의

		역량강화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농혁신대학의 성과와 운영 방향, 지속가능성에 관해 논의 - 3농혁신정책과 충남도 각 시군 정책과 연계 방향 모색
6월 17일	충남도청	농어촌복지팀	권유대팀장, 김광선박사, 윤정미박사, 본청, 교육청 각 담당 및 시군 관련 과장 3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제고 및 확산 방법 논의 - 충남형 농어촌서비스기준 지표 논의
8월 22일	공무원교육원	살기 좋은 희망마을만들기팀	박경 교수, 정환영 교수, 조영재 박사, 조재홍 팀장, 최광석 위원장, 홍기적 과장 등 1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만들기 문제점 및 2014년도 계획 - 3농혁신대학 운영계획
8월 26일	농업기술원	농어촌역량강화사업팀	황의선 행정단장, 유학열 민간단장 등 1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팀별 추진상황 논의: 추진과정상의 문제점 지적 - 2014년도 신규사업 발굴 논의
8월 26일	태안 소안면사무소	청정수산팀	조한중(수산과장), 임민호(수산과), 이봉우(수산과), 태안군 수산공무원, 관계자, 어업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삼 관련 현장 토론회 및 현장조사 - 해삼 생산성 확대 및 육성방안 모색
8월 28일	태안 이월면사무소	청정수산팀	조한중(수산과장), 박영제(민간팀장), 임민호(수산과), 이봉우(수산과), 김종화(충발연), 씨에버·어촌어항협회 관계자, 태안군 수산공무원, 관계자, 어업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갯벌참굴 관련 현장 토론회 및 현장조사 - 갯벌참굴 생산성 확대 및 내수·수출증진 방향 모색
9월 3일	서천 (서부수협)	청정수산팀	조한중(수산과장), 임민호(수산과), 김기문(수산과), 김종화(충발연), 씨에버·어촌어항협회 관계자, 태안군 수산공무원, 관계자, 어업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 관련 현장 토론회 및 현장조사 - 김생산 어업인 애로사항·건의사항 청취, 내수·수출증진 방향 모색
9월 4일	청양 충청수산	청정수산팀	조한중(수산과장), 임민호(수산과), 유재영(수산과), 김종화(충발연), 이희경(전 농업수산국장), 청양·부여군 관계공무원, 어업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천 100리 금강목장화 관련 현장 토론회 및 현장조사 - 금강목장화 사업의 방향성 토론, 육상수조 등 양식시설 시찰
9월 5일~6일	충남대 입학수련원	3농혁신위원회 및 관련 실국 합동워크숍	3농혁신위원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약 50여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불금 제도개선 방안 - 3농혁신위원회와 단·팀별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 2014년 자체예산 자율편성사업 의견수렴(안) - 도 농정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농업회의소 설립방안

9월 10일	보령 (충남수산물리사무소)	청정수산팀	조한중(수산과장), 박영제(민간팀장), 임민호(수산과), 이봉우(수산과), 한우탁(수산과), 최병각(팀원), 김종화(충발연), 보령시 수산과장, 보령수협 지도과장, 수산공무원, 관계자, 어업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지락 관련 현장 토론회 및 현장조사 - 바지락 생산 어업인 애로사항·건의사항 청취 - 해적생물(쏨) 구제방안 논의
9월 12일	충남도청	산지유통혁신팀	김의영(농산물유통과장), 김호(단국대), 박지홍(유통과), 서은숙(유통과), 윤일근(농협), 김종화(충발연), 이봉구(부여통합RPC), 김기현(지역농업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선조직 및 통합마케팅조직 도입 및 활성화방안 논의 - 충남 통합브랜드 선정 논의 - 산지유통혁신팀의 운영방안 논의
9월 16일	충남도청	친환경 고품질농업팀	TF팀원 및 관계공무원 등 약 20여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상반기 3농혁신 추진상황 보고 - 2014년 3농혁신 자체사업 실행 토론회 및 종합정리 등
9월 25일~26일	논산	3농혁신대학 희망마을 만들기과정	관계자 100여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만들기 문제점 및 향후 과제 도출 - 우수사례 발표
9월 27일	충남도청	농정혁신팀	추욱(농정혁신팀장), 김병성(농정혁신팀), 송요권(농정혁신팀), 유학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진행 상황 간이 보고 - 3농혁신의 지속성 담보를 위한 향후 과제(민선6기 이후의 3농혁신 기본계획, 2030 충남 농정의 중장기 계획, 3농혁신 중간지원 조직 등)
10월 1일	충발연	농업기술원 식량자원연구과	이동재(식량자원연구과 연구운영팀장), 장현동(미래농업연구과), 유학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술원에서 바라 본 3농혁신의 개선 점 논의